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궁전 손돌

궁성

주작대로





수물내부

외성



발해석등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발해 상경성
(IKONOS,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간행에 즈음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되었던 고구려연구재단을 하나의 축으로 하여 2006년 9월 발족하였고, 그동안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이루었던 각종 연구 성과도 함께 승계한 것은 물론입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2년 반이라는 활동 기간에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관련 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80여 권에 이르는 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그 종류도 전문학술서부터 일반 국민에게 우리 역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교양서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관계부처 등에 배포되어 좋은 연구자료로 활용되어 왔음에도 비매품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학계와 일반 독자들이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과거 고구려연구재단에서 발간되었던 도서들 가운데 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여 다시 발간하고자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의 뛰어난 연구성과물을 이어 받아 다시 간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연구업적을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와 집필에 매진해준 필자 한 분 한 분과 고구려연구재단을 이끌었던 김정배 이사장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책들이 동북아의 역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007년 11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응덕

‘새롭게 본 발해사’ 를 발간하며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여 년이 지난 뒤인 698년 건국한 발해는 단기간에 급속히 발전하여, 727년에 일본에 보낸 무왕의 국서에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였고 부여의 유속(遺俗)을 잇게 되었다”고 호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흥 국가 발해가 이렇듯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영도력과 우월한 생산 기술과 문화를 지닌 상당수의 고구려 유민의 유입 및 그들에 의한 개척이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후 당과의 꺾끄러운 관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고구려의 뒤를 이어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발해의 역사가 한국사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고조선-고구려-신라·발해로 이어지는 한국 역사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입니다. 즉, 발해는 예맥계 주민이 만주 지역에 건설하였던 마지막 국가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인들의 이주로 쌀농사가 지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한국 역사에서 만주(현재 중국 동북 3성 지역)는 잊혀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여 ‘해동성국’이라는 호칭까지 얻었던 발해는 현재의 중국 동북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지역, 러시아 연해주, 한반도 북부에 걸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해 영토의 대부분은 현재 남의 땅이 되어버렸고, 대부분의 지역은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졌고, 아주 먼 과거의 역사로 잊혀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Prologue

하지만 발해가 주민 구성, 역사적 계승성, 문화 등의 모든 면에서 한국사의 중요한 축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행 국사 교과서에도 남북국 시대로 설정하여 남쪽의 신라와 함께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발해의 역사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발해의 역사가 펼쳐졌던 지역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과, 발해사 연구자의 양적 부족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판된 발해사 개설서도 변변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재단에서는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주제들을 골라 서술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발해사 전공자들이 기존에 연구한 내용을 쉽게 설명한 글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발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억이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발해에 대한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뒤에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가르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글을 써주신 필자 여러분과 좋은 책을 만들어 준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정배

일러두기

1. 이 책은 발해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올바른 이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출간되는 발해 역사·문화 관련 단행본이다. 한국 고대사 전공자들이 발해 역사의 전개 과정과 사회상, 문화 성격 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주제들을 골라 서술하였다.
2. 이 책은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 서적으로서의 성격과 역사 전공자들에게 발해 역사와 문화의 요체를 간략하게 알리기 위한 학술 서적으로서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책이다. 따라서 각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억제하고 학계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보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단, 집필자 개인의 고유한 시각은 전체 균형을 크게 깨뜨리지 않는 한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3. 이 책은 쉽게 읽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가급적 한글을 사용하였고, 지명이나 책 이름, 사람 이름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4. 글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국의 지명들과 띄어쓰기, 고유명사의 명칭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서술 원칙에 따라 한글식 지명으로 표기하였다.

5. 원고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저서와 논문들은 글 말미에 참고 자료로 일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표적인 논저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그동안 출간된 발해사 관련 연구 성과들을 대거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참고한 연구 성과를 일일이 명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관련 연구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차례

제 1 부

발해의 성립과 발전

발해의 건국과 국호 (임상선) | 14

발해의 주민 구성 (한규철) | 30

제 2 부

발해의 변천

발해의 영역 (김진광) | 44

발해의 지방통치체제 (김동우) | 60

발해의 멸망 원인—시간적·공간적 접근 (김은국) | 79

발해 유민의 부흥운동 (임상선) | 91

제 3 부

발해의 대외교류

영원한 남북 교섭의 창—발해와 신라 (김은국) | 104

발해·당의 전쟁과 그 의미 (김종복) | 119

발해와 일본의 교류 (구난희) | 134

동아시아 해양강국 발해 (윤재운) | 152



제 4 부

발해의 문화

발해의 매장문화 (윤재운) | 172

발해의 복식문화 (전현실) | 185

발해의 건축문화 (이병진) | 210

제 5 부

각국의 발해사 인식

중국의 발해사 인식 (윤재운) | 226

북한·일본·러시아의 발해사 인식 (박진숙) | 239

부 록

발해 역사 연표 | 254

발해 국왕 세계표 | 256

참고 문헌 | 257

渤海

새롭게 본 발해사



제 1 부

발해의 성립과 발전

- 발해의 건국과 국호
- 발해의 주민 구성



발해의 건국과 국호

임상선 | 동북아역사재단 |

渤海

발 해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대의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창구와 같다.

발해의 역사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서, 한국사 가운데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만큼 발해사의 온전한 역사상이 국제적으로 규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속한 국가의 제반 요인이 은연중에 과학적인 탐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대 이후 발해사 귀속을 둘러싸고 학계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구려를 둘러싸고 다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논쟁이 격화되었다. 고구려사 분쟁은 사실상 발해사를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과 중국의 학계 간에 가장 의견차이가 나는 주제는 무엇보

다도 발해국의 귀속문제라고 할 것이다. 발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역사적 의식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점 등이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한국과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발해를 세운 인물은 대조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조영의 출신에 대해서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의 학생들 서로 다르게 알고 있다. 이것은 각 나라의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발해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역사교과서의 발해사 서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등학교 국사』는 ‘고구려 장군 출신’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1학년용 『조선력사』 1도 ‘고구려의 높은 귀족이며 장군’이었던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하여, 남북의 학생들은 모두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이라고 배운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대조영을 일관되게 말갈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송화강·흑룡강 유역에 생활하고 있었던 말갈족의 한 지파인 ‘속말부의 수령’이 바로 대조영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대조영을 어떤 민족의 출신으로 서술하고 있을까. 고구려계로 설명한 경우도 있고, 말갈 출신으로 분류한 교과서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고구려 멸망 후 그 왕족인 대조영’이 발해국을 세웠다고 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통구스계의 말갈인인 대조영’이라고 하였다.

발해의 건국자에 대한 각국 역사교과서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관련사료의 혼선에서 유래하기도 한다. 중국 당나라의 역사서이며, 발해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 있는 『구당서』는 대조영을 ‘고려별종(高麗別種)’

渤海靺鞨大祚榮者，本高麗別種也。高麗既滅，祚榮率家屬徙居營州。萬歲通天年，契丹李盡忠反叛，祚榮與靺鞨乞四比羽各領亡命東奔，保阻以自固。盡忠既死，則天命右玉鈐衛大將軍李楷固率兵討其餘黨，先破斬乞四比羽，又度天門嶺以迫祚榮。祚榮合高麗、靺鞨之衆以拒楷固，王師大敗，楷固脫身而還。屬契丹及奚盡降突厥，道路阻絕，則天不能討，祚榮遂率其衆東保桂婁之故地，據東牟山，築城以居之。

渤海，本粟末靺鞨附高麗者，姓大氏。高麗滅，率衆保挹婁之東牟山，地直營州東二千里，南比新羅，以泥河爲境，東窮海，西契丹。築城郭以居，高麗遺殘稍歸之。

萬歲通天中，契丹盡忠殺營州都督趙翹反，有舍利乞乞仲象者，與靺鞨酋乞四比羽及高麗餘種東走，度遼水，保太白山之東北，阻奧婁河，樹壁自固。武后封乞四比羽爲許國公，乞乞仲象爲震國公，赦其罪。比羽不受命，后詔玉鈐衛大將軍李楷固、中郎將索仇擊斬之。是時仲象已死，其子祚榮引殘夷遁去，楷固窮蹙，度天門嶺，祚榮因高麗、靺鞨兵拒楷固，楷固敗還。於是契丹附突厥，王師道絕，不克討。祚榮卽并比羽之衆，恃荒遠，乃建國，自號

〈그림 1〉 『구당서』(우)와 『신당서』(좌)의 발해 관련기사

이라 하여 고구려제로 기술하고 있고, 또다른 발해 기본사서인 『신당서』는 ‘속말말갈로서 고려에 붙은 자(本粟末靺鞨附高麗者)’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해 건국자에 대한 서로 다른 사료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논쟁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 발해의 건국 전야

1.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은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그 영토를 다스리기 위하여 668년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당은 향후 고구려인의 저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669년에는 2만 8천여 호에 달하는 유력한 주민들을 당으로 끌고 갔다. 이 주민들은 그 숫자상으로 미루어 대부분이 고구려 상층부 사람들이었을 것이며, 그들의 거주지역은 수도인 평양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당은 강제로 데려간 고구려인을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였는데, 왕족들은 당의 수도 지역에 배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늘날 장강과 회화 이남 지방, 호북·섬서·하남·사천 및 감숙성 지역과 같이 고구려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황량한 곳이었다.

고구려 지역에 남아 있던 유민들은 당의 지배에 저항하며 적극적으로 부흥운동을 시작하였다. 평양 일대에서는 670년 안승(安勝)이 검모잠과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나, 내분이 일어나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하고, 674년에 신라에 의해 보덕왕(報德王)에 봉해졌다. 신라와 당의 주요 전쟁터였던 고구려의 남부지역인 평양 이남 지역과 예성

강 유역 일대는 그 주민의 상당수가 남쪽의 신라로 넘어가고, 점차 신라의 영향권에 편입되어 갔다.

요동 지역에서도 고구려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멸망 후인 669년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성(城) 가운데, 당에 항복한 것이 11개, 점령당한 것이 3개에 불과하고, 교전 중인 성이 11개, 주민이 떠난 성이 7개라고 하였다.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지역 중 멸망 이후에도 당의 지배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70년 3월에는 신라의 사찬 설오유(薛烏儒)와 고구려 장군 고연무(高延武)가 각각 1만 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4월에는 옥골(屋骨) 개돈양이라는 곳에서 말갈과 당의 연합군과 싸워 목베어 죽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671년 7월 오늘날 요녕성 해성(海城)에 있던 안시성(安市城)에서도 부흥군과 당 사이에 전투가 격렬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신라와 고구려 유민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676년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 지역으로 옮긴 이후에도 당의 고구려 지역 지배는 쉽지 않았다.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요동 지역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하여 당은 677년 2월에는 당의 수도인 장안에 끌려와 있던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寶藏王)을 다시 요동으로 데려와 '요동주도독 조선왕'으로 책봉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시기 당의 각지에 분산 배치하였던 고구려 유민들도 요동 지역으로 이주시켜 이 지역의 안정과 지배권 확립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의 기대와 달리 보장왕이 말갈족과 내통하여 고구려 부흥운동을 꾀하자, 당은 다시 보장왕과 고구려 유민을 당 내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보장왕이 유배지에서 죽은 뒤 685년에는 그 손자인 고보원

(高寶元)을 '조선군왕(朝鮮郡王)'으로 삼고, 다시 698년에는 좌옹양위대장 충성국왕(左鷹揚衛大將 忠誠國王)에 봉하여 요동 지역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고보원의 요동 부임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699년에는 보장왕의 아들인 고덕무(高德武)를 다시 안동도독(安東都督)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요동 지역이 이미 당의 영향권에서 멀어져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당의 조치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696년 이진충의 난을 계기로 영주 일대가 혼란에 빠지고, 특히 698년 발해의 건국을 전후하여 요동 지역은 거란과 해(奚)의 등장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면서 당은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배행위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2. 건국의 단초—영주 탈출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의 영주(營州) 일대에 끌려와 생활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은 일종의 기미주 형태로 집단별로 당에 예속되어 있었다. 영주 지역은 요하(遼河) 서쪽의 대릉하(大凌河) 상류에 위치한 비교적 건조한 지대이며, 오늘날 요녕성 조양(朝陽) 일대였다. 이 지역은 5세기 이래 중국의 중원왕조가 요서, 요동을 비롯한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군사,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7세기 이후에는 복속된 많은 국가와 집단의 구성원들이 영주 지역에 강제로 이주되고, 당은 이들을 기미주로 편성하여 통제하고 있었다. 고구려 멸망 후 그 주민들이 당의 내지로 끌려갈 때도 이 지역을 지났을 것이고, 보장왕과 그 자손들이 요동으로 귀환하고 다시 당으로 송환될 때도 마찬가지로 영주 지역을 경유하였다.

대조영 집단도 이러한 과정에서 영주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을

것이다. 『구당서』에는 대조영이 영주로 이주할 때, 가족을 이끌고 갔다고 한다. 대조영이 영주 탈출시 고구려 집단을 인솔한 것으로 미루어, 대조영 이외에도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함께 영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696년 5월 거란족의 수령 이진충(李盡忠)이 손만영(孫萬榮)과 함께 돌궐의 후원을 받으며 난을 일으켜 영주도독을 죽이고 영주를 점거하였다. 이진충은 7월에 스스로 무상가한(無上可汗)이라 칭하며 사방을 공격하여 도처에서 승리를 거두니 열흘 만에 군사가 수만 명에 달하였다. 9월에 이진충이 죽은 후는 손만영이 무리를 이끌며 697년 6월까지 당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영주 지역 일대는 큰 혼란에 휩싸이고, 이곳에 예속되어 있던 다수의 집단들은 선택의 기로에 처하였다. 고구려 유민들의 일부는 계속 이 지역에 남아 있거나 당의 군병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고구려 유민으로서 산둥 지역의 번진으로 활약한 이정기(李正己) 일가는 그 대표적 예이다. 이와 달리 당나라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영주 지역을 이탈한 부류가 있었으니, 대조영과 말갈족의 걸사비우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건국과정과 참여집단

1. 건국과정

발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는 당나라 역사서 『구당서』와 『신당서』의 서술을 통하여, 발해 건국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멸망 이후 고려별종(高麗別種)인 걸걸중상(혹은 대조영)과 그 가족들이 요서 지역인 영주 일대에 끌려와 거주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만세통천 연간인 696년 5월경 거란인 이진충(李盡忠)의 반란을 틈타 고려별종 대조영(혹은 걸걸중상)의 무리와 말갈 걸사비우 무리, 고구려 유민이 동쪽으로 탈출하였다.

대조영 집단은 영주를 떠나 동쪽 180리의 연군성(燕郡城)에 이르러, 또 여라수착(汝羅守捉)을 지나 요수(遼水)를 건넜다. 당시 안동도호부와 요동도독이 있던 요양(遼陽)과 무순(撫順)의 북쪽 지대를 지나 1차로 정착한 곳은 다름 아닌 요동 지역으로서 옛 고구려 땅이었다.

이진충이 696년 9월 죽은 뒤, 당나라는 걸사비우와 걸걸중상을 회유하기 위하여 전자를 허국공(許國公)에, 후자를 진국공(震國公)에 책봉하며 그 죄를 용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걸사비우가 당의 제의를 거절하자, 당시 여황제인 측천무후는 이해고(李楷固)에게 토벌을 명령하였다. 이해고는 697년 후반경 먼저 걸사비우를 죽이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뒤이어 고구려 집단으로부터 결정적 패배를 당하였다.

걸걸중상이 병으로 사망한 후 고구려 집단을 이끌던 대조영은 처음에는 이해고와의 싸움에서 패하자 패잔병을 이끌고 천문령(天門嶺) 동쪽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해고가 여세를 몰아 오늘날 휘발하와 혼하의 분수령으로 비정되는 천문령을 넘어 계속 공격해 오자, 대조영은 이 2차 전투에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 걸사비우의 남은 무리를 병합하여 이해고를 격퇴시켰다.

이 때 거란과 해(奚)의 돌궐 귀속으로 길이 막혀 당의 토벌이 불가능해지자 대조영은 그 무리를 이끌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태백산의 동북 읍루의 옛 땅을 차지, 동모산(東牟山)에 성을 쌓고 이곳에 거주



〈그림 2〉 | 동모산(오늘날 성산자산성)과 오루하(오늘날 대석하)



* 임상선 제공

하게 되었다. 동모산은 오늘날 중국 길림성 돈화시의 성산자산성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후 대조영이 용맹스럽고 용병을 잘하자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 유민들이 점점 귀속해 오자, 대조영은 성력 연간인 698년에 건국하여 진국왕(震國王)이라 칭하기에 이른다.

2. 참여집단

발해의 건국은 계통적으로는 고구려계와 말갈계의 다양한 집단이, 지역적으로는 요서의 영주에서 요동과 동모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고구려 멸망 이후 698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일단락되었다. 발해 건국과정에 참여한 집단은 영주로부터의 동주 집단, 천문령 전투 전후에 참여한 집단, 건국 직후에 참여한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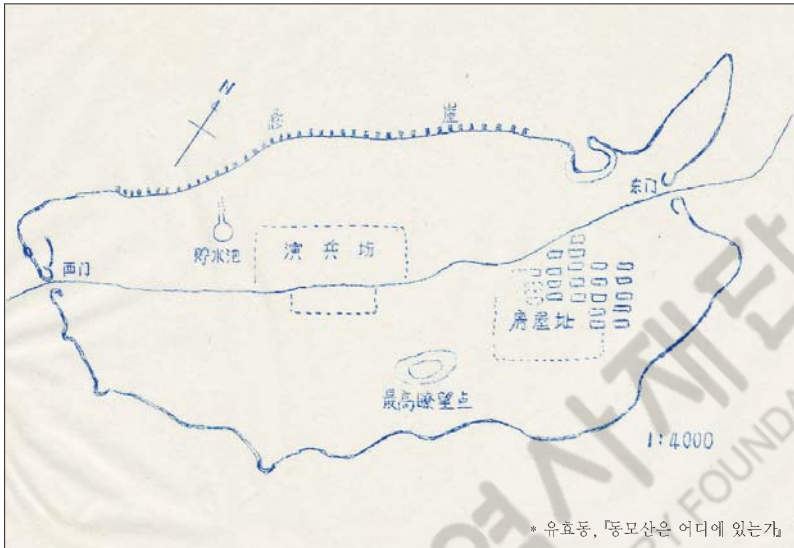
먼저 동쪽으로 탈출할 때의 집단은 고려별종 집단과 말갈 걸사 비우의 무리, 그리고 고려여종(高麗餘種)이라는 고구려 유민 집단이다. 고려별종 집단은 669년에 당의 내륙 지역으로 끌려간 집단의 일부로서 영주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대조영 집단도 이런 부류에 속하였다. 걸사 비우 집단은 최치원(崔致遠)의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에 의하면 고구려 멸망 이전에 보잘것 없는 부락이었던 말갈의 족속인 속말부(粟末部)의 작은 무리였는데, 고구려를 쫓아 당에 이주하였다. 이들이 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고구려의 대당전쟁에 깊이 참여하는 등 반당적인 색채가 강하고 이른바 잠재적 위협세력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동주 집단인 고려여종은 고구려 유민의 일부로서 고구려 멸망 이후 영주에 옮겨 와 있었으나 고려별종

과 달리 지휘자나 조직이 없이 이 곳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696년 중반의 동주 이후 천문령 전투 이전에 참여한 집단은 요동의 고려 고지에서의 1차 정착과 이해고의 토벌군과의 전투, 그리고 천문령 동쪽에서의 당군의 격퇴 등과 같은 사건을 겪게 된다. 대조영과 걸사비우가 요동 북쪽 일대에 국가적 체제를 갖추자 당은 이들 세력을 인정하고 걸걸중상을 진국공(震國公)에, 걸사비우를 허국공(許國公)에 임명하게 된다.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책봉을 받을 당시 이들에게는 처음의 동주 집단에 요서·요동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중에서 참여한 집단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걸사비우가 당나라의 책봉을 거절하자, 당의 측천무후는 이전의 당의 지배력을 확립하려는 의도하에 이해고(李楷固)에게 토벌을 명한다. 이해고는 먼저 걸사비우 집단을 공격하여 걸사비우를 죽이고 대조영도 격파한다. 여세를 몰아 이해고가 계속 천문령을 넘어 공격해 오자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의 무리를 규합하여 이해고를 대패시킨다. 따라서 천문령 동쪽에서 2차 정착을 하는 시점에서 대조영 집단은 고구려계와 말갈계의 연합병적 성격을 띠게 된다. 고구려계에는 영주로부터 행동을 같이 한 무리인 고려별종과 영주에서 천문령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참여한 다양한 고구려 유민이 혼재되어 있었고, 말갈계는 영주에서 동주한 걸사비우 집단의 패잔병이 주축을 이루면서 동주 이후 부분적으로 참여한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천문령에서 이해고의 추격군을 격파한 대조영은 그 무리를 이끌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늘날 길림성 돈화시 부근의 성산자산성으로 비정되는 동모산(東牟山)에 성을 쌓고 거주한다. 이 때가 바로 698년 이고, 대조영은 건국한 후 진국왕(震國王)으로 자칭하였다고 한다.



〈그림 3〉 성산자산성 평면도

그 후에도 대조영이 용맹스럽고 용병을 잘하자 새로이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 유민들이 속속 귀속해 온다. 여기서 이들 새로운 참여 집단은 크게 보아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원래 동부 만주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던 이들과 외부에서 이 곳으로 이입해 들어온 주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치원의 「사불허북국거상표」에는 발해 건국 전후에 참여한 집단을 '고구려 유민(句麗遺燼)' 과 '물길(勿吉雜流)' 이라고 거명한 주목할 내용이 있다. 이것에 의하면 대조영이 동모산에 성을 쌓은 뒤 새로이 참여한 무리가 구체적으로는 태백산 지역의 고구려 유민과 속말수 지역의 속말말갈(粟末靺鞨)이 중심적인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해는 건국 후 돌궐과 통교하게 되는데, 양국이 공동의 적인 당나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700년경에는 남쪽의 신라에도 사신을 보내어 건국을 알리고 통교하였다.

8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당은 정책을 바꾸어 발해를 인정하고 회유하고자 하였다. 이는 당시 요서 지역을 교란하고 있던 거란·해·돌궐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동편에 있는 발해의 존재를 주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발해도 당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만큼,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건국자와 국호

발해의 건국과정에 등장하는 인물로서는 대조영을 비롯하여 길걸중상(乞乞仲象), 그리고 걸사비우(乞四比羽)가 있다. 걸사비우는 영주에서의 탈주 이후 이해고와의 1차 전투 이전까지 당나라 입장에서 제1의 토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걸사비우의 죽음 이후에는 고구려 유민을 지휘하던 대조영이 말갈의 무리까지도 아우르면서 발해 건국에서 명실상부 중심인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길걸중상과 대조영의 관계는 『신당서』의 기록과 같이 부자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길걸중상이 영주 탈출로부터 이해고(李楷固)와의 전투 이전까지는 고구려 유민을 지휘하였을 것임은 인정할 수 있지만, 발해 건국 과정에서 주동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역시 그의 아들 대조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건국 후의 국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당서』에는 713년 당나라가 최흔(崔訢)을 파견하여 대조영을 좌효위원의대장군 발해군왕 흘한주도독(左驍衛員外大將軍 渤海郡王 忽汗州都督)에 책봉하고, 이 때부터 말갈(靺鞨)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발해(渤海)라고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중국 학계에서는 발해의 처음 국호는 ‘말갈’ 이고 713년 이후 ‘발해’로 개칭되었다고 하며, 발해가 말갈이 세운 국가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기록에 나오는 ‘말갈’이나 ‘발해’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은 발해가 아니라 당나라이다. 당나라가 발해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지, 발해 사람들이 국호를 ‘말갈’이나 ‘발해’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발해 사람들은 어떤 국호를 사용하였을까.

발해 사람들이 사용한 국호로서는 먼저 ‘진국’이 있다. 698년 대조영이 동모산에 나라를 세운 후 ‘진국왕’을 자칭하였다는 것에서 ‘진국(震國, 혹은 振國이라고도 함)’이 최초의 국호일 가능성이 많다. 발해 사람들이 자칭한 또 다른 국호로는 ‘고려’ 혹은 ‘고려국(高麗國)’이 있다.

고려라는 명칭은 727년 발해가 처음 일본에 사신을 보내며 첨부한 국서에서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가졌다(復高麗之舊居 有扶余之遺俗)”라고 하며, ‘부여’와 함께 ‘고려’를 언급하였다. 758년에는 양승경(楊承慶)이 이끄는 발해 사신이 일본을 방문하여 전달한 국서에서 당시의 왕인 문왕(文王)은 자신을 ‘고려국왕’이라 하였다. 이듬해 일본 조정이 돌아가는 발해 사신을 통하여 문왕에게 보낸 국서에서도 문왕을 고려국왕이라고 하였다. 이후 고려국왕 혹은 고려라는 명칭이 한동안 일본 기록에 등장한다.

이 고려라는 명칭을 중국 학계에서는 자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기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을 신빙하는 경우에는 일본과의 교류시에 사용한 임시적인 용도 혹은 발해인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발해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 인접한 국가의 사람들이 남긴 것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기록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해인 스스로 자신을 ‘고려’ 혹은 ‘고려국’이라 하고, 상대방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관련 자료가 새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발해 초기, 특히 문왕 시기 발해의 국호가 ‘고려’였을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해의 주민 구성

한규철 | 경성대학교 |

渤海

발 해국의 주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발해국 이전의 고구려인들이었는가, 아니면 그들과 관련이 없는 이른바 말갈인이었는가? 흔히 발해의 주민을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 피지배층은 말갈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피지배층이 고구려와 관련 없는 말갈인이 대부분이었다면, 발해야말로 말갈의 왕조였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소수의 고구려 지배층만을 중심으로 발해국이 고구려인의 왕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해의 주민은 건국(698년)되기 30년 전에 멸망한 고구려인들이 그대로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발해인이 된 것이다. 그 당시 말갈이라 불리는 주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고구려와 다른 종족 출신이 아니라 고구려의 변방 피지배 주민들을 멸시하여 부른 호칭이었다.

발해 주민 구성과 관련하여 발해 사람들이 당시 그들 자신을 누구의 후손이라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발해 주민들이 스스로를 고구려 후손으로 생각하였는가 아니면 ‘말갈(靺鞨)’ 후손으로 자처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발해 시대에 지금과 같은 국가나 민족의 계승 의식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왕조는 나름대로의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다면 발해 주민 구성의 열쇠는 말갈의 실상을 밝히는 데에 있다.

발해의 주민이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 피지배층은 고구려계와 다른 말갈인들이었다고 하는 이원적 주민 구성론은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물론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학계에서는 지배층도 모두가 말갈인이었다고 하여 지배층의 고구려인설도 부정한다. 지배층의 고구려 유민설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인과 다른 다수의 피지배 말갈인설을 수용한다면 발해사야말로 말갈사나 만주사로 봄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발해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가 고구려 유민이었다. 발해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다는 점은 일본인 학자 시라토리(白鳥庫吉)가 이미 1955년도에 밝힌 바 있다. 그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일본의 역사서인 『속일본기(續日本記)』에 발해에서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가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발해는) 옛 고구려의 땅을 다시 찾아 거하고 있다”고 하였다든지 발해왕 스스로를 ‘고구려국왕 대흠무’라고 하였던 점을 우선 들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 보낸 85명의 발해 정사(正使) 중에서 26명이나 옛 고구려의 성(姓)과 같은 고씨(高氏)였다는 점, 그리고 당시 일본이 발해를 고구려(고려)라고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후 발해 지배층의 고구려인설은 북한의 박시형과 일본의 미카미(三上

次男) 등에 의해 수용되어 오늘날 한국 및 일본 학계의 통설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도 대부분은 피지배층의 말갈설을 지지하였다. 다만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피지배층 다수도 고구려인이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말갈족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한 전제에서 고구려 땅(발해 본토)에 세워진 발해는 당연히 고구려의 후손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식이 이론의 큰 전제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는 지배층도 역시 고구려계와 다른 말갈족이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신당서(新唐書)』(1044~1060)에 발해 건국자 대조영을 ‘속말말갈’ 출신이라고 한 것에 근거해서이다. 그러나 대조영의 고구려계설은 발해가 멸망하고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구당서(舊唐書)』(940~945)에 대조영을 고구려의 별종(高麗別種)으로 기록하고 있어 한국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앞의 『신당서』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종족적 출신 성분이다. 다만 『신당서』도 대조영을 ‘고구려에 부속된 자’로 서술하고 있어 정치적으로는 고구려에 속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도 발해의 주민 구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과연 ‘말갈’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점이다.

고구려를 다민족 국가로 보고 그 구성 종족 중에 말갈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장수왕대에 조성된 광개토왕 비문 정도에는 분명 말갈의 존재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말갈로 여길 만한 대목은 없다. 기록상 말갈이 처음 나오는 것은 중국 사서부터였다. 그러나 한국측 『삼국사기』에서는 백제의 온조왕이나 동명성왕 원년(B.C. 37) 때에도 말갈이 등장하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

❁ 중국 사서와 『삼국사기』에서의 말갈

중국 사서가 주변 종족을 기록하는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말갈 역시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기록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선조였다고 하는 숙신(肅慎)과 읍루(挾婁)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말갈은 숙신·읍루·물길 등과는 달리 일곱 부족(부족)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즉, 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숙신·읍루를 포함해서 이들과 계통을 달리하는 예맥계의 부여·옥저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중국측 『수서(隋書)』의 말갈은 속말(粟末), 백돌(伯咄), 안거골(安車骨), 불열(拂涅), 호실(號室), 흑수(黑水), 백산(白山)의 7부로 나누어 있다. 그러나 숙신이나 읍루, 심지어는 말갈의 직전 조상으로 알려진 물길까지도 그들의 종족 구성에서는 단일 부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갈 이외의 다른 종족의 경우는 한 종족이 몇 개의 부족(부락)으로 나뉜 예는 없다. 단지 말갈의 후신으로 알려진 여진만이 30성 여진 등으로 나뉘어 있어 말갈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 사서의 말갈 기록이 갖는 특징은 위와 같이 여러 종족 계통이 포함된 넓은 범위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7부 말갈의 종족 계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말갈의 종족 계통설은 진(秦) 이전의 숙신에서 한대(漢代)의 읍루, 후위대(後魏代)의 물길에서 수·당대(隋·唐代)에 비로소 말갈이 되었다는 일원적 계통론이다. 그러나 말갈의 전신으로 알려진 숙신과 읍루의 계통이 일원적이지 못하거나 다르다는 점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다. 중요한 7말갈에서도 그 안에는 고구려의 일부인 속말부(속말말갈)나 백산부(백산말갈)와 같은 예맥계도 있는가 하면 고구려와 다른 흑수부와 같이 순통구스계의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말갈이 갖는 특징은 시간적으로 중국 정사와는 달리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원년(B.C. 37)부터 경명왕 5년(921)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사에서 본격적으로 말갈을 다룬 것은 『수서』부터였고, 최초 기록은 『북제서』 「무성제기」 하청 2년(563)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말갈은 중국 왕조로 보자면, 한에서부터 오대의 후량에까지 이른다. 말갈의 또 다른 특징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 정사와는 달리 임진강 유역과 남한강 유역 등에까지 등장하면서 낙랑이나 고구려의 부용(附庸)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삼국사기』(본기)에는 중국 정사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갈도 있다. 영양왕 9년(598) “왕이 말갈인 만여 명을 거느리고 요서 지방에 침입하다가, 영주총관 위충에게 격퇴되었다”는 기사를 필두로 영양왕 23년(612), 보장왕 2·3·13(654)년 등에도 이것과 같은 부류의 말갈이 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수서』나 『자치통감』, 『신당서』 등에도 나오고 있어 이 곳의 말갈은 『삼국사기』의 말갈과는 전혀 다른 진말갈(眞靺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말갈이 이와 같이 중국 사서와 다른 기준에서 기록되었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였는가.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종족 계통을 고구려와 같은 예맥계에서 찾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국측의 ‘말갈 7부’와는 달리 고구려와 낙랑 및 신라 변방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당나라 동북방 이민족을 낮추어 부른 호칭

말갈이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했던 종족명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 특히 중국인들이 이들을 일방적으로 불러 기록한 이름이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만주 주민들이 진(秦) 이전에는 스스로 숙신이라고 하다가 한대에는 읍루, 후위(원위)대에는 물길, 수·당대에는 말갈이라고 그들의 종족명을 고쳐 불렀는가 하는 점이다. 도대체 중국의 왕조 교체에 따라 주변 민족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달리 불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중국측 기록자들이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불렀던 호칭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말갈의 어원은 어느 지명이나 종족명으로부터 나왔겠지만, 말갈이 그들 주민들의 종족 의식 내지 왕조 의식을 통해 나온 이름은 아니다. 고구려 시대(수·당대) '말갈' 지역에서는 국호를 자칭할 만한 왕조가 없었다. 따라서 말갈이란 그들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호칭한 것에 불과하였다. 물론 고구려나 당나라 사람들이 말갈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름은 주민들이 스스로 부른 종족명이 아니라 고구려나 당나라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낮추어 부른 호칭이었던 것이다. 고구려나 당나라 사람들이 '말갈'로 부르니까 송화강이나 백두산 변방 주민들도 그들에게 '말갈'이라 자기를 소개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그들 스스로에 대한 호칭은 아니었던 것이다. 발해 주민들로 확대해서 본다면 이들이 말갈의 후손이었다면 스스로를 '말갈'이라 자처했을 법한데, 이러한 예는 중국이나 일본 어느 기록에도 찾아볼 수 없다.

말갈을 여러 계통의 주민들을 통틀어 부르는 호칭이자 낮추어 부른 호칭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출현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다. 그들의 선조들로 알려진 숙신이나 읍루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조와 전혀 관계 없다는 예맥 및 부여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도 관련되지만, 말갈 앞에 ‘속말’, ‘백돌’, ‘흑수’, ‘백산’ 등의 수식어가 덧붙여지는 것도 말갈의 타칭 가능성을 높여 주는 사실이다. 아울러 『삼국사기』에 기원전으로까지 말갈이란 종족명이 나오는 것도 같은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말갈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인들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적어도 『북사』 「물길전」에서 말갈보다 먼저 물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처음에는 물길 등으로 불리는 조그마한 씨족 부락이 있다가 이것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당시 중국인들의 동북방 이민족에 대한 호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엄격히 말해 말갈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의 의미와 이것이 동북방 이민족을 전체적으로 부르게 되었을 때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다.

말갈로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백산 사람’ 또는 ‘송화강 사람’과 같이 지역을 앞세워 소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당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속말말갈’이나 ‘백산말갈’로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아무튼 중국측 기록이 말갈을 7부로 나누어 ‘속말부’니 ‘백산부’니 하는 식으로 넓은 지역의 주민들을 나누어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것의 통칭적 성격을 반증한다. 따라서 말갈을 일원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각 말갈 7부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흑수말갈을 제외한 말갈로 불리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구려 시대 고구려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정치·군사상의 고구려와 말갈

말갈 중 고구려와 가장 관계가 깊었던 세력은 발해 건국의 중심 세력이었던 백산부와 속말부이다. 그런데 백산부는 고구려에 '신속' 내지 '부속' 되어 있던 세력으로 역사적으로도 고구려와 같은 예맥계이면서 고구려 시대에는 고구려의 변방 피지배 세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왕들이 지금의 훈춘이자 백산말갈의 주거지지로 알려진 책성(柵城)에 자주 순수하였던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속말부의 경우는, 비록 그들이 살던 곳과 고구려의 통치 영역이 겹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백산부와 좀 사정이 달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구려에 어느 때는 부속 내지 협조자로서 역사적으로 운명을 같이 했는가 하면, 다른 때는 배반 내지 적대관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백산부나 속말부로 생각되는 말갈이 고구려 병사의 일원으로 활약하였던 사실은 고구려와 당의 안시성 전투 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당나라에 패하고 난 이후 고구려인은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갈로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구덩이에 파묻히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당이 말갈을 철저히 보복하였다는 것은 말갈이 고구려군의 한 구성 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근거다. 특히 고구려 멸망 후에 당나라에서 임명한 고장(高藏 : 보장왕)이 요동에서 '말갈'과 함께 서로 통하여 고구려를 부흥시키려다 발각되었던 사실은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였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말갈은 언제나 고구려에 신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돌궐이나 설연타의 영향권 밑에 있기도 하였고, 그들 중의 어떤 무리는 당과 협력

하여 고구려를 치기도 하였다. 당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거란 및 말갈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수나라 말기에는 속말말갈의 돌지계(突地稽)가 당에 투화하여 그 아들 이근행(李謹行)까지도 당에 충성하였던 사실은 유명하다.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가 신속이나 대결 어느 쪽이었던 말갈은 고구려의 성원이었다. 어느 왕조에서건 적대·배반하는 지방의 피지배민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은 중앙과 지방 귀족의 정치적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갈등과 화해·종속 관계가 시간의 선후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나아가 두 집단 사이에 우호적이거나 종속적 관계의 지속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종족의 동질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 심지어 말갈의 고구려에 대한 적대관계를 이민족의 관계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신속과 대결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종족 계통에서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말갈로 불리는 지방의 수령 세력이 당 및 일본과의 정치·경제적 외교관계를 가졌던 예도 있었다. 일종의 반독립적 입장에서 지방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령이나 지역 말갈 세력으로 기록되는 하였으나 그들 자신의 국호를 칭했던 예는 없었다. 다만 흑수말갈은 준국가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외교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당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였다. 당과의 밀착으로 인하여 발해가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흑수말갈이 그들 고유의 국호를 사용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간혹 ‘흑수국(黑水國)’이라고 하였지만 국호로 보기는 어렵다. 흑수말갈은 결국 발해에 복속되어 발해의 지방 세력화 되었지만 나름대로 반독립적 상황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말갈이 전혀 다른 종족이었던 것처럼 기록하게 된 가장 근본적 배경은 기록자들이 처했던 시대적 환경과 중국 중심적 변방 의식 같은 것에서 찾아야 한다. 또 다른 배경은 전근대의 역사 서술이 왕조 중심적이고 도시 중심으로 기록을 해 왔던 점이다. 즉, 도시 사람과 시골(지방) 사람 및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차별했던 역사관에 기인하여 ‘말갈’이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삼국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신라가 경주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던 것도 그 한 예이다. 즉, 신라인이란 바로 경주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보아 고구려인도 바로 평양 사람을 지칭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인(國人)의 국(國)도 ‘서울국’의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발해에 관한 기록에서도 ‘국인’이란 발해의 지배층을 일컫는다고 한다. 여하튼 왕조 중심적 기록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갈의 실상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도시 중심의 지배층과 변방 시골 중심의 피지배층의 관계를 단지 문화적 이질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를 전혀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로 보는 것은 문제이다. 평양의 고구려 귀족들이 당 문화를 섭취하여 일정하게 귀족 문화를 향유하고 있을 때, 지방의 토착 문화는 그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곧 두 집단 간의 역사적 관계가 이질적이었거나 다른 국가의 구성원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발해국의 주민 구성에서 말갈을 고구려와 다른 피지배층으로 보는 이원적 주민 구성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료로 간주하는 것은 일본의 『유취국사(類聚國史)』이다. 여기에는 “이르는 곳마다 마을이 있는데,

모두 말갈 부락이다. 백성은 말갈이 많고 사인(土人 ; 土人)은 적다”고 기록되어 있어 발해의 주민들이 말갈과 사인(土人)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는 기록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견해는 이 기록을 근거로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계의 토인(土人)이고 피지배층은 그와 다른 말갈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어떤 『유취국사』 사본에는 토인이 아니라 사인(土人)으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지배층의 의미가 있는 선비 ‘사(士)’의 사인이 맞다고 보아야 한다. 토인은 토착인이라는 의미가 강해 오히려 피지배층을 의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구려 풍속과 언어, 고구려 온돌을 사용한 발해인

발해의 주민이 고구려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언어와 풍속 및 문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와 풍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구당서』에는 발해는 고구려와 풍속이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풍속이란 관혼상제(冠婚喪祭)와 같이 혈연과 지연의 계승관계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고구려와 발해가 같다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발해의 언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풍속의 범주에는 언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발해와 말갈 또는 고구려와 말갈의 언어를 비교하고 있지 않은 것도 말갈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다. 말갈은 고구려나 발해와 풍속과 언어가 동일한 부류였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말갈이 그 전신이라고 하는 숙신·읍루 등과 계통성이 희

박하다는 사실은 어원적 계통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오히려 말갈의 어원적 계통성은 한국어에서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한국어에서 '말갈(mal-gal)' 과 '물길(mul-gil)' 은 어원이 같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중국어의 경우는 Mo-he(靺鞨)와 Wu-ji(勿吉)와 같이 어떠한 언어적 근친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다면 말갈의 언어적 계통은 고구려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한국어에서 찾는 것이 순리이다. 어원적으로 볼 때에도 말갈의 고구려적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발해라는 국호도 예(濊)와 맥(貊)의 '맥'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예맥조선(濊貊朝鮮)이 발조선(發朝鮮)으로도 언급되는 것과 같이 맥해(貊海)가 발해(渤海)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가장 변하지 않는 것들을 비교해도 발해의 주민은 고구려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덤과 주거 양식 등을 보자. 무덤은 고구려 지배층이 돌을 많이 사용하는 석실, 석곽, 석관묘가 주류였다면 피지배층은 흙구덩이의 토광묘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토광묘는 대개 말갈의 전형적인 묘제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는 말갈로 불리는 피지배 주민들의 일반적인 묘제일 뿐이지 고구려와 다른 말갈의 묘제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발해인들은 고구려인들이 사용하던 온돌을 사용하였다. 온돌이 고구려의 일반화된 주거 양식은 아니었지만 발해에서는 보다 발전된 모습의 온돌을 사용한 흔적이 왕궁터 등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발해인들은 옛 고구려 땅의 대부분을 근거로 종족적인 면에서나 언어와 풍속, 문화적인 면에서 모두가 고구려인들의 것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었다.

渤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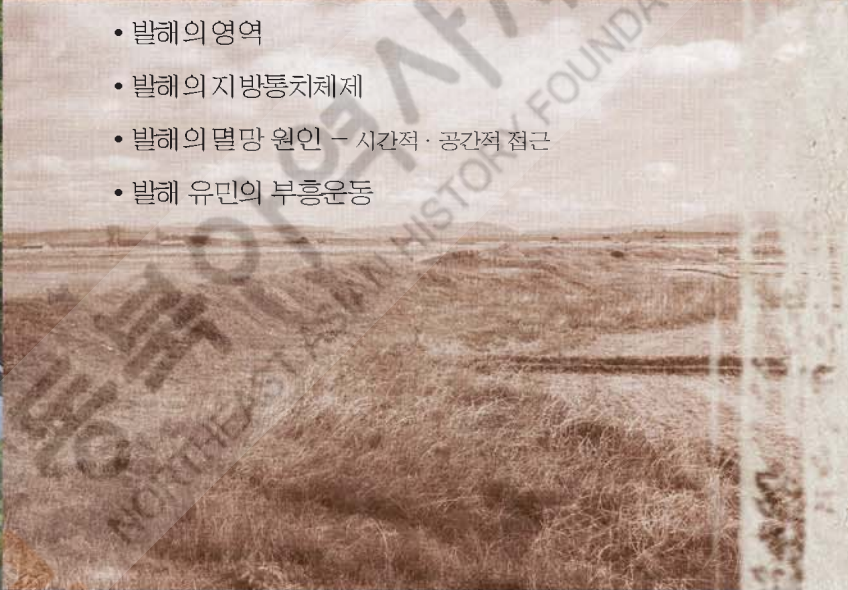
새롭게 본 발해사





제 2 부 발해의 변천

- 발해의 영역
- 발해의 지방통치체제
- 발해의 멸망 원인 - 시간적·공간적 접근
- 발해 유민의 부흥운동



발해의 영역

김진광 | 한국학중앙연구원 |

渤海

발 해사를 이해하는 데 강역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발해는 698년 현재의 길림성 돈화시에 위치한 동모산에서 대조영이 건국한 국가로서 926년 거란에 멸망당할 때까지 228년간 존속하였다. 그러나 발해는 멸망과정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매우 짧은 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기 때문에 자료의 부족이라든가 역사서의 부재로 인해 그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해의 강역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발해 강역권의 변화는 크게 3시기, 즉 고왕시기, 무왕·문왕시기, 그리고 선왕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각 왕대 강역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은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2만의 군대를 주둔시켜 고구려의 유민들을 통치하는 한편, 고구려의 유력 가호

3만 8,000호를 당의 내륙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부흥운동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였다. 그러나 당의 의도와는 달리 검모잠, 안승의 난과 같은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이 가속화되었다. 당은 옛 고구려 지역에서 의 반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장왕을 요동주도독으로 책봉하였으나, 오히려 요동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과 연계하여 부흥운동을 도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보장왕의 모반사건은 요동 지역에서 당이 통치력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도 고구려 유민들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후 당은 요동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를 안동도독부로 격하시킨 뒤 보장왕의 아들 고덕무를 안동도독으로 삼아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다가 700년대 초에는 다시 안동도독부를 도호부로 격상시키는 하였으나 그 관할 지역은 유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당이 동북아 방면에 대한 정책이 소극적인 방어 위주로 전환한 것으로 요동 지역에 대한 통치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696년에 영주에서는 도독 조문혜의 폭정에 반발하여 거란인 이진충·손만영 등이 난을 일으켰다. 이를 기회로 당시 이 곳에 끌려와 있던 대조영이 영주를 탈출, 고구려의 옛 강역이었던 동모산에 이르러 국가를 건립하였다. 발해의 시조 대조영이 영주를 탈출하여 동모산에 이르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다. 천문령 전투에서 이해고의 군대를 물리치고 건국에 이르는 하였으나 당의 토벌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므로 대조영은 끊임없이 당의 토벌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위협은 초기 도읍지의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목단강 유역의 동모산에서 건국한 대조영은 당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건국 직후 돌궐에 사신을 보내어 교린하고 토둔을 파견받았으며, 신라와도 통교하여 제5품 관직인 대아찬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당시 당은 거란족의 반란 이후 돌궐이 요서 지역을 압박하고 있었으므로 동북아 지역에 깊이 개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측천무후가 사망하고 705년 중종이 즉위함을 계기로 사신을 보내어 대조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회유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713년에는 낭장 최흔을 보내어 대조영을 ‘발해군왕 흘한주도독’으로 책봉하였다. 이후 대조영은 ‘발해’를 정식 국호로 삼았고 발해와 당 사이에 교역이 열리고 발해의 사절이 당에 빈번히 왕래하였다.

옛 고구려 지역에서의 새로운 정치체인 발해의 출현과 당의 이 민족 통치기구인 안동도호부의 후퇴는 당의 동북아 정책의 전환을 불러왔다. 즉, 698년 발해가 건국할 당시 당의 입장에서 발해의 정치적 위치는 반란의 무리였음을 각종 사료에서 살필 수 있는데, 건국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팽창,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통하여 발해는 705년과 713년 ‘발해군왕’으로 정식 책봉을 받고, 그 국제적 위상이 승격되어 국가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당의 정책 노선의 변화는 요동을 중심으로 하는 옛 고구려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발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 돌궐, 신라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 확립을 통하여 대외적인 안전판을 마련한 발해 고왕 대조영은 고구려 고토에 대한 영토 확장에 주의를 돌렸다. 이 시기의 주된 영토 확장의 방향은 주로 옛 고구려 지역에 있던 말갈족에 대한 통치권의 회복이었다. 당시 발해에 복속된 말갈족에는 수대의 말갈 7부 가운데 고구려 멸망 이후 분산되었거나 미약해져 발해의 편호가 되었다는 백돌부, 안거골부, 호실부 등이 포함되

어 있었고, 속말부 출신의 결사비우 집단은 발해의 건국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백산부의 거주지는 발해 건국지가 되었던 만큼 속말부와 백산부의 잔여 세력들도 이미 발해에 귀속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시기 발해 강역의 범위는 대체로 동으로는 월희말갈이 정주하고 있던 흥개호 지역, 동북으로는 임구 계동에서 흥개호에 이르는 지역에서 흑수말갈과 마주하고 있었고, 남으로는 신라와 니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하였으며, 서북으로는 거란과 접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흑수부와 불열부 및 고구려 멸망 이후 두각을 나타낸 철리부와 월희부 등 송화강 중하류 지역과 흑룡강 하류 등지에 있던 말갈족들은 당에 조공사를 보내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해의 세력권 밖에 있었다. 『구당서』 발해 말갈전에는 “영주의 동쪽 2,000리에 있으며, 남으로 신라와 서로 접하였고, 월희말갈, 동북으로 흑수말갈에 이르며, 사방이 2,000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719년 고왕 대조영이 사망한 이후 왕위에 오른 무왕 대무예는 연호를 인안으로 개원하고 국가 체제를 확충해 나갔으며, 부왕을 이어 발해 주변으로의 세력 확장에 더욱 몰두하였다. 당시 발해의 영토 확장에 대한 사정은 727년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외람되어 열국을 주관하고 제번을 거느려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다”라고 한 내용에서 잘 드러나 있다.

8세기 초 무왕의 강역 확장은 북쪽의 흑수말갈과 서남쪽의 요동 지역으로 대별된다고 하겠다. 713년 발해의 건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당은 726년에 이르러 발해의 배후에 위치한 흑수말갈을 당의 기미주인 흑수주로 삼고, 장사라는 지방장관을 파견함으로써 발해의 성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당의 이러한 조치는 발해를 당과 흑수말갈이 앞뒤

에서 공격하는 형국으로, 이를 용인한다면 발해의 세력 아래에 있던 다른 말갈 부족들도 당의 영향권 안으로 이탈해 갈 가능성이 있었다.

건국한 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은 발해로서는 매우 불안한 국제 정세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무왕은 흑수말갈에 대한 토벌을 단행함으로써 고립적인 대외 국면을 타개함과 동시에 이듬해인 727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통교하고 우호관계를 맺었다. 무왕의 이러한 조치들은 직접적으로는 당과 긴장관계를 조성하였으나, 당시 발해의 흑수말갈 토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한편, 흑수말갈에 대한 토벌에서 자신감을 얻은 무왕은 요동 방면으로 강역을 확장하였다. 이 지역은 고구려 멸망 이후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으로, 677년에는 요동주도독으로 피봉되었던 보장왕이 그 유민들과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였던 곳이다. 특히 요동 지역은 군사적으로 고구려 시기부터 천리장성에 의지하여 당의 위협에 맞서 왔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해자인 요하가 가로놓여 있어 발해로서는 군사적인 방어선으로 무엇보다 선점해야 할 중요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건국 이후 고왕·무왕은 이 지역의 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당의 군정기관인 안동도호부를 도독부로 강등케 하는 한편, 699년 복치에 이른 이 기관을 요서 지역으로 축출시켰다. 안동도호부는 이후 755년 ‘안사의 난’으로 폐지될 때까지 80여 년간 약 13회의 치소 이전이 있었으며, 발해가 건국된 해에 요서 지역으로 치소를 옮긴 후부터는 요동 지역에 대한 어떠한 관할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다.

무왕은 흑수말갈의 토벌과정에서 빚어진 당의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이에 무왕은 732년에 장문휴가 이끄는 수군을 파견하여

당의 본토인 등주와 산해관 근처인 마도산을 공격함으로써 당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였다. 발해가 이와 같이 공세를 취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요동 지역이 이미 발해의 세력권 안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병참기지화하였기 때문이다. 발해의 수군은 압록강에서 요동을 지나 당의 등주로 출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에 발해가 안동도호부를 요서 지역으로 축출함으로써 요동 지역을 세력권으로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발해의 5개 교통로 중에서 요동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은 영주도와 조공도라고 한다. 영주도는 발해의 상경 용천부에서 장령부를 통하여 당의 영주로 통하는 길이고, 조공도는 압록강을 따라 내려와서 현재의 단동인 박작구에서 해로로 요동반도·묘도열도를 통과하여 당의 등주로 가는 노선이다. 당시에는 연안항로가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되므로 압록강 하구에서 현재의 대련, 여순에 이르는 요동 지역이 발해의 강역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등주를 공격한다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신당서』 지리지에 기록된 가탐의 '변주입사이도리기'에 보이는 바닷길의 많은 경유지는 발해와 당과의 교통로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제로서 요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왕은 또한 동으로 지금의 노야령을 넘어서 솔빈수(지금의 채분하) 유역과 러시아 연해주 남부 지역인 포시에트만의 크라스키노, 즉 염주의 치소를 정복하였다. 이 곳은 곧 발해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일본도의 시발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무왕 대무예가 일본과 통교한 727년에는 적어도 일본도의 시원인 이 곳이 발해의 세력 판도 안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도의 개척은 발해로서는 당과 신라의 위협에 대

처하기 위해 일본과의 교섭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일본도의 개척은 대무예 즉위 초년 발해의 강역이 동으로 이미 연해주 남부 지역과 솔빈수까지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이 밖에 신라 또한 무왕의 공격 대상이었다. 『삼국사기』 권8에 721년 무예가 재위한 지 3년에 “신라국이 하슬라도의 정부 2,000을 징발하여 북경에 장성을 쌓았다”라고 기록한 것은 발해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라에서 접경 지역에 방어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당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신라의 위협이 사라지자 제3대 문왕은 그 배후에 있는 미복속 말갈부족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였다. 철리부, 불열부, 월희부, 흑수부 등이 그 대상으로, 이 부족들은 8세기 초반 당에 빈번하게 조공하면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고, 당과 발해 간의 전쟁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집단이다. 그러나 이 부족들에 대한 발해의 공격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록은 없다. 다만 이 부족들의 당에 대한 조공이 불열부와 월희부는 741년, 철리부는 740년을 경계로 단절되었다. 그 뒤 802년에 월희부가, 841년에 불열부와 철리부가 각각 차례씩 당에 조공한 사실이 전해질 뿐이다. 이런 사실은 이들이 8세기 중반에는 발해의 세력 권으로 귀속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로써 문왕 초기인 8세기 중반에 이르러 발해의 영토는 송화강 하류까지 미치게 되어 건국 이래로 추구해 오던 대외 팽창정책이 일단락짓게 되었으며, 발해 전성기의 강역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4대 폐왕부터 9대 간왕까지 내분기를 거쳤고, 발해가 한번 더 대외적 팽창을 한 것은 9세기 전반 선왕대였다.

당과 신라와의 전쟁이 끝나고 대외적인 안정을 회복한 문왕은 대내적으로 체제 정비에 주력하여 그의 재위 기간 중에 제도와 문물이

크게 정비되었다. 강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통치 수요의 적응에 따라 늦어도 무왕 시기로부터 이미 건국 초기의 무주현관역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여 원고구려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옛 행정제도를 연용하여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렸다. 그는 또한 각지에 행정구획을 획정하였으며 일련의 경, 부, 주, 현, 예를 들면 구국, 상경, 동경, 중경, 약홀주, 목저주, 현토주, 남해부, 부여부, 압록부 등을 설치하였다. 문왕은 재위 57년 동안 구국에서 중경,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 동경에서 상경에 이르는 네 번의 천도를 통해서 국가의 중심축인 5경 제도를 마련하고, 5경 아래에는 지방제도로서 부주현제를 실시하였다. 『신당서』에 전하는 바와 같이 발해의 중앙과 지방제도는 국초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였겠지만, 문왕대에 이르러 대부분이 마련되었다.

발해의 행정구역은 5경·15부·62주로 편성되었다. 5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지역중심적인 위성 도시를 통하여 일원적이고, 통제적인 중앙집권적 통치행위를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경·부·주에는 도독·자사가 파견되었는데, 이는 중국에 유학한 유학생과 숙위를 통해 중국의 견문을 넓힌 관료층, 그리고 지방중심지역의 수령층 등이 참여하는 일원적이면서도 다원적인 통치행위를 계획하고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행정구역의 설치와 정비, 그리고 교통로의 설치와 정비는 곧 중앙과 지방, 더 나아가 외국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발전을 통하여 발해는 228년간 그들만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 특징을 가지고, 중원의 우수한 선진문물을 섭취하여 발해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였다. 이와 같이 천도를 통한 5경의 설치와 부주현제의 실시 등 관료조직이 체계화되었음은 곧 중앙집권력과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8세기 후반 관료조직이 확충되고 왕권이 강화되자 문왕은 황제를 뜻하는 황상이라고도 하였으며, 771년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는 천손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당시 발해의 중앙관제, 지방제도, 수도의 도시구획 등은 일단 외형상 당의 그것을 방불케 하는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발해의 통치행위가 일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왕, 무왕, 문왕 3대의 노력으로 해동성국의 기초를 갖추었으며, 발해의 강역은 동쪽과 동남쪽에서 동해에 이르렀으며, 남으로는 니하에 이르고 패강에 접근하였고, 서남으로는 요하, 서쪽으로는 거란에 이르렀으며, 서북과 북쪽으로는 나하 일대에 있었으며, 동북으로는 삼강평원 일대에 이르렀다.

문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폐왕으로부터 간왕에 이르는 26년 동안 발해는 내부적으로 혼란이 가속화되어, 이 시기에는 주로 정치적인 입지를 둘러싸고 각 계층 간, 왕실 계보상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발해 내부의 혼란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결과는 발해에 대한 당의 입장 변화이고, 이것은 '발해국왕'을 '군왕'으로 책봉하는 외교적 영향력의 하락을 불러왔다. 또한 대당유학과 빈공과의 취재 등에서도 신라에 열세에 놓이는 등 동북아에서의 건국 초기의 강력했던 정치적 위상은 점차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해 내부의 혼란을 극복하고 즉위한 선왕은 쇠약해진 왕실을 회복하기 위해 연호를 건흥이라 개원함과 동시에 혼란기에 발해의 통제력을 벗어나 독립을 지향하던 흑수말갈을 비롯한 북방 이민족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건국 초기의 강역권을 재확보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문왕 시기를 모범으로 내치에 힘써 전성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그동안 내분과정에서 이탈해간 제 세력에 대한 정복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즉, 10대 선왕 대인수가 “바다 북쪽의 여러 부락을 토벌하여 큰 영토를 여는 데 공이 있었다”, “남쪽으로 신라를 평정하고 북쪽으로 여러 부락을 공략하여 군과 읍을 설치하였다”라는 기록들이 그것이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지금의 흥개호 북쪽에 정주하고 있던 흑수말갈을 비롯하여 우루, 월희 등을 토벌하였다. 이들은 이미 무왕·문왕 시기에 발해의 통제권 안으로 귀속되었으나, 내분기를 거치는 동안 독립성을 회복하여 당에 조공했던 무리들이다. 선왕 대인수대에 이루어진 토벌로 이들 부락은 다시 발해 정권에 복속되었다. 당연히 삼강평원을 포함하는 흥개호 이북과 이동에서 바다에 이르는 지역은 발해의 관할권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발해는 재차 동북아의 패자로 인정되었고, 중국으로부터는 ‘해동성국’이라는 미칭을 얻기에 이르렀다.

대인수 이후 이진·건황 시기에는 정치가 안정되고 국력이 강성해졌으며 강역에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현석·위해 시기에 이르러 내부 모순이 심화되고 특히 흑수말갈 제부의 반항으로 발해는 쇠락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삼국사기』 권11 헌강왕 12년(886) 봄 기사에 “북진에서 아뢰기를 적국인들 … 보로국과 흑수국인이 함께 신라와 통교하고 싶다는 편목을 걸어 놓고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시기에 흑수(즉, 흑수말갈)가 이미 발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의 기회를 얻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들이 활동하던 삼강평원 지역은 이미 발해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요사』 지리지에는 용하군·회농군·길리군·삼로군 등의 주를 군으로 개칭하는 조치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발해의 국력이 쇠망의 길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국 타파의 일대 혁신적인 조치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쇄신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쇄망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었으며, 926년 발해 정권은 신흥의 거란 세력에 의해 멸망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에 이르렀다.

발해의 강역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해가 건국한 이후 멸망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발해 강역권의 변화는 크게 3기로 대별된다. 제1기는 영주에서 탈출하여 동모산에서 건국한 대조영 시기이다. 제2기는 고왕의 뒤를 이어 팽창정책을 추진했던 무왕과 문왕 초기로, 755년 안사의 난 발발 이전이 된다. 제3기는 내분기를 거치는 동안 축소되었던 강역권의 회복을 도모한 선왕 시기이다.

제1기는 영주에서 탈출하여 고구려의 고토인 동모산에서 건국한 발해 건국시조 대조영의 통치 시기이다. 이 시기 발해의 발전 방향은 발해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는 당의 토벌에 대한 방비와 옛 고구려 지역으로의 확장이다. 옛 고구려 지역에는 수나라 당시의 말갈 7부로의 확장과 요동 지역으로의 팽창이 그 주된 목표였다. 이들 집단으로의 확장과정은 사료에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발해의 건국과정에서 말갈 7부 가운데 백돌부, 안거골부, 호실부 등이 발해의 편호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속말부의 걸사비우 집단이 대조영의 건국과정에 참여하였다는 기록들을 통해서 이미, 발해가 건국할 당시 그 주변에 분포되어 있던 말갈족들은 건국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건국 이후 대조영의 토벌 대상이 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대조영은 요동 지역으로의 확장도 도모하였다. 특히 영주에서 동모산에 이르는 노선에 발해의 주요 간선의 하나인 영주도를 설치함과 동시에 요

동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였다. 이 지역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의 이민족 통치를 위해 설치된 군정기관 안동도호부가 통치하던 곳이다. 그러나 설치 초기부터 안동도호부는 통치의 한계로 인해 요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발해가 건국 직후인 699년에는 도독부로 강등되었고, 발해의 고왕이 처음으로 책봉을 받는 705년에 복치되었으나 그 통치 범위는 요서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이로써 고왕 시기에 비록 요동 지역에 대한 확고한 통치력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발해의 건국과 세력 확장의 결과로 당의 동북아에서의 통치 행위가 후퇴하였음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제2기는 고왕의 뒤를 이어 계승한 무왕과 문왕 시기이다. 이 시기의 주된 발전 방향은 흑수말갈과 요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무왕은 요동 지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 고구려의 옛 영토에 대한 통치력을 극대화시켰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무왕은 당시 흑수말갈에 대한 당의 기미주 설치를 기회로 흑수말갈을 도모함과 동시에 당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무왕 시기에는 동북 지역으로 일본도의 출발지가 되는 포시에트만으로의 확장을 도모하여 일본도를 개척하여 발해의 강역을 서남과 동북으로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옛 고구려 지역에 대한 완벽한 통치를 바탕으로 한 흑수말갈의 토벌, 그리고 세계제국이었던 당에 대한 무력 대응은 곧 건국 이후 발해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문왕 시기에 이르러서는 발해의 배후에 있던 미복속 말갈 부족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였다. 철리부, 불열부, 월희부, 흑수부 등이 그 대상으로, 이 부족들은 8세기 초반 당에 빈번하게 조공하면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고, 당과 발해 간의 전쟁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집단들이다. 그러나 이 부족들의 조공 기사가 불열부와 월희부는 741년, 철리부는 740년에 단절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8세기 중반에는 발해의 세력 권으로 귀속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로써 문왕 초기인 8세기 중반에 이르러 발해의 영토는 송화강 하류까지 미치게 되어 건국 이래로 추구해 오던 대외 팽창정책이 일단락짓게 되어, 발해 전성기의 강역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제3기는 10대 선왕인 대인수 시기이다. 이 시기에 흥개호 이복의 부족, 즉 흑수말갈을 포함한 일부 말갈족들에 대한 토벌을 단행하였다. 이들은 이미 발해에 복속되었던 무리들로서 4대 폐왕에서 9대 간왕에 이르는 내분기에 정치적 혼란을 틈타 발해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무리들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것은 이미 발해 건국 후 내분기를 거치는 동안 상실한 건국 초기 3대 국왕의 업적을 재확보하여 그동안 약화되었던 통치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발해 전 시기의 강역 확장과정은 『구당서』 발해 말갈전에서 “영주의 동쪽 2,000리에 있으며 남으로 신라와 서로 접하고 월희말갈, 동북으로 흑수말갈에 이르며 사방이 2,000리”라고 기록하여 발해 건국 초기의 강역권을 나타내 보였다.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지방이 5,000리이고, 영주의 동쪽 2,000리에 있으며, 남으로 신라와 니하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바다에 이르며, 서로는 거란과 접해 있다”라고 하여 고왕 이후 끊임없이 통치 권역을 확장한 전성기, 다시 말하면 무왕·문왕 시기 그리고 재확보를 하는 10대 선왕 시기의 강역권을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발해는 고왕·무왕·문왕 시기를 거치는 동안 동으로는 포시에트만의 크라스키노 지역을 넘어 시호테 산맥과 우수리 강가

지 이르렀고, 서북으로는 거란과 이웃하였으며, 서남으로는 옛 고구려 지역인 요동을 확보하고 요하를 경계로 당과 이웃하였고, 남쪽으로는 원산만의 니하를 사이에 두고 신라와 이웃하였으며, 북으로는 말갈 제족을 넘어 흑수말갈을 통치 권역으로 하는 광대한 강역권을 확보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림 1> 발해 강역도



발해의 지방통치체제

김동우 | 국립춘천박물관 |

渤海

❁ 발해의 지방행정조직

고왕 대조영(高王 大祚榮, 재위 698~719)이 고구려 유민과 여러 말갈 세력을 이끌고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정도가 지난 698년 고구려의 옛 영역인 동모산(東牟山 : 중국 지린성 둔화(敦化) 성산자산성)에 터전을 잡고 발해를 건국하였다. 이후 국력을 크게 성장시켜 당(唐)으로부터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릴 만큼 번영을 누리었다. 그 영토는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동베이 3성[東北三省 : 중국의 최동북쪽,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뻗어 있었다.

『신당서(新唐書)』에는 발해의 영토를 '사방 5,000여 리'라고 전하고 있다. 『구당서(新唐書)』에는 고구려의 영토를 '동서 3,100리, 남북

5경	15부	62주(州)	지역
상경	용천부(龍泉府)	용(龍)·호(湖)·발(渤) 3주	숙신의 옛 땅(肅慎故地)
중경	현덕부(顯德府)	노(盧)·현(顯)·철(鐵)·탕(湯)·영(榮)·흥(興) 6주	
동경	용원부(龍原府)	경(慶)·염(鹽)·목(穆)·하(賀) 4주	예맥의 옛 땅(濊貊故地)
남경	남해부(南海府)	옥(沃)·정(晴)·초(楸) 3주	옥저의 옛 땅(沃沮故地)
서경	압록부(鴨綠府)	신(神)·환(桓)·풍(豐)·정(正) 4주	고구려의 옛 땅(高麗故地)
	장령부(長嶺府)	하(暇)·하(河) 2주	
	부여부(扶餘府)	부(扶)·선(仙) 2주	부여의 옛 땅(扶餘故地)
	막힐부(曷詰府)	막(曷)·고(高) 2주	
	정리부(定理府)	정(定)·반(潘) 2주	읍루의 옛 땅(挾婁故地)
	안변부(安邊府)	안(安)·경(瓊) 2주	
	솔빈부(率濱府)	화(華)·익(益)·건(建) 3주	솔빈의 옛 땅(率濱故地)
	동평부(東平府)	이(伊)·몽(蒙)·타(沓)·흑(黑)·비(比) 5주	불열의 옛 땅(拂涅故地)
	철리부(鐵利府)	광(廣)·분(汾)·포(蒲)·해(海)·의(義)·귀(歸) 6주	철리의 옛 땅(鐵利故地)
	회원부(懷遠府)	달(達)·월(越)·회(懷)·기(紀)·부(富)·미(美)·복(福)·사(邪)·지(芝) 9주	월희의 옛 땅(越喜故地)
	안원부(安遠府)	영(寧)·미(鄙)·모(慕)·상(常) 4주	

〈표 1〉 발해의 지방행정조직

* 독주주(獨奏州) : 상급 행정기관인 부에 속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에 속하는 주로, 영(瑛)·동(銅)·속(漑) 3주가 있다.

* 『신당서(新唐書)』는 발해에 62주가 있다고 하였지만 60주의 이름만 소개하였다.

2,000리'로, 삼국을 통일한 후기 신라의 영토를 '동서 1,000리, 남북 2,000리'로 기록하고 있다. 단순하게 이 기록들을 비교하면 발해는 고구려 영토보다 약 2배 정도, 후기 신라 영토보다 4~5배 정도 넓은 강역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국가라 할 수 있다.

발해 영토 내에는 고구려계 주민들을 비롯하여 여러 말갈계 주

민들이 살았다. 때문에 발해는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고 여러 계통의 주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찍부터 지방통치체제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신당서(新唐書)』에는 발해의 지방행정 조직을 5경(京)·15부(府)·62주(州)로 소개하고 있다. 주 아래에는 100여 개 이상의 현(縣)을 설치하여 부-주-현 3단계로 지방을 통치하였다.

5경은 상경(上京), 중경(中京), 동경(東京), 남경(南京), 서경(西京)으로, 발해는 주요 지역에 5경을 두어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거점으로 삼아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5경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경은 헤이룽장성 ning안시(寧安市)의 동경성(東京城) 발해진(渤海鎭), 중경은 지린성 헤룽시(和龍市) 서고성자(西古城子), 동경은 지린성 훈춘시(琿春市)의 팔련성(八連城), 남경은 함경남도 북청, 서경은 지린성 린장시(臨江市)로 보고 있다.

당시 발해에는 당나라로 가는 소위 조공도(朝貢道), 영주도(營州道)와 일본도(日本道), 신라도(新羅道), 거란도(契丹道) 등 5개의 주요한 대외 교통로가 있었다. 조공도는 상경에서 서경까지 간 후 배로 압록강을 따라 발해만(渤海灣)을 거쳐 산둥(山東)반도에 이르는 길이며, 영주도는 육로로 당나라 동북지방 거점인 영주로 가는 길이다. 일본도는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에서 동경을 지나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크라스키노에 도달하여 동해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길이며, 신라도는 동경에서 남경을 거쳐 신라로 가는 길이다. 거란도는 부여부를 지나서 거란에 이르는 길이다. 이 밖에 ‘담비의 길’이라고 하여 발해 수도에서 시베리아로 통하는 모피 교역로가 있었다. 이와 같이 발해는 정비된 도로망을 통해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 활발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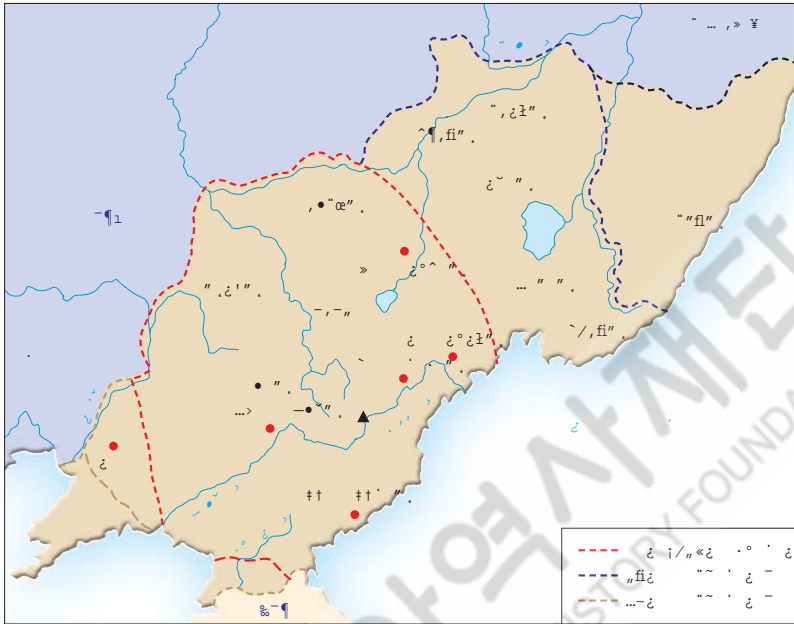
교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로망의 주요 거점에 5경을 설치한 것이다.

5경이 설치된 시기는 대체로 3대 문왕 대흙무(文王 大欬戊, 재위 737~793)대라고 짐작된다. 발해는 2대 무왕 대무예(武王 大武藝, 재위 719~737)대에 구국(舊國)에서 중경, 문왕대에 중경·상경·동경으로, 5대 성왕 대화여(成王 大華瓊, 재위 793~794)대에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네 번 천도했다. 문왕대에 중경, 상경, 동경으로의 천도가 행해졌으므로 5경의 설치는 늦어도 이 때에 완료되었을 것이다.

『신당서』에 기록된 것은 발해의 영토 확장이 마무리되었던 10대 선왕 대인수(宣王 大仁秀, 재위 818~830)대 이후 정비된 지방행정조직으로, 발해 초기부터 완비된 행정조직은 아니었을 것이다. 즉, 발해는 국초(國初)부터 이루어 온 영토 확장 과정에 따라 그 행정조직을 정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발해 지방통치체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발해의 영토 확장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발해의 영토 확장

발해는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사료에 따르면 1대 고왕 대조영, 2대 무왕 대무예, 3대 문왕 대흙무대에 영토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4대 대원의(大元義, 재위 793)부터 9대 간왕 대명충(簡王 大明忠, 재위 817?~818)까지 소위 발해 내분기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축소되었거나 일부 영토를 잃어버렸다. 이후 10대 선왕 대인수(宣王 大仁秀, 재위 818~830)대에 영토를 확장하여 사방 5,000여 리의 강역을 차지하였다.



〈그림 2〉 발해 영토 확장 과정

고왕 대조영이 동모산에 터전을 잡고 나라를 세우자 만주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이 모여들었다. 고왕 대조영은 건국 후 안으로 정치 기반을 다지고 밖으로 신라와 당, 돌궐(突厥) 등과 통교하면서 대내외적인 안정을 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해 나갔다. 그리고 당시 돌궐이 일어나 당나라 세력이 발해 지역에 미치지 못하여 별다른 방해 세력 없이 주변을 손쉽게 정복 내지는 복속하였을 것이다.

대무예도 무왕이란 시호와 걸맞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세력을 정복하여 크게 영토를 확장하였다. 『신당서』에는 “무왕이 즉위하여 크게 영토를 넓히자 동북의 여러 오랑캐가 두려워 신속(臣屬)하

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727년(무왕 9) 일본에 보낸 사신을 통해 전한 국서(國書)에 “무에는 욱되게 여러 나라를 주관하고 외람되게 여러 번국(蕃國)을 아우르게 되어, 고구려의 옛 터전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소유하였다”라고 하였다. 발해 초기의 사정을 소개한 일본 역사서 『유취국사(類聚國史)』에는 이 시기 발해 영역을 ‘사방 2,000리’라 하였다.

고왕과 무왕대에 확장된 발해의 초기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근거지인 동모산에서 가까운 옛 고구려 영역부터 확보했을 것이다. 바로 옛 부여 지역인 송화강(松花江) 유역과 고구려 영역이었던 압록강과 훈장강(渾江) 일대로, 부여의 옛 땅인 부여부, 고구려의 옛 땅인 압록부와 그와 인접한 장령부 지역이다.

또한 한반도 북부 지역인 대동강과 원산만을 있는 선 이북 지역에도 진출하였다. 721년 7월에 신라가 하슬라도(何瑟羅道 : 지금의 강릉)의 장정을 동원하여 북쪽 경계에 장성(長城)을 쌓았고, 735년 당나라가 신라에 보낸 칙서(勅書)를 보면, 신라가 발해에 대비하여 패강(溟江 : 지금의 대동강)에 방어기지를 설치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를 보면 발해가 한반도 서북과 동북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732년 발해가 등주(登州 :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소재)를 공격하자 당나라에서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도록 요청한 것도 발해와 신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었거나, 서로 가까운 거리를 두고 마주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발해가 진출한 지역은 바로 예맥의 옛 땅인 용원부와 옥저의 옛 땅인 남해부 지역이다.

동북의 오랑캐는 어떤 지역의 오랑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726년 무왕이 흑수말갈을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보아

흑수말갈과 접경하고 있었을 것이다. 흑수말갈은 대체로 헤이룽강(黑龍江) 하류 지역에 흠어져 살았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상경으로 도읍을 정하기 이전이며, 구국(舊國: 지린성 둔화시(敦化市))이나 중경[지린성 연지현(延吉縣)]에 도읍하던 시기였으므로, 이 곳을 기준으로 동북쪽이라 하였을 것이니 아마도 숙신의 옛 땅이었던 상경 일대가 발해의 영역에 속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왕을 뒤이은 문왕도 말갈에 대한 정복을 계속하여 철리(鐵利), 불열(拂涅), 월희(越喜), 우루(虞廬)말갈이 발해에 편입되었다. 철리의 옛 땅에는 철리부(송화강(松花江)과 무단강(牡丹江)이 합류하는 헤이룽장성 이란현(依蘭縣) 일대), 불열의 옛 땅에는 동평부[중국 지린성 싱카이호(興凱湖) 서쪽 지역], 월희의 옛 땅에는 회원부[중국 헤이룽장성 북단 동장현(同江縣) 일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철리말갈은 714년부터 당나라에 조공하였는데, 741년 이후로는 조공 기사가 보이지 않다가 841년에 한 차례 나온 후 발해 멸망 직후 다시 조공을 시작하였으므로 740년대 전반에 발해 세력권에 귀속되었을 것이다. 714년부터 당나라에 조공한 불열말갈은 742년 이후에는 841년을 제외하고는 조공하지 못했고, 월희말갈도 742년 이후에는 조공한 기사가 802년에 보인다. 따라서 740년대부터 철리, 불열, 월희말갈이 발해의 행정구역인 철리부, 동평부, 회원부에 편입되었다 할 것이다. 우루말갈이 살았던 지역은 읍루의 옛 땅으로 러시아 연해주 남부 지역으로서 안변부(安邊府)와 정리부(定理府)가 설치되었다. 798년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여부구(茹富仇)가 우후루번장·도독(虞侯婁蕃長·都督)이었다.

문왕 이후 소위 발해 내분기에 들어서는 일부 영토를 잃기도 한

듯하다. 이것은 6대 강왕 대승린(康王 大崇璘, 재위 794~809)이 일본에 보낸 국서(國書)에 “조정의 기강이 옛날과 같이 되었고, 영토도 처음과 같이 되었다”고 한 데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문왕대에 복속된 월희말갈과 우루말갈이 802년에 다시 당나라에 독자적으로 조공하였던 사실이 있어, 일부 복속된 지역이 발해 세력권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고왕의 동생 대야발(大野渤)의 후손인 선왕 대인수가 즉위하면서 다시 강역을 크게 넓혔다. 새로이 발해 영토에 편입된 지역은 ‘해북 제부(海北諸部)’와 신라 북부 지역이었다. ‘해북’은 싱카이호 북쪽을 말하는데, 안원부(安遠府)와 흑수말갈 지역을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선왕은 라오양(遼陽)을 중심으로 한 요동(遼東) 지역으로 다시 진출하였다.

『요사(遼史)』에는 당나라 원화(元和, 806~819) 연간에 선왕이 남쪽으로 신라를 정벌하고 북쪽으로 여러 부를 침략하여 군읍(郡邑)을 두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발해가 진출한 신라의 북부 지역은 대동강 이북 지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지역은 무왕대에 이미 발해 영역으로 편입시킨 지역인데, 다시 선왕이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826년 신라가 한산(漢山 : 지금의 서울) 북쪽 여러 주군(州郡) 사람 1만 명을 동원하여 패강에 장성 300리를 쌓은 목적이 발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마도 선왕대에 발해가 이 지역으로 다시 진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신당서』 지리지를 보면, 요동(遼東) 지역은 적어도 신성(新城)이 있었던 푸순(撫順) 지역과 압록강 박작구(泊灼口)를 잇는 선까지는 문왕대까지 발해가 진출했다고 여겨진다. 박작구는 신의주와 압록강 사이에 두고 마주한 라오닝성 단둥시(丹東市)로 압록강 하구에 있는 포

구로 서해로 나가는 거점이었다. 논란이 많지만 선왕대 이후에는 요동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듯하다. 요동 지역은 발해가 지배하였다는 사료와 금석문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란이 발해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기에 앞서 요동 지역으로 진출했는데, 924년 요동을 공격하였다가 철군한 기록이 있는 것은 발해가 요동 지역으로 진출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하겠다.

이리하여 발해는 '사방 5,000리'의 최대 판도를 이루었는데, 남쪽으로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으로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동쪽으로 동해까지 다다라 연해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다. 북쪽으로 헤이룽강과 송화강이 만나는 지점까지 이르러 흑수말갈과 대립하였고, 서쪽은嫩장강(嫩江)과 송화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랴오허강(遼河)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거란(契丹)과 당나라와 접경을 이루었다. 이후 10세기 초에 거란에게 요동 지역을 빼앗기고, 내부적으로 복속된 일부 말갈이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다가 결국 926년 거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발해는 멸망하였다.

지방통치체제의 전개과정

발해는 건국 초기부터 확장시킨 넓은 영토를 관리하고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방통치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건국 초기에 당나라의 군사적 위협에 당면해 있었기 때문에 지방통치체제의 확립은 발해의 생존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발해의 지방통치체제는 일찍부터 마련되었을 것이고 앞절에

서 설명한 영토 확장 과정에 따라 통치체제를 계속 확대, 정비해 나갔을 것이다.

『신당서(新唐書)』에는 발해가 5경·15부·62주를 설치하여 지방을 통치하였다고 하였다. 주 아래에는 100여 개가 넘는 현(縣)을 설치하여 부-주-현 단위로 지방통치체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통치체제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표 2>에 발해의 지방통치구조의 근간이 되는 부-주-현의 가장 이른 기사들을 수록하였다.

<표 2>에 있는 연도를 보면 발해의 부-주-현 체계가 늦어도 문왕대인 739년 이후에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약홀주, 목저주, 현토주는 『신당서』에 기록된 60주에 보이지 않는 주이며, 주의 이름도 2글자로 1글자인 주와는 다른 이름이다. 이것은 발해가 건국 이후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지방통치체제를 갖추어 선왕대에 완비될 때까지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 준다.

문왕 2년에 기록된 약홀주도독은 이미 무왕대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

구분	기사	연도	출전
부	남해부 토호포 (南海府吐號浦)	문왕 40년(777)	『속일본기(續日本紀)』 34 권 광인천황(光仁天皇) 보구(寶龜) 8년
주	약홀주도독 서요덕 (若忽州都督 胥要德)	문왕 2년(739)	『속일본기』 13 권 성무천황(聖武天皇) 천평(天平) 11년
현	영녕현승 왕문구 (永寧縣丞 王文矩)	대이진 19년 (849)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19 권 인명천황(仁明天皇) 가상(嘉祥) 2년

<표 2> | 발해 부·주·현이 처음 나온 기사

이 『유취국사』 193권의 발해 연혁조이다.

발해국은 고구려 옛 땅에 있는 나라이다. 천명개별천황(天命開別天皇) 7년(668) 고구려 왕 고씨가 당에 멸망을 당하였다. 나중에 천지진종풍조부천황(天之眞宗豐祖父天皇) 2년(698)에 대조영이 비로소 발해국을 세웠고, 화동(和同) 6년(713)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그 나라는 사방 2,000리이고 주현에 관역이 없다(無州縣館驛). 곳곳에 마을이 있는데 다 말갈 부락이다. 백성들은 말갈이 많고 토인은 적다. 다 토인으로 촌장을 삼았는데, 대촌은 도독이라 하고, 그 다음은 자사라고 한다. 그 아래 백성들이 이를 다 수령이라 부른다(大村曰都督 次曰刺史 其下百姓皆曰首領). 땅이 매우 차서 수전에 알맞지 않다. 세간에는 자못 글을 알았다.

이 기록은 발해 초기에 방문하였던 일본 사신의 견문기와 신라나 당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참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720년 모루키미 노쿠라오(諸君鞍男) 등 6인을 발해의 말갈 거주 지역에 들어가 풍속을 살피게 하였고, 그 후 728년 전년(前年)에 온 발해 사절에 대한 답방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사방 2,000리'는 발해 초기의 강역을 표현한 것이며, '주현에 관역이 없다'는 지방통치체제의 성립 초기 단계의 사정을 전하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일본 사신이 발해에서 활동한 시기를 고려하면 이 기사는 8세기 초 무왕대의 발해 지방 사정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발해 지방통치체제의 초기 형태는 무왕대에 이미 마련되었을 것이며, 문치에 힘을 쓴 문왕대에 정비되었을 것이다.

'주현에 관역이 없다'는 구절을 '주현과 관역이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전자는 주현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하여 주현에 꼭 있어야 할 시설인 관청과 역이 없다는 뜻이고, 후자는 아

직은 주현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취국사』가 전하는 발해 초기 8세기 전반에는 중경과 상경이 발해의 수도였으므로 이 미 5경제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고, 약홀주와 같은 주가 보이므로 ‘주현과 관역이 없다’라고 해석하여 주현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현에 관역이 없다’라고 하여 초기 형태의 부-주체제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체제에 맞는 지방 관청 시설이 없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대촌에는 도독, 차촌에는 자사를 두었다고 하였으니, 지방행정체계가 8세기 중반까지는 부(도독)-주(자사) 2단계 체제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래 백성들이 이를 다 수령이라 부른다’라는 해석과는 달리 ‘그 아래 촌의 장은 백성들이 수령이라 부른다’라고 이해하여 지방행정체계가 대촌(도독)-차촌(자사)-하촌(수령)의 3단계였다는 주장도 있다.

〈표 3〉은 관직이 알려져 있는 발해인들 중 지방통치체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려낸 것이다. 문왕대에 일본에 파견된 사신들의 관직에서 지방 관직명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738년 일본에 간 서요덕(胥要德)은 약홀주도독(若忽州都督)이라고 기록된 것이 처음이며, 이후 758년 파견된 양승경(楊承慶)은 행목저주자사(行木底州刺史), 759년 파견된 고남신(高南申)은 현토주자사(玄菟州刺史)였다. 이들은 고구려계로서 지방관으로 임명된 지역의 세력가였을 것이다. 양승경은 중앙관직 병서소정을 겸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때의 지방관은 전임관(傳任官)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파견한 지방관리임에는 틀림없다.

목저주는 고구려 시기 목저성이 있었던 곳이며, 현토주는 본래 한(漢)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설치한 4군 중 현토군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구려 시기에는 현토성으로도 불렸다. 이처럼 목저주와 현토

시기(년)	성명	관직	출신
739	서요덕(胥要德)	충무장군 약홀주도독 (忠武將軍 若忽州都督)	고구려
758	양승경(楊承慶)	보국대장군겸장군 행목저주자사겸병서소정 (輔國大將軍兼將軍 行木底州刺史兼兵署少正)	고구려
759	고남신(高南申)	보국대장군겸장군 현토주자사겸압아관 (輔國大將軍兼將軍 玄菟州刺史兼押衙官)	고구려
779	고반필(高泮弼)	압령사(押領使)	고구려
792	양길복(楊吉福)	압말갈사(押靺鞨使)	고구려
795	아밀고(阿密古)	도독(都督)	말갈
798	여부구(茹富仇)	우루번장 · 도독(虞婁蕃長 · 都督)	우루말갈
848	왕문구(王文矩)	영녕현승(永寧縣丞)	고구려
926	위균(衛鈞)	철주자사(鐵州刺史)	고구려

〈표 3〉 관직명에 보이는 지방통치체제

주는 고구려와 관계가 깊은 곳으로 고구려 지명이다. 약홀주는 『신당서』 지리지에 기록된 당에 항복한 고구려 9부 중 가총부(哥忽府)와 음이 비슷하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고구려 성 이름은 끝에 ‘홀(忽)’자가 많이 있어 ‘홀(忽)’자가 있는 약홀주도 고구려의 옛 성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표 2〉와 〈표 3〉에 나오는 부주(府州)의 명칭을 살펴보면 문왕대에 설치된 남해부는 〈표 1〉의 선왕대 이후 행정조직에도 보이지만 약홀주, 목저주, 현토주 등은 없다. 즉, 문왕대 이후에 2자의 주 명칭이 1자로 고쳐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방통치체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왔음을 나타낸다. 이는 확장된 영토에 따른 지방통치기구

의 확대뿐 아니라 점차 그 내실을 기해 제도적인 면에서 지방통치체제를 더욱 정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토주 등 고구려 시기에 사용하였던 지방행정 명칭을 발해가 계승하였다는 것은 고구려 지방통치체제를 발해가 계승하였음을 알려 준다. 또한 고구려 후기에는 성(城)·촌(村)을 단위로 하여 지방을 통치하였는데, 대성(大城)에는 도독과 같은 옥살(褥薩)을, 그 아래 등급의 성(城)에는 자사와 같은 처려근지(處間近支)를 중앙정부가 장관으로 파견하였다. 『유취국사』 발해 연혁조에 발해의 대촌(大村)에는 도독이, 차촌(次村)에는 자사를 두었다는 기사와 비교하면 대성은 대촌, 차촌은 성으로 비길 수 있다.

아밀고는 강왕대에 도독으로서 795년 당에 사신으로 갔다. 여부구는 우루번장으로 안변부나 정리부의 도독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아밀고도 이름으로 보아 말갈계 출신이므로 여부구의 경우처럼 말갈(대)수령으로서 도독으로 임명된 자일 것이다.

‘압령사’ 고반필은 779년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함께 간 철리인을 감독하였던 사신단의 우두머리였다. ‘압말갈사’ 양길복은 792년 당에 조공을 하였는데, 흑수, 월희, 우루, 철리 등과 함께 갔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압령사’와 ‘압말갈사’는 사신으로 파견될 때에 특수한 임무를 맡은 임시관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관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월희, 우루, 철리 등은 발해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고, 흑수는 발해의 세력권 안에 복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대로 외교활동을 할 수 없었고, 압령사 내지는 압말갈사라는 관직을 가진 이의 감독을 받아야 복속된 지역의 말갈이 외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부구의 경우처럼 중앙정부가 현지 수령을 지방관인 도독으로

임명하고 수시로 감독하는 체제였을 것이다.

영령현은 상경 용천부 내 용주의 수현(首縣)이다. 그런데 현승 왕문구가 821년과 827년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관직이 정당성 좌윤(政堂省左允)이었다. 중앙의 주요 관직인 정당성 좌윤을 역임했던 왕문구가 현단위의 지방관으로 파견된 것이다. 영령현이 수도와 가까운 지역으로 고위 관료였던 왕문구가 파견된 것은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적어도 9세기 초반까지는 명실공히 부-주-현제가 완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주는 고구려 시대부터 철생산지로 유명한 위성현(位城縣)을 거느린 주이다.

지금까지 발해 지방통치제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8세기 전반 고구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불안전하게 시작된 발해의 지방통치제도는 고구려의 성·촌 지배체제에 영향을 받은 부-주 단계였다(『유취국사』 발해 연혁조 단계). 이후 무왕과 문왕대에 철리, 불열, 월희, 우루를 발해 영역에 편입하고 흑수를 세력권에 복속시켰을 때는 고구려식을 버리고 발해식으로 각 부·주의 명칭을 고쳤다. 그런데 새로 복속된 지역에서는 아직은 지방관리를 파견하지 못하고 재지세력가(여부구의 경우)들에게 지방관직을 주는 단계가 8세기 중반에서부터 8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문왕 사후 내분기를 맞아 지방통치제도를 개선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 지방통치체제의 완비가 늦어진 이유 중이 하나일 것이다. 이후 9세기 중반 ‘해동성국’으로서 중흥기를 맞아 현 단위까지 그리고 무왕·문왕대에 새로 복속된 지역까지 지방관을 파견한 명실상부한 부(도독)-주(자사)-현(현승) 단계로 완비되었던 것이다.

❁ 발해 지방통치체제와 수령

발해는 8세기 전반기부터 넓은 영토와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 지방통치체제를 정비하여 9세기 중반까지 부(도독)-주(자사)-현(현승)이라는 일원적인 지방행정조직을 완비하였다. 그런데 지방행정의 가장 말단인 촌락에는 수령(首領)이라는 재지세력가들이 있었으며, 실제적으로 발해는 수령을 매개하여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할 수 있다.

사료에 기록된 발해 수령은 국가를 운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방관으로 도독이 된 수령(여부구의 경우)이 있는가 하면 당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외교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무왕과 문왕대까지 당나라로 파견된 수령은 외교사절단의 우두머리나 사절단 내에서 상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발해 후기 일본으로 파견된 수령은 품관(品官)에도 들지 못한 낮은 등급의 사신들이었으며 일본 내에서 교역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수령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료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지위나 역할이 변했던 것은 수령이 재지세력가였기 때문이다.

재지세력가인 수령은 발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배계층의 하나였다. 때문에 재지세력가를 규합하여 발해의 안위와 정권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전기(1대 고왕에서 9대 대명충까지의 시기)에는 수령의 정치적 지위가 높을 수 있었던 것이며, 통치체제가 안정되었을 후기(10대 선왕부터 멸망까지)에 들어서는 수령의 지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 하급 사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9세기 이후 부-주-현 3단계의 지방행정조직이 완비되어 재지세력가인 수령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

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령의 위상은 이전 시기보다 낮아진 것이다. 일본을 왕래한 사신단에 참여한 수령의 법제적 대우가 매우 소홀하였는데, 발해에서 직접 작성하였을 중대성첩의 사신단 일행을 적은 차례를 보면 초공(梢工 : 뱃사공) 바로 위의 지위였다. 때문에 여부구 경우처럼 수령을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없어지고 도독-자사-현승-수령-백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백성에 대한 통치를 실행한 것이다.

수령이 지방통치체제 전개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때문에 유목민족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앞에서 서술한 재지세력가로서의 성격을 가진 수령이 지방통치체제와 그의 세력 기반인 소속집단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알아보자.

유목민족들은 그 부락의 우두머리를 ‘대인(大人)’이라고 하다가 수당(隋唐)대에 와서는 ‘수령’ 등으로 달리 부르고 있다. 대인은 한대(漢代)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큰 세력을 가진 자’나 ‘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였다. 주변 민족의 수령을 대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그러한 특징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부족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외부세계에 대한 대응력과 내적인 분쟁의 조정 능력이다.

발해 수령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존은 곧 수령에게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곧 수령의 성격과 모습은 그가 속한 집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령은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가하는 외부적인 압력에 대해 필연적으로 반발하게 된다. 발해 중앙정권이 중앙집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가운데, 특히 지방통치체제를 완비하면서 수령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갈수록 그 반발은 더욱 커지기 마련일 것이다.

이를 위해 발해는 일원적인 부-주-현 체제를 운영하며 강력한 통제력으로 수령을 포괄하였다. 후기에 일본에 파견된 사신단에는 65명이나 되는 많은 수령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규모의 수령들을 집단적으로 사절단에 참여시키고, 관리를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발해가 완비된 지방통치체제를 통하여 수령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들은 지역의 특산물인 담비 가죽, 호랑이 가죽, 인삼 등을 가지고 가서 발해 내에서 생산량이 적은 섬유 제품들과 교역을 하였다. 하루 교역량이 관전(官錢)만 40만 량이라고 하였으니,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사무역(私貿易)까지 고려한다면 막대한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발해 중앙정부는 완비된 지방통치체제를 통해 수령을 통제하였지만, 한편으론 이와 같이 일본과의 교역에 참가시켜 큰 이득을 얻게 하여 수령들을 포섭하였다.

9세기에 들어서 발해 지방통치체제에 포섭된 수령들이 현승의 지휘하에 백성들을 중앙정부와 매개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후기 신라는 행정촌에 그 지방의 토착세력가를 촌주(村主)로 임명하여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지방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들 촌주들은 자연촌락 2~3개를 관할하면서 지방관을 보좌,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조세를 징수하거나, 성을 쌓는 등의 각종 공사에 필요한 지방민을 동원하는 등 중앙권력이 지방에 침투하는 매개 역할을 맡았다. 발해 수령도 후기 신라의 촌주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발해 중앙정부는 일원적인 부-주-현 체제 내에 수령의 지위 하락까지 가능케 한 통제를 가하여 해동성국으로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다만, 발해가 멸망기에 들어서 강력하게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이들은 곧 발해 세력권 밖으로 일탈해 나갔다.

일본 학계에서는 수령은 재지사장(在地首長)으로서, 발해 정권은 수령층을 포섭하여 국가를 재편성하고, 수령을 매개로 간접 지배체제를 행하였다는 '수령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령은 발해 내에 할거하고 있는 말갈족들의 수장이며, 이들이 전통적으로 재지 지배권을 발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존재로서 그 부락의 구성원인 백성을 통솔했으며, 지방관을 비롯한 관료가 되기도 하고, 외교사절 수행원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발해의 지방통치제도는 일원적인 체계였다. 다만 그 통제력이 수령이 가지고 있는 집단 내의 배타적인 힘을 제어하여 그 집단을 해체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지방관을 도와 말단 지방행정을 수행한 후기의 수령들을 매개하여 지방통치체제를 유지하였으나, 말갈족과의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해 나갔기 때문에 발해가 분열하여 거란에 의해 쉽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 하겠다. 발해 멸망기에 드러나는 수령들의 일탈은 신라 말에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벗어나 호족층으로 성장하여 독립성을 가지게 되는 촌주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또한 발해는 요(遼)나라처럼 거란인·돌궐인 등을 거란 부족의 관습법으로 다스리는 북면관(北面官), 중국인과 발해인 등을 중국식 군현제도로 다스리는 남면관(南面官) 등 이중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발해의 멸망 원인

▶▶▶ 시간적 · 공간적 접근

김은국 | 동북아역사재단 |

渤海

❁ 동아시아 자국 중심 역사 인식과 발해 역사의 위상 제기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까지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서 그 위용을 떨쳤던 나라이다. 건국자 고왕 대조영 이후, 15왕이 229년간 이끌어 가면서, 한때는 해동성국으로 칭송될 정도로 동아시아 중심 국가로 우뚝 섰던 나라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229년간 북방의 역사를 이어갔던 나라로 인식하여 왔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발해는 북방을 영유한 마지막 국가였으며, 고구려 다음으로 큰 영역을 차지하고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발전하였던 나라였다. 더구나 발해가 건국된 후는 남쪽의 신라와 함께 남북국으로 불리어 왔던, 당연한 우리 역사이다.

그러나 현재 발해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은 그야말로 낭만적이

라고까지 폄하되곤 한다. 발해 영토가 현재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북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의 차이가 나오게 된 것이다.

중국이 발해사를 보는 시각은, 당나라 때 지방봉건정권으로 규정한 지 오래였으며, 러시아 또한 발해를 연해주 최초의 국가로 본다. 다만 중국측의 시각과 다른 점은 당나라와 별개의 독립국가로 보는 점이 약간의 차이일 뿐, 역시 러시아 연해주 역사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세기를 전후하여 제국주의의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조선은 물론 압록강 너머 만주 지역까지 그 영역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만주 일대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일본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발해를 다루고 있다. 어쩌면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은 프로젝트의 추진이었으며, 아직도 그 영향력이 크다 하겠다.

한편, 발해를 우리 역사라고 당연시하여 왔던 남북의 발해사 인식을 보면, 그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표면적으로 남북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다. 우선 우리 남쪽부터 보면, 발해와 관련될 수 있는 통로는 신라와 후삼국, 그리고 고려 정도라 할 것이다. 그것도 신라와는 신라도라는 교통로와 기록에 몇 건 정도 남은 양국의 사신 파견 기록 등이 고작이며, 후삼국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그나마 고려가 후삼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해 유민의 고려 유입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동아시아에 팽배한 자국 중심적인 역사 인식의 창을 빌리면, 제일 연구가 불리한 형편에 놓여 있다. 북쪽의 경우는 발해 시대 5경(京)의 하나인 남경(南京)이 위치하고 있으며, 관련 유

적과 유물이 남아 있어 우리와는 또 다른 연구 환경에 놓여 있다.

문제는 현재 중국이 동북 지방에 대하여 자국 중심적인 인식 논리의 연장에서, 위로는 고조선으로부터 아래로는 근대사까지 명실상부한 역사공동체 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발해사에 대한 기존의 중국적인 인식 정립은 현재 중국 동북공정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발해사 연구는 이제는 우리만의 연구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 환경에서 우리는 발해를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극단적이고도 일방적인 잣대를 통해 발해사의 귀속, 즉 어느 나라의 역사에 속하는 것일까라는 문제에만 몰입한다면, 우리는 발해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점이다.

❁ 발해 멸망의 이해

1000여 년 전 일어난 발해의 멸망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많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2006년은 발해가 멸망한 지 1080년이 되는 해이다.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발전하여, 해동성국으로 그 위상을 높였던 발해의 존재는 21세기 현재에도 그 의미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발해는 역사의 교량이며 길목이다. 그래서 발해의 역사적 위상은 높아만 간다. 발해는 한국사에 보면, 북방 민족 또는 중원과의 매개 지역이며 완충지대였다. 그렇다고 발해가 한국의 역사도, 또 다른 민족

의 역사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발해의 정체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 유민 국가의 기본 틀에 주변 민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전개한 나라였다. 발해 건국에 함께 한 민족과 주민들은, 고구려 이래로 가깝게 지내었던 존재들이었다.

지속되는 당의 팽창정책은 결국 당의 지배하에 놓인 이들 국가의 유민들을 자극하였고, 그들 중 일부가 당에 저항하였다. 기록에는 마치 발해 건국이 당시 거란족의 반당 투쟁의 결과인 것처럼 나와 있다. 그러나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만에 건국된 고구려 후예국이다. 고구려 멸망 이후 그 유민들은 주저하지 않고 고구려인의 기상과 문화, 지혜를 다시 한자리에 모으고, 결국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하였다.

발해가 존재하였던 시기는 7세기 전후에서 10세기이다. 간혹 역사를 볼 때 중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것이 기록과 해석일 것이다. 기록이란 쓰여진 그대로의 서술로 기록자와 그가 기록한 사실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다면, 해석은 기록을 토대로 그 이면에 내재한 의미와 기록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려면 할 수 있는 스펙트럼 같은 작업이다. 이제 1080년 전의 발해 멸망 사실을 역사 해석이란 측면에서 살펴해보겠다.

기록으로 본 발해 멸망

698년에 건국한 발해는 926년 정월에 멸망하였다. 그러나 기록상의 건국과 멸망만으로는 발해사의 전체적 실상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건국과 마찬가지로 발해 멸망을 926년 한 해 한 순간의 사건의

종결로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기록상으로 보면, 발해 마지막 왕의 항복이 멸망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926년 정월, 발해의 대궐 상경성을 거란 군사들이 포위하였다. 왕은 소복을 입고 양을 끌고 대소 신료와 함께 거란의 주군에 항복하기 위해 도성을 나왔다. 유목 집단인 거란이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훗날 요(遼)나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야율아보기 때부터였다. 야율아보기에게 항복한 발해 마지막 왕은 시호마저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 역사를 볼 때, 간혹 시호를 빠뜨린채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발해 건국자인 대조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조영은 발해인 스스로 붙인 시호인 고왕이 있다. 고왕 이후 발해왕은 시호는 물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야말로 발해인이 주체적으로 역사를 전개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발해가 멸망하는 10세기에 들어 발해를 통치한 왕은 제15대 대인선(大諲譎)이다. 발해의 멸망은 그가 재위에 오른 지 20여 년 뒤의 일이다. 발해 멸망에 대해서는 『요사(遼史)』 야율우지전(耶律羽之傳)에 “거란 태조가 그 같린 마음을 틈타 움직이니 싸우지 않고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까지 발해 멸망에 대한 연구는 이 기록과 함께 진행되었다. 곧 발해는 대인선 통치 시기에 내분에 의해 우왕좌왕하던 중 거란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멸망하였다는 것이다. 이른바 ‘발해 내분에 의한 자멸’설은 현재까지도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발해 내분설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없다. 내분설 자체가 추론일 뿐이다.

내분설의 유력한 근거인 『고려사(高麗史)』에는 925년 이후 각계 각층의 발해인, 특히 고관(高官)과 무관직(武官職)의 주요 인물들이 대

거 망명한 기사가 보인다. 곧 발해 멸망 직전에 발해 지도층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 민심이 이반된 가운데 일부가 고려로 망명하는데, 이 틈을 이용한 거란의 기습적이고도 대대적인 공세에 결국 발해가 멸망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발해인의 고려 망명은 고려 태조 때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예종대인 12세기까지 근 200여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 『요사(遼史)』가 전쟁에서의 승리자 중심의 기록물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발해는 전쟁에서 지고 기록에서 또 한번 진 것이다. 이러한 내분설 위주의 발해 멸망 시각은 최근 방송매체의 전파를 타고 백두산 화산 폭발설과 연결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설의 진원지인 일본에서도 이미 부정적 견해가 나왔는데도 이 설을 재활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폭발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고, 발해 상경 용천부 일대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용암들을 보면 폭발 시점이 역사 시기 이전임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발해 멸망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이 위에 든 『요사』의 기록에 의거 발해 내분설을 보강하고 있다. 따라서 발해 멸망의 모든 책임은 발해인, 특히 발해 지도층, 그 중에서도 마지막 왕인 대인선에게 귀결되곤 한다. 이처럼 발해 말기 사회의 부패, 나약, 내분 등 부정적 요소로 '발해 멸망=내분'이라고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발해 멸망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할 때이다. 즉, 빈약한 사료에서나마 발해인을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은 거란이 세력을 확장할 시기에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볼 수 있다. 신라 및 고려는 물론 중원, 일본 등과 교류를 하였으며, 특히 거란과도 사신을 교류하였다. 특히 신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



〈그림 1〉 발해 상경성 유지 안내비

와 우호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거란의 공세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10세기 당시 동아시아는 혼란 시기에 놓여 있어, 발해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할 만한 국가가 없었다.

발해는 말기까지 전통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여 놓았음을 유적의 존재와 발굴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의 대

규모 공세 앞에 무너졌던 것은, 바로 거란이 발해의 전통적인 군사력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란으로서는 발해 영토의 요충인 요동 공략에 주력하였다. 요동은 당시 동북아시아 요충지에 해당되는 곳으로, 그 전략적 중요성은 오늘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다. 사료(『요동행부지』)에서도 거란이 발해와 수십 년간 혈전(血戰)을 치르고 서야 겨우 요동을 차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므로 거란은 발해 공략을 쉽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거란과 발해의 직접적인 전투 기사는 두 건뿐이다. 발해 서쪽 경계인 부여성(현재 중국의 장춘, 농안 지역)과 수도인 상경성 전투가 그것이다. 거란은 앞서 발해의 요동을 장악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뒤, 수도 상경성 공략에 나선다. 발해의 군사력과 그 거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거란은 효과적인 기습공략의 전술로 노상(老相)이 이끄는 마지막 수비부대 3만을 무너뜨리고 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발해 마지막 왕이 항복을 청하였지만, 거란군이 성내로 진입 무장해제를 실시할 때, 성내 발해민이 왕과 더불어 거란에 저항하였으나, 결국 성이 함락되었다. 왕의 항복과 상경성의 최종 함락, 이를 우리는 발해 멸망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상경성을 마지막으로 지켜 내려고 한 노상과 그가 이끄는 3만 수비대의 존재이다. 이름도 없이 그저 노상으로만 알려진 수비대장과 왕과 더불어 거란에 최후까지 저항하였던 발해 민초들의 존재는 우리가 재인식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이상의 언급을 토대로 발해의 멸망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 「조선유적유물도감」

〈그림 2〉 | 발해 석등

수 있다. 곧, 발해 말기의 어떤 내분이나 혼란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내분설의 근거는 추론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다. 이제는 발해를 중심으로 보는 발해 멸망관이 필요할 때이다. 이는 발해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전통적인 방어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마지막 왕 대인선은 거란의 압박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다만 주변 국가가 발해의 원조 요청에 부응할 수 없었던 것이 한계였다고 본다. 아울러 이제는 다각적인 발해 멸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시점이다. 이는 발해의 왕계가 단절된 이후 발해 전역에서 전개되는 유민 부흥운동의 조명이 부각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발해 멸망 1080주년

발해의 멸망은 우연이였는가, 필연적인 결과였는가 하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역사를 거울로서 우리에게 비출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록과 유물인데, 사실을 확실하게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기록으로 본 발해 멸망은 아직도 그 원인과 배경, 결과 등 풀리지 않는 면이 산재해 있다. 왜일까.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건만, 막상 발해 멸망 기록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접근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의문 투성이로 그 문제에 들어간다.

한 나라의 역사는 그 출발 못지않게 멸망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이는 인간의 삶과도 같아, 출생과 성장과 죽음이라는 틀과 다름이 아니다. 그럼에도 발해 역사는 그 건국과 발전은 어느 정도 상세히 접근할 수 있지만, 멸망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다. 그러다 보니 발해는 수수

계끼의 왕국이니, 환상의 나라니 하는 식의 표현이 많이 보인다. 실제로 발해의 멸망 관련 기사는 의외로 적다.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은 거란이다. 거란은 발해 건국 당시에는 당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전개하여 주변 민족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집단이다. 거란은 10세기 초 분산되어 있던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당당히 국가를 선포하였으며, 남쪽의 중원과 동쪽의 발해 등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696년 당의 탄압에 폭발하여 발해 건국의 한 뇌관 구실을 한 바 있다.

이제 2006년이면 발해가 멸망한 지 1080년이 된다. 중국은 발해를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논문과 책과 기념비에까지 분명하게 새기고 있다. 또 발해의 최대·최고 성인 상경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와 점검을 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고구려, 발해의 계승과 전통을 한국사에서 배재하려고 한다.

발해 멸망이 지나는 의미는 한국사로서는 최후의 방파제 상실이다. 그 이전 전개되어 온 고조선과 부여, 그리고 고구려를 이어 영토나 문화적으로 고향 같은 곳이 발해였다. 발해 멸망은 바로 북방 민족이 한반도로 직접 내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발해사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발해는 한국사에서 명실상부하게 국제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해내었다. 발해는 당시 동아시아인이 부러워할 정도의 세계인의 마인드를 지녔다. '진국'이란 이름으로 부활한 발해는 이처럼, 21세기 이 곳에

사는 우리에게 다시금 그의 위상과 마인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역사의 무대가 좁아들어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지금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위에, 큰 역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때로 우리 북방에 또 다른 역사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하면서 어떤 때는 마치 향수처럼 관심을 담아 보내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유의 반응 역시, 10세기 이후 발해의 존재 의미가 우리 역사 내에 확고하게 자리하지 못하였던 데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우리가 발해에 주목하는 이유는, 발해의 영토를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유적이거나 유물이 우리만의 소유라든가 하는 식의 자국 중심적인 인식에서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방기해서도 안 될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발해 역사는 어느 나라의 역사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발해가 해동성국으로 칭송받을 정도로 발달하게 된 데에는, 당시 동아시아의 다양한 교류의 한 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발해는 그 지리적인 개활성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대외교통의 다양한 루트를 개발·운영하였다.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는 한때 당의 집요한 추격과 접근을 차단하였으나 이후에는 당의 문화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당으로부터 발해가 독립국임을 확인받게 되었고, 이후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 속에 당당히 한 일원으로서 활약하였다.

7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명실상부한 국제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한 발해, 그들은 진정 세계인의 마인드를 지녔다. 고구려의 계승국으로만 자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방이 트인 교통로를 이용하여 주변국과 당당하게 외교를 전개하며 발해의 위상을 제고시켰던 것이다.

발해 유민의 부흥운동

임상선 | 동북아역사재단 |

渤海

❁ 발해와 고려의 관계

발해와 고려 사이에 직접적인 교섭이 시도된 것은 923년부터였다. 이 해 3월 거란이 해호손(奚胡損)을 토벌하고 그 무리 300인을 주살하는 등 해(奚)를 복속하자, 발해는 강화되는 거란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변의 여러 나라와 결원(結援)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결원을 맺은 국가에는 신라뿐 아니라 고려도 포함되며, 그 시기는 923년 3월에서 924년 5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얼마 뒤 발해가 거란에 멸망되는 시기를 즈음하여 유민들이 고려로 넘어오게 된 것은 양국민이 이전의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공통의 의식을 가진 점과 함께 양국 간에 체결되었던 결원협정의 영향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918년 건국한 이후 이전의 궁예 시대와 달리

점차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면서, 국호를 고려(高麗)라 칭하고,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할 것을 적극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와 발해 간에 혼인관계에 이르렀다는 자료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수록되어 있다. 고려 태조의 “발해는 나와 혼인한 사이이다” 혹은 “발해는 본래 나의 친척의 나라”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것을 단순한 명분상의 표현으로 파악하는 경우와 이 기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혼인(婚姻)’·‘친척지국(親戚之國)’이라는 의미와 발해 멸망 뒤 대규모 발해 유민에 대한 고려측의 수용과 거란에 대한 적대감의 근거에 바로 양국 간의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는 대광현과 고려 태조와의 ‘혼인’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후비(后妃) 혹은 공주(公主)의 정략적인 결혼에서 태조가 취한 태도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다. 즉, 태조의 정략결혼의 대상은 후삼국 통일 이전에는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 크게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 빈천한 가문에서 출생한 왕건으로서는 신분적으로 자신보다 상위의 인물과 혼인을 통한 상승을 요망하였다. 이 점은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金傅)의 귀순 이후 그의 맏공주와 혼인을 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발해 세자 대광현은 태조의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대광현은 발해를 떠나 고려로 온 유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리와 수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왔으므로 군사적 역량도 대단하였을 것이다. 특히 그가 발해 세자로서 왕족이라는 사실은 고려 태조의 입장에서 대광현보다 훨씬 처지는 기타 다른 후비와의 혼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양자 간의 혼인은 응당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해



* 발해 건국 1300주년 기획전 「발해를 찾아서」

〈그림 1〉 발해 후손 영순태씨의 족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혼인의 시기는 대광현이 태조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면 대광현이 고려로 내투한 926년 후반에서 가까운 시기일 것이며, 그와 반대로 태조와 대광현의 딸의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뒤의 어느 시기일 것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발해 멸망 이후 고려에 내투한 발해인은 대광현(大光顯) 이외에 고려 태조 8년(925) 9월 발해 장군 신덕(申德) 등 500인을 시작으로 예종 11년(1116) 12월에 이르는 191년간에 대략 12만 명에 이르렀다. 이 숫자는 고려 전기의 총인구 210만 가운데 2~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와 같이 발해가 멸망한 이후 그 유민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이 고려였다. 기록상의 숫자를 모두 합하면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발해 유민이 고려로 넘어왔다. 이것은 신라에 이어 고려의 통일이 갖는 또다른 민족사적 의미이기도 하다.

발해인이 고려에 넘어온 시기가 발해 멸망 이후 이어진 광복운동의 실패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의 고려 내투



• 島田正郎, 契明彦

〈그림 2〉 | 발해 유민이 사용한 운돌

는 일종의 민족적 유대감에서 우리나라의 최후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후발해와 정안국

발해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은 발해 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후발해를 시작으로 정안국, 흥요국, 대발해국이 발해 멸망 후 100년이 넘도록 거란의 지배에 항거하며 등장한 부흥국가들이다.

1. 후발해

발해가 멸망한 후 거란에 의해 세워졌던 동란국이 927년 서쪽의 요양으로 옮겨간 이후 세워진 최초의 발해 부흥국가를 926년 이전의 발해와 구별하여 '후발해'라고 한다. 후발해는 고정사(高正詞)가 발해 사신으로 후당에 갔던 929년 처음 기록에 등장하고, 멸망 시기는 후발해의 을야 정권이 거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붕괴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1003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

후발해의 대씨 정권은 건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을야 출신의 오씨(烏氏)로 정권이 바뀌면서 '대씨발해'가 '오씨발해'가 되었다. 후발해는 5대와 활발히 교류하였는데, 929년 고정사가 후당에 들어가 방물을 바치자 명종은 그에게 태자세마(太子洗馬)의 관직을 내렸다. 931년에는 성문각(成文角)이 후당에 갔으며, 그 다음 해인 장흥 3년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935년에는 남해부도독 열주도(列周道)가 방물을 바

치고 검교공부상서직(檢校工部尙書職)을 받고 왔으며, 같이 갔던 오제현(吳濟顯)은 시광록경(試光祿卿)을 받았다. 후발해와 중국과의 관계는 954년 7월 발해 호족 최오사(崔烏斯) 등 30인이 후주(後周)에 귀화했던 기록이 마지막인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후발해는 주로 내정과 거란과의 관계에 관심을 쏟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975년에는 발해 유민 출신의 장수 연파(燕頗)와 함께 발해의 옛 부여부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펴기도 하였다. 그리고 발해의 옛 장령부 지역이었던 휘발하 유역에서의 싸움에서도 원군 7천 명을 보내었으며, 979년경에는 정안국(定安國)의 일부 세력을 규합하기도 하였다.

2. 정안국

발해의 서경 압록부가 있던 압록강 일대에서도 발해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 정안국을 세우고 거란에 대항하였다. 정안국의 건국 연도에 대해서는 935~936년설과 937년, 970년설 등이 있는데, 『송사(宋史)』 열전에는 정안국이 다음과 같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

정안국은 본래 마한(馬韓)의 종족으로 거란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그 추장이 남은 무리들을 규합하여 서쪽 변경에서 건국하고 개원(開元)하였으며 나라 이름을 스스로 정안국(定安國)이라고 하였다. 970년 그 국왕인 열만화(烈萬華)가 여진(女眞)의 사신 편에 글과 공물을 바쳤다. 송의 태평흥국(976~984) 기간에 태종이 거란을 공격하려고 정안국에 글을 보내 호각지세를 이루자고 하고, 정안국도 거란에 대한 복수를 꾀하려던 차에 좋아하였다. 981년 겨울 당시의 왕인 오현명(烏玄明)이 여진 사신 편에 보낸 글에서도 송이 거란을 토벌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989년에는 그 왕자가 여진 사신 편에 말 등을 보냈

고, 991년에도 그 왕자인 태원(太元)이 여진 사신 편에 글을 보냈으나 그 후는 다시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송사』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문헌통고(文獻通考)』에도 실려 있다.

정안국은 그 왕이 처음에는 열만화였다가 얼마 후에는 오현명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 왕권의 교체가 있었다. 정안국의 오현명은 고구려의 옛 땅과 발해의 유민이라고 하며 고구려-발해-정안국이라는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고, 특히 원흥(元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정안국은 인접한 거란의 위협에 대항하는 한편으로 거란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남쪽의 송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여진의 사신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이긴 했지만, 거란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결의를 엿볼 수가 있다.

정안국은 985년 거란 성종의 여진 정벌이 이루어진 시기를 전후하여 멸망하였을 것이지만, 한동안 더 존속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991년 송에 정안국의 왕자의 글이 보내지고, 『고려사』에 정안국인의 고려 내투가 1018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요(遼)가 정안국을 정벌한 이유는 고려 정벌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측면과 함께 정안국이 송(宋)과 함께 거란에 대항하려고 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었을 것이다.

흥요국과 대발해국

1. 흥요국(興遼國)

정안국 이후 발해의 또다른 부흥운동은 대연림에 의한 흥요국의 건국이다. 흥요국은 1029년(고려 현종 20년) 8월 초 요(遼)의 동경도(東

京道) 관하에 있던 발해 시조 대조영의 7대손(혹은 11대손)으로 당시 동경사리군상온(東京舍利軍詳穩)의 직위에 있던 대연림(大延琳)의 지휘하에 건국되었다.

대연림이 거란에 반기를 든 직접적인 원인은 거란이 소금 및 술의 전매와 물품교역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로 발해인을 수탈하고, 흉작으로 인한 생활고에서 반요 감정이 첨예화되어 있었던 데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발해 멸망 후 끊임없이 지속되던 발해 유민의 반거란, 발해 부흥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대연림은 발해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던 동경 요양부(東京遼陽府)를 거점으로 그 주변의 발해인을 규합하여 거란의 동경유수(東京留守) 소효선(蕭孝先)과 그의 처 남양공주(南陽公主)를 동경성(요양성)에 가두고, 호부사(戶部使) 한소훈(韓紹勳), 부사(副使) 왕가(王嘉), 사첩군도지휘사(四捷軍都指揮使) 소과득(蕭頗得) 등을 죽인 뒤 국호를 흥요(興遼), 연호를 천경(天慶; 『高麗史』에서는 天興으로 기록)이라 하였다.

그러나 대연림의 거사는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1029년 당시 발해의 옛 지역은 이미 대부분 거란의 지배에 들어가 있었고, 발해 유민들 역시 발해에 대한 왕조 의식이나 종족 의식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연림은 당초 여진(女眞)의 호응과 고려와의 공동작전을 통한 반거란 항쟁을 기대하여 건국 직후인 1029년 9월 초(고려 현종 20년)에 고길덕(高吉德)을 고려에 보내 건국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고려에서는 대연림의 원조 요청에 대하여 찬반 양론의 격론이 있었는데, 형부상서 곽원은 이 기회를 틈타 압록강 동쪽 연안의 거란병을 몰아내어 고려의 숙원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하시중 최사위와 서

늘·김맹 등이 이것을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곽원(郭元)의 주장에 따라 압록강 동쪽의 보주성(保州城, 義州)을 공격하여 실패로 돌아간 뒤로는 거란의 남침에 대비하여 같은 해 12월과 1030년 1월, 동년 7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년 9월의 거듭된 흥요국의 지원 요청을 들어 주지 않았다.

요는 1029년 10월 초에 남경유수(南京留守) 소효목(蕭孝穆)의 지휘하에, 국구상온(國舅詳穩) 소필적(蕭匹敵), 해육부대왕(奚六部大王) 소포노(蕭蒲奴) 등이 동경 요양성을 에워싸고 공격하였다. 흥요국은 거란에 포위당한 지 거의 1년 동안 완강히 저항하다가 양상세(楊詳世)의 배반으로 요양성이 1030년 8월 25일경에 함락당하면서 대연림도 사로잡혔다.

이리하여 발해 멸망 후 100년 후에 발생한 발해 유민들의 반거란, 발해 부흥운동은 다시 실패로 끝났다. 이후 거란이 발해 유민들을 요의 내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려로 넘어갔는데, 『고려사』에는 1030년에서 1033년에 이르는 3~4년 동안 약 740명의 발해 유민이 내투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2. 고육(古欲)의 발해 부흥운동

발해가 멸망한 지 이미 200여 년이 지났으나 발해인의 부흥운동은 식을 줄 몰랐다. 1115년(천경 5년) 2월 발해인 고육이 요주에서 반요 기병하여 스스로 대왕이라 칭하였다. 그는 기병 초 먼저 두하성과 결구하고 보기 3만을 거느리고 자립하였다. 그러나 고육의 부흥 정권은 거란의 심장부인 시라무렌강 상류의 요주(饒州)에서 발해 유민의 제철 기술자 1천 호를 포함한 호구 4천의 장락현(長樂縣)과, 태종 때에 발해의

여러 고을 잡호로 세운 안민현(安民縣)의 발해 유민을 배경으로 세워졌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고육은 2차에 걸쳐 거란의 토벌을 막아내었지만 대왕을 칭한 지 5개월 만에 거란의 계략에 말려들어 사로잡힘으로써 부흥운동은 끝이 났다.

3. 고영창의 대발해국

고육의 봉기가 실패한 다음 해인 1116년 1월 발해 유민들은 요의 동경 요양 지방에서 고영창(高永昌)을 중심으로 다시 '대발해국(大渤海國)'을 세워 거란에 대항하였다.

고영창은 요나라의 관리로서 발해의 무용마군(武勇馬軍) 2~3천 명을 이끌고 여진(女眞)에 대항하고 있다가 발해 부흥의 기치를 들었다. 그는 발해 유민이 심한 민족적 차별 대우를 받고 혹은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상관인 동경유수(東京留守) 소보선(蕭保先)을 처단하려고 하였다. 고영창은 반감을 가진 발해 유민들을 선동하여 거사를 일으키고, 10일만에 인근 지역이 모두 호응하여 군사가 8천 명에 달하였다. 이에 동경 요양부를 점령하여 스스로 황제라 하고, 국호를 대발해, 연호를 융기(隆基)라고 하였다.

대발해국은 거란 동경도 관하의 79주 가운데 50주를 공략할 정도로 발해 유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고영창은 금의 황제 아골타(阿骨打)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고, 두 나라가 힘을 합쳐 거란을 공격할 것을 제의하였다. 거란이 황제 칭호를 버리고 투항할 것을 요구하자, 고영창은 이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금에 억류되어 있는 발해 사람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금나라의 공격을 초래하여 동경성이 함락되고, 남은 군사 5천과 함께 장송도(長松島)로 피하였으나 얼마 뒤 여

진에 사로잡혀 죽음을 당하였다.

장송도에 피신한 대발해국 잔여부대들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에는 ‘운대(雲隊)’ 또는 ‘해대(海隊)’라고 표현하였다. 장송도는 발해가 당과의 교류시 이용한 압록 조공도의 해로상에 위치한 중간 기항지였고, 이 곳에는 적지 않은 발해 사람들이 해상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발해국의 마지막 세력이 장송도로 들어간 것도 이와 같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대발해국과 고려 사이에는 직접적인 교섭 기록은 없지만, 1115~1116년간 거란에 사신으로 간 고려의 사신들이 고영창에게 사로잡힌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비록 강요에 의한 것이지만 고려의 사신들이 대발해국의 건국을 축하하기도 하였지만, 고영창은 멸망 시점에도 고려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발해국은 고영창이 내세운 국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해 멸망 후 2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조차 발해 계승의식이 명확히 나타난 이른바 명실상부한 마지막 발해 부흥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渤海

새롭게 본 발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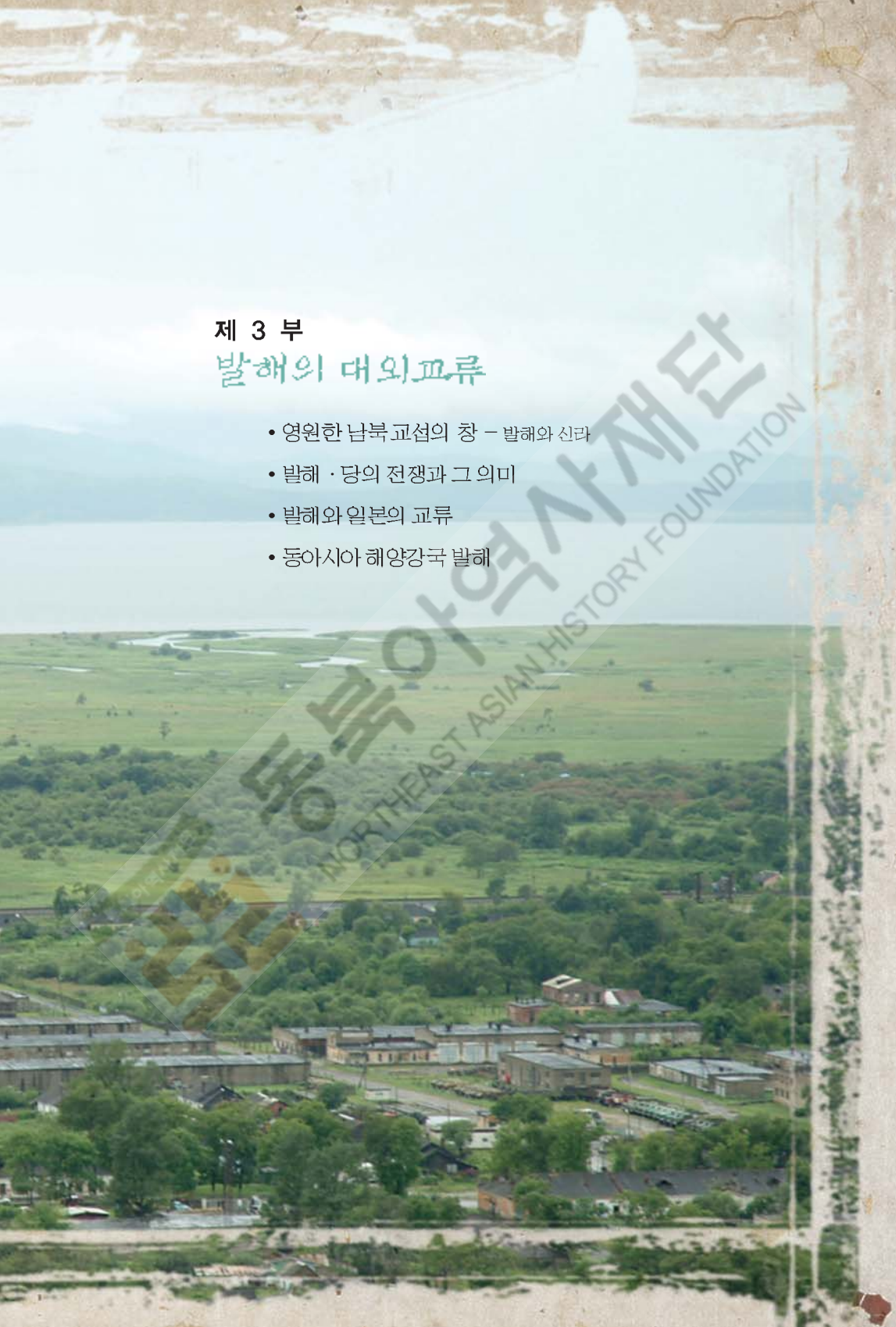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 3 부

발해의 대외교류

- 영원한 남북 교섭의 창 - 발해와 신라
- 발해 · 당의 전쟁과 그 의미
- 발해와 일본의 교류
- 동아시아 해양강국 발해



영원한 남북 교섭의 창

▶▶▶ 발해와 신라

김은국 | 동북아역사재단 |

渤海

❁ 건국자 고왕 대조영과 신라

1. 고왕 대조영 시기의 대외교류

발해 건국의 배경에는 고왕 대조영의 영도력과 함께 건국의 기반이 된 고구려 유민들의 인적·물적 기반이 컸다. 이러한 관점을 발해 중심의 건국 배경이라 본다면, 당의 정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는 견해도 있다. 곧 당시 당의 대외정책의 변화에서 발해 건국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당이 당시 부상한 돌궐의 견제를 받은 결과 부득불 동북 지방에 대하여 소극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드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발해 건국의 한계는 곧 발해가 당의 책봉을 받으면서부터 당의 비호 아래 큰 발전을 이루며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이 기존의 당 중심의 발해 인식의 전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 중심적 건국과 발전에 대한 재고를 위해 이번에는 고왕대의 대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왕대의 기록 역시 앞서 보았듯이 풍부하게 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나마 대조영의 다양한 외교 전개를 살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왕의 뒤를 이은 무왕 때에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왕대에 어느 정도 제도적·영역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고왕대 지방제도와 영역의 확대 과정도 좀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개 고왕대 영토 확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당시 발해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부재(不在)’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고왕대에 영토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그 이유를 당시 발해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고왕대는 갓 건국한 시기로, 나라의 틀을 갖추는 것 못지 않게 주변 나라와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펼쳤을 것이므로 단순히 견제 능력의 여부보다는 진국(발해)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신라 효소왕의 진국 고왕에 대한 관직의 수여이다. 진국의 건국에 대하여 당은 계속 경계하며 견제하였다. 그 결과 발해는 당과 다른 주변국들과 통교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 중의 하나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관작을 받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이 때의 관등이 신라 제5품에 해당하는 대아찬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신라의 발해에 대한 우월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류의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진국의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통교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가 비록 신라측의 기록에만 나타나긴 하나, 그 속에서 오히려 진국 중심의 대외교류 노력을 볼 수 있다.

진국과 신라가 통교한 이후인 705년 당은 진국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거란과 돌궐 등의 위협으로 진국과의 교통이 차단되었다. 이에 진국은 당과 대립적인 돌궐에 사신을 보내었고, 당에도 사신을 보내었다. 이것 역시 진국이 보여 준 대외통교 노력의 하나이다. 당의 입장에서는 진국과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제일 다급한 입장에 처한 쪽은 당나라였다. 당이 진국과 지속적으로 통교를 꾀한 것도 바로 이러한 당의 입장 반영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후 당나라의 진국에 대한 통교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은 713년이다. 이 해는 고왕 재위 16년에 해당 되는데, 이 기간은 진국으로서도 고구려 유민을 결집하면서 한창 영역을 확장하여 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미 남쪽으로는 신라와 통교하였으며, 당 이외의 여러 나라와도 통교를 하였다.

따라서 발해 초기의 정복활동은 고왕대부터 시작하여 문왕과 무왕대에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왕대의 대외통교 전개는 유동적인 대외정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한 고왕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당에서 고왕 서거 이후 그 아들인 대무예(武王)를 계루군왕에 봉했다는 사실이다. 계루는 고구려의 옛 땅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용어인데, 계루군왕의 칭호 사용은 진국(발해)를 고구려 계승국으로 인정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2. 신라와의 관계—교류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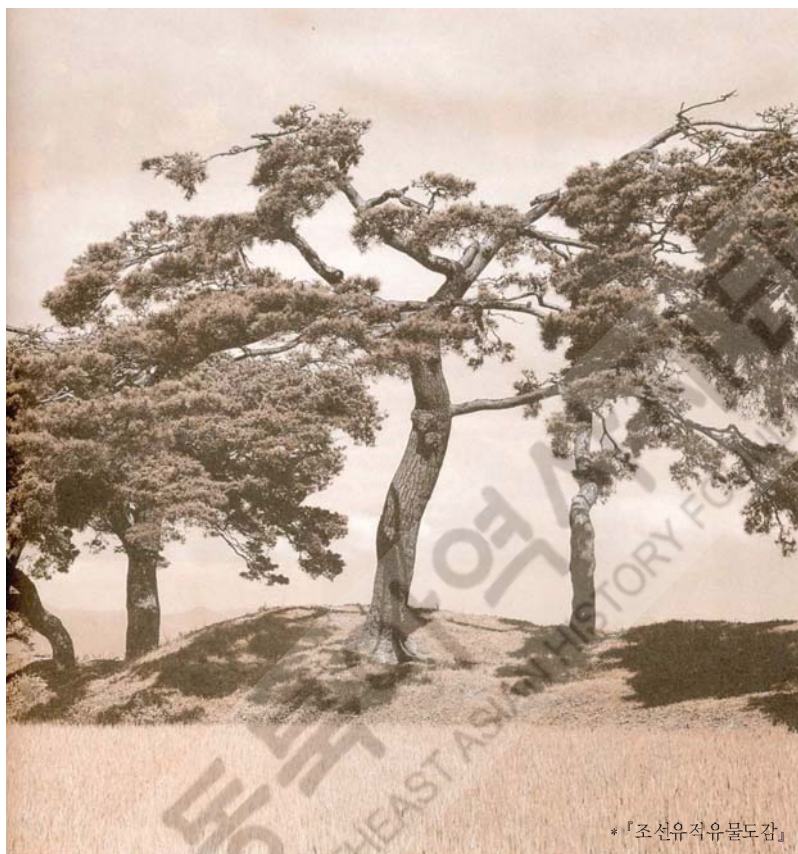
대조영이 나라를 건국한 시기는 698년이다. 건국 당시의 국명은 발해가 아니라 ‘진국’으로, 한자로는 ‘振’ 혹은 ‘震’으로 모두 떨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의 국명으로 알고 있는 발해라는 용어는 당나라에서 진국의 위상을 인정하려는 외교적 조치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각종 역사책의 연표에서 보면, 발해 외의 다른 우리나라 역대 왕은 그 시호를 사용하여 부른다. 그러나 발해(진국)의 왕호는 시호가 있더라도 시호를 생략한 채 왕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곤 한다. 따라서 진국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결국 시호의 적극 사용부터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대 국왕인 대조영의 시호는 고왕(高王)이다. 진국 전체적으로 보면 15대 왕이 재위에 있었고, 926년 멸망하기까지 229년의 짧지 않은 역사이다. 앞으로 진국의 왕도 시호를 붙여 불러야 할 것이다.

고왕 대조영은 건국 기틀을 다진 왕이다. 그는 건국 직후, 주변 국과 다양하게 교류를 전개하였다. 우선 동모산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기까지 추격하여 오는 당의 공격을 천문령이라는 고개에서 격퇴하였다. 이후 진국은 당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당나라를 위협하던 돌궐과 친교를 맺기도 하는 등 주변 정세를 파악하며, 건국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이는 결국 당이 진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 713년 고왕 대조영에게 '발해군왕'이라는 직함을 수여하는 이른바 책봉을 시행하여, 사실상 진국의 존재를 확인하여 주었다.

또, 이러한 당과 진국의 외교전개 배경으로 당시 신라와 진국의 연계를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건국 직후인 700년경 고왕은 신라에도 사신을 보내어 진국의 성립을 알리는데, 당시 신라 효소왕은 고왕에게 신라 관동의 5품인 대아찬의 직함을 주었다. 이 대아찬 벼슬은 파진찬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낮은 등급이 아니다. 신라에서 고왕에게 관등을 내렸다는 사실에서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조선유적유물도감』

<그림 1> | 청해토성 남벽

첫째, 당시 신라는 삼국을 통합하고, 신라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전개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진국은 갓 태어난 나라였다. 5품 벼슬의 수여는 그런 신라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둘째, 신라와 진국이 적대적인 관계였다면 이러한 친교는 상상할 수 없다. 결국 신라와 진국 사이에 교류관계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남북국 시대의 형세가 갖추어진 시기였다.

❁ 발해 무왕의 대외 확장과 신라

719년 고왕이 서거하자, 그 아들 대무예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대무예는 이후 737년까지 진국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였다.

발해는 건국 초기부터 주변국과 다양하게 교류를 전개해 갔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교통로이다. 『신당서』 발해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용원(龍原)의 동남쪽 연해는 일본도(日本道)이고, 남해(南海)는 신라도(新羅道)이다. 압록은 조공도(朝貢道)이고, 장령(長嶺)은 영주도(營州道)이며, 부여(夫餘)는 거란도(契丹道)이다.

발해는 영토의 확장과 문화의 다양함 속에서 그에 걸맞은 제도와 정치를 실시하였다. 5경(京)·15부(府)·62주(州)라는 정연한 행정제도와 함께 일본도 외의 여러 교통도 설치하는 발해 문화의 특징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중에서 신라도와 일본도는 발해인의 해양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교통로이다. 일본도를 통해서 발해와 일본 간에 왕래한 사신과 물품의 교류는 발해의 해양활동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반영해 준다.

발해 사신이 일본으로 출발한 곳은 여러 곳이 거론되었지만 동경 용원부(東京龍原府) 소속의 한 항구로 추정되는 지금의 중국 길림성 훈춘(琿春)의 팔련성(八蓮城)으로 보고 있으며, 도착지는 일본의 데와국(出羽國) 내지 노토국(能登國)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러시아 연해주에 대한 공동발굴 추진 결과 최근에는 발해 사신의 출발 항구와 관련하여 훈춘에서 가까운 현재의 포시에트 항(港)이 주목받고 있다.

이 시기 발해와 일본의 관계는 신라와 일본의 관계보다도 더 빈

변하게 접촉이 이루어졌다. 발해는 일본에 34차례, 그리고 일본은 발해에 13차례 사신을 파견했다. 발해가 일본에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한 때는 제2대 무왕 대무예(大武藝) 인안(仁安) 9년(727)으로, 사신단은 영원장군(寧遠將軍) 고인의(高仁義)와 고제덕(高齊德) 등 24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항해는 바다에서 난파당했다가 겨우 8명이 살아남았을 정도로 매우 험한 여정이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험한 뱃길을 마다하고 발해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던 것일까. 그 대답은 당시 일본에 가져간 발해 무왕의 국서(國書)에 적힌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발해가 고구려의 옛 터전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한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국가적 전통을 인지한 점에서 상호 인식의 장을 열었다 하겠다. 둘째는 일본에 간 목적인데, 그것은 바다로 가로막히어 교통이 어렵지만, 주변 나라와의 교류를 강조해 온 관례에 따라 일본을 찾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발해 토산물인 담비 가죽 300장을 예물로 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의를 돈독히 하려는 바람의 표현이다.

이 727년 무왕의 사신 파견을 신라 견제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더 나아가서는 신라와 발해의 대립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곤 한다. 그러나 국서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왕 시기 발해의 대외정책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주변 세력과의 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자리 확립이 목적이었다. 이후 발해의 일본에 대한 사신 파견은 919년까지 이어졌다.

일본 나가야 왕가(長屋王家)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木簡) 중에 727년의 사절로 보이는 '발해사(渤海使)'와 '교역(交易)'이라는 글자 등이 바로 양국 간의 교류와 그 교역품의 의미를 짐작케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해인 이광현(李光玄)에 대한 사료의 발굴과 연구가 발표되

었는데, 당시 서해와 동해를 통하여 주변국을 연결하며 활동하던 발해인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일본도와 함께 발해의 해양문화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신라도의 존재이다. 신라도는 동경 용원부의 중심인 동경으로부터 지금의 함경도 지방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교통로이다. 이 길은 신라와의 교역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며, 발해의 5경 중 하나인 남경(南京)을 경유하여 간다. 1980년대 이후 북한 경내 발해 유적지가 다수 발굴 조사되었는데, 북청군의 북청토성을 비롯하여 신포시 소재의 오매리 절터 유적 등은 바로 신라와 발해의 교역을 말해 주는 유적이다. 발해의 남경은 북청에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며 용흥강을 만나는 데, 이 강을 건너면 신라 시대의 천정군(泉井郡)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발해와 신라가 경계를 이루었다고 전하는 니하(泥河)가 이 용흥강이며, 강원도 북방의 연곡천(連谷川)으로도 보고 있다. 이 신라도는 발해와 신라가 동해안 연안을 따라 대립과 친선을 포괄한 넓은 의미의 교류를 추구하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 당 원정군 사령관 장문후

발해 제2대 무왕 대무예는 전왕 고왕(高王)대의 건국 기틀 위에 팽창정책을 전개하였다. 무왕은 왕위를 잇자 연호를 인안(仁安)이라 하고, 발해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갔다. 이러한 무왕의 정책은 곧 당과의 충돌을 야기시켰으니 그것이 732년에 일어난 발해의 등주(登州) 공격이다.

이와 관련된 사료는 『신당서』와 『구당서』인데, 크게 네 부분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건국 초기부터 발해 세력권 밑에 있던 흑수말갈(黑水靺鞨)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당과 교류하였다는 점, 둘째는 이러한 흑수말갈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무왕이 동생인 대문예(大門藝)로 하여금 흑수말갈을 공격케 한 점, 셋째는 무왕의 지시를 반대하고 당으로 망명해버린 대문예의 송환을 당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등주를 침공한 점, 그리고 넷째는 당은 발해의 공격으로 등주 자사(刺史)가 죽는 등 타격을 입으면서도 결국 대문예를 비호하고, 오히려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토록 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해석을 보면 발해와 당의 일시적인 군사 충돌로 보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결국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이 당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는 데 있다. 당시 당은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다. 그러한 강국에 대하여 공격을 시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전하는 위 사료와 같이 무왕의 등주 침공 사실은 규모와 피해면에서 상당히 축소되었을 것임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당이 등주를 공격한 발해의 장수 장문휴 등을 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등주 침공은 발해가 뚜렷한 명분이 있었던 전쟁이다. 그것은 먼저 등주의 입지적 위치, 곧 당시 동아시아 해로의 물류 요충지였던 등주 확보는 발해로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등주는 신라와 발해의 사신이 머물던 곳으로 그들이 머무는 신라관(新羅館)과 발해관(渤海館)이 각각 설치되었던 곳이다. 특히 신라인은 신라관을 중심으로 신라방(新羅坊)이라는 집단 거류지까지 형성한 곳이다. 발해 역시 이 곳에 대하여 교역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흑수말갈이 발해의 예속하에서도 당과의 교류를 추진하였던 배경에는

바로 발해를 중심으로 한 등주 교역에 해한 독자적인 교역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리고 위 사료에 보이는 네 번째의 내용, 즉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케 하였다는 기록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발해와 신라의 대립을 조장시키고자 한 당의 이간책으로 보곤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등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와 발해의 교역 거점 확보 경쟁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등주 침공 내용의 축소와 신라와 발해의 대립 측면의 강조가 732년 동아시아의 교역 질서를 오히려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 732년 등주 침공의 의미는 발해가 등주라는 동아시아 교역 중심지의 중요성을 간파했다는 사실이다. 무왕은 이에 해로를 통하여 발해의 팽창정책을 추구하였음을 말해 준다.

건국된 지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등주를 침공했다는 사실은 결국 발해가 해양을 누빌 수 있는 함선과 해상 교역이 가능한 상선을 갖춘 해양 제국이었음을 말해 준다. 가담(賈耽)이 저술한 『도리기(道里記)』에 의하면 등주는 신라의 당성(唐城)에서 압록강 입구를 지나서 이르게 되는 북로(北路)의 귀착지이다. 그리고 발해 건국 초기부터 주변 세력과의 충돌은 발해 군사의 강고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발해 유적지에서 발굴된 활과 화살, 대도(大刀), 갑옷, 투구, 창 등의 유물을 통해 당시 발해인들의 무장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문왕 대흥무 이후 발해와 신라

제3대 문왕은 무왕의 뒤를 이어 737년에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

는 793년 서거하기까지 60여 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발해의 문화를 다양하게 진작시켜 나아갔다.

그는 주변국과의 충돌보다는 교류를 통하여 나라의 위상을 높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재위 초부터 당나라와의 우의를 돈독하게 다져가면서, 당의 다양한 선진문화를 수용하는 한편, 신라와 일본 등 주변국과의 기존 교류 채널을 공고히 다져 나갔다.

우선, 전왕대에 있었던 등주 전쟁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우호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재위 26년에는 명목적이지만 당으로부터 발해군왕에서 발해국왕이라는 승격된 직함을 받게 되었다. 이는 당의 이른바 책봉체제라는 일방적인 수여이긴 하나, 당으로서도 이제 진국을 국가로 정식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당은 진국 건국 이후 40여 년 만에 정식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이제 건국 초기와 달리 신라와 당당히 어깨를 견줄 만한 국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제10대 선왕 대인수와 11대 대이진 시기에 해동성국으로 칭송받을 정도로 발해의 발전은 절정에 도달하였다. 818년 제10대 선왕 대인수가 재위에 오르는데, 이 시기 진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전국을 5경(京), 15지역의 부(府), 그리고 62개의 주(州)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5경에는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 등이 있으며, 15부는 5개 도성에 한 개씩의 부를 수주(首州)로 삼고, 전역에 1개씩의 부를 두고, 각 부 밑에 주를 두도록 하였다. 신라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남경의 설치이다. 이 곳은 현재 북한 지역에 있으며, 청해토성이 가장 유력한 해당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든 ‘신라도’ 기록, 그리고 신라 사신의 북국 파견 기록 등과 함께 이 곳이 발해가 신라와의 교류의 중심이었음을 입증한다.

선왕은 재위 기간 동안 주위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역하면서, 광활한 영토를 소유한 대제국을 이루었다. 재위 기간의 연호는 건흥(建興)이라 하여, 제2의 건국기를 구가한 것이다. 이 시기 일본과의 교류 또한 활발하여, 일본이 12년에 한 번씩 사신 교환을 요구할 정도였다. 연해주에는 발해 유적으로 가장 크고 웅대한 크라스키노 성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 러시아 학자들 간의 발굴 교류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구려연구재단이 발간한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 유적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성은 발해 전성기로부터 발해 멸망 후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간 동아시아의 정치·물류의



〈그림 2〉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 기외벽실 유구

중심지였다. 특히 이 곳 유구에서 출토된 목탄의 연대 측정 결과는 바로 이 성의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 성을 통하여 동해로 나아가, 일본과 신라로 사신과 물자를 교환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와 발해, 발해와 신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의 짧은 추억을 뒤로 한 채 곧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이후 발발한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음과 동시에 남북 간에는 적대 감정이 팽배되어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 남과 북은 상호 대립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체제유지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당연히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고려, 발해, 고구려,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 계통을 강조하며 우리 북방사의 정통을 북쪽에 두려 하였다. 한편, 남쪽의 대한민국에서는 북에 대응하는 나뉠대로의 정권의 안정성과 권위를 신라의 삼국통일에 초점을 두고 향후 남북통일의 이론적 모델을 신라, 고려, 조선 등으로 주로 남방의 우리 역사에 설정을 두었다. 따라서, 남과 북은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보는 시각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남과 북의 미묘한 시각차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북쪽의 발해와 남쪽의 신라가 서로 공존한다는 의미의 ‘남북국사’ 또는 ‘남북국 시대’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다. 누가 뭐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용어이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국 개념이 앞으로 발해를 이해하는 데 좋은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크라스키노성터 기와벽실유구 출토 목탄(최근 분석 결과 절대연대가 840년으로 밝혀졌음)

앞서 발해사의 역사성을 현재 각국의 발해 연구의 현실성과 대비시켜 살펴왔다. 그리고 더 이상 발해사 연구는 우리의 주도로 이어갈 수 없는 점도 가늠해 보았다.

이 배경에는 발해사의 역사 무대가 20세기 이후 영토 민족주의와 중첩되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우리의 자생적이고도 집중적인 발해사관의 정립 소홀이 아닌가 본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발해 이후 1000여 년간의 역사 진행을 통해, 발해를 제대로 평가해 왔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이라는 범국가

적인 역사 책임이 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보다는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보완을 통하여 공고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논의 중의 하나가 바로, '남북국 시대론'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남북국'을 단지 방위상으로 북쪽의 발해, 남쪽의 신라로 규정해 왔기 때문에 이 시각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었다. 최근에도 중국과 일본의 발해 연구자 사이에서는 이 용어 사용의 부적절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측 학자들 중에서도 용어의 문제는 물론 한국사 속의 발해 자체의 의미까지 축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바로 이 남북국 시대의 올바른 이해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 데 연유하고 있다.

곧 고조선 이래 북방의 중심지인 평양을 수도로 삼고 있는 북쪽에서는 발해를 계승한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고, 남쪽의 일부 연구자는 신라와 발해의 대립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라 중심적인 남북국론을 견지하는 듯이 보인다. 일부 대립적인 요소로 인해 1000년 전의 남북국은, 지금은 분단 시기의 남북으로 대응되어버린 것이다.

조선 시대 유득공의 눈으로 다시 남북국을 보았을 때, 과연 그가 오늘처럼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갈리어 대립하고 있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유득공이 주장한 남북국론의 배경에는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는 유득공의 이 시각조차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유득공의 시각도 계승하고, 또 남북의 첨예한 대립적 사관도 극복할 수 있는 남북국론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발해 · 당의 전쟁과 그 의미

김종복 | 성균관대학교 |

渤海

❁ 발해의 등주 공격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발해가 732년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던 사건은 한국사에서 보기 드문 대외 선제공격의 하나였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발해의 세력 확장을 꺼린 흑수말갈이 당과 결탁한 데 따른 발해의 위기감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발해는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군사적으로도 약소국인 발해가 당을 공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명분 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였다. 또한 당은 발해를 반격하기 위하여 신라에 참전을 요구하였고, 신라는 그 대가로 패강(대동강) 이남의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발해의 등주 공격을 전후해서 흑수말갈과 신라 등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발해와 당의 관계를 넘어서 당시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발해가 동주를 공격하기 직전까지 발해와 당은 발해 무왕의 동생 대문예의 처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대문예는 흑수말갈을 토벌하려는 무왕에 반대하여 당으로 망명하였다. 지배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발해 초기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국왕의 동생인 대문예가 망명한 원인은 외교노선상의 의견 대립을 넘어 좀더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체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내부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당과 발해의 국교 수립 과정

고구려 멸망 이후 많은 유민이 당의 내륙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과거 고구려 세력권에 포함되었던 말갈족과 함께 요서 지역의 영주(지금의 요령성 조양)에 거주하였다. 영주는 당의 동북방면의 요충지로서 이 곳에는 거란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다. 당은 이민족을 기미주로 편제하여 집단적으로 거주시키되 정치적 통합을 못하도록 분리 통치하였다. 그 위에 이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당의 관리가 파견되었는데, 이러한 지배 방식을 ‘기미지배’라고 한다.

696년 5월 당 관리의 학정에 견디지 못한 거란족이 이진충과 손만영을 중심으로 봉기하였다. 이른바 이진충의 난이 발발한 것이다. 이진충의 거란군은 순식간에 영주를 점령하고 하북 지역까지 세력을 뻗었다. 당은 자력으로 이진충의 난을 진압할 수 없어 북아시아에서 세력을 떨치던 돌궐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진충의 난은 1년 후 손만영이 사

망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그 여파는 70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당은 동북방면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곧 당의 기미지배가 붕괴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영주에 거주하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대조영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며 요동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대조영은 698년 당의 토벌군을 천문령(지금의 길림합달령)에서 격파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과거 고구려 영역을 지배하던 안동도호부는 698년 안동도독부로 축소되어 요동 지역만을 관할하기에 이르렀다.

대조영은 이후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모산(지금의 길림성 돈화시 성산자산성)에서 나라를 건국하고, 진국왕(振國王)을 자칭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조영은 처음 국호를 진(國)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國)과 당 양국의 국교 수립은 713년 당이 대조영을 발해군왕에 책봉함으로써 이루어졌지만, 이 때 당은 상대방을 ‘진(國)’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대신 대조영의 책봉호를 빌려 ‘발해말갈’로 부르면서 점차 ‘발해’가 국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대조영과 그 후예가 스스로 국호를 진에서 발해로 바꾸어 사용한 것은 좀더 뒷시기이다. 따라서 최소한 698년부터 713년까지는 진(國)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발해로 통칭하기로 한다.

당은 천문령 패배 이후에도 발해의 건국 집단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거란이 돌궐에 복속되어 도로가 차단되었으므로 당은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이처럼 당은 발해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해는 곧바로 당과 대립하던 돌궐과 통교하였다. 또한 발해는 신라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당시 신라는 나당전쟁의 양극으로 당과 국교가 실질적으로 단절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신라는 대조영에게 신라의 제5관등인 대야찬을 제수하였다.

발해는 이로써 대외적 안정을 확보하고 고구려 멸망 이후 분산된 세력들을 규합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반면 당으로서는 이진충의 난 이후 상실한 영주 지역을 거란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당이 705년 장행급을 파견하여 발해를 위무하였던 것은 발해에 대한 토벌 방침을 취소하고 그 실체를 인정하였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당의 태도 변화는 거란의 배후에 위치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발해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당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 대조영은 아들을 인질로 파견하였다. 이제 양국이 국교를 맺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발해가 당의 책봉을 받는 절차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돌궐과 거란이 매년 당의 변방을 침략함으로써 양국의 국교 수립은 지연되었다.

결국 당은 돌궐과 화친을 맺은 후 713년에 발해와 국교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전해에 당은 거란과 해(奚)를 공격하였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침공을 받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은 거란을 물리치고 영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해를 끌어들이기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던 것이다. 한편, 발해는 당의 책봉에 앞서 먼저 711년 11월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발해 또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과 흑수말갈의 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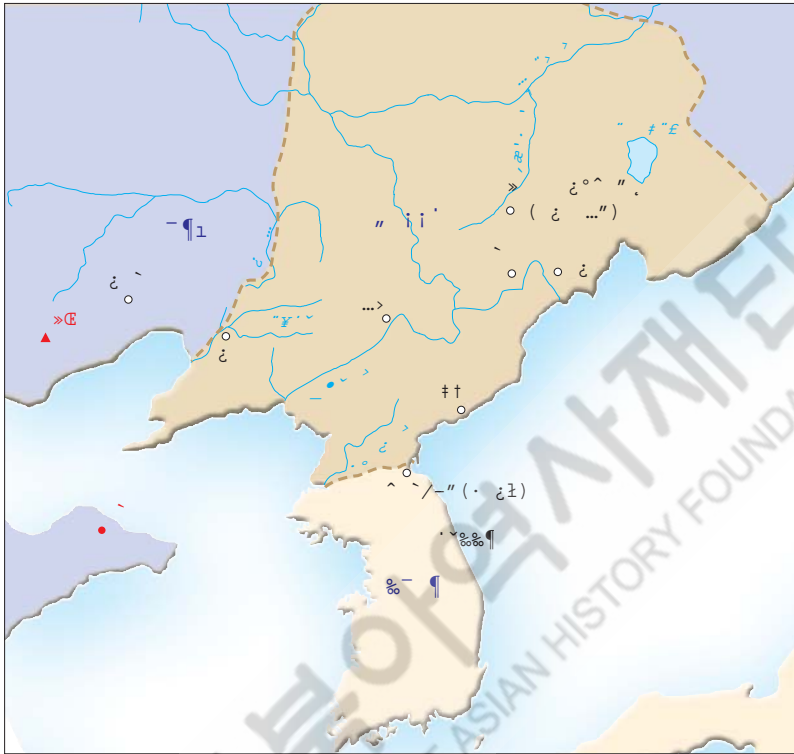
발해는 당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 대외적 안정 속에서 주변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그 대상은 주로 과거 고구려 영역과 말갈 지역

이었다. 건국 시조인 고왕 대조영대에는 도읍지인 동모산 일대를 중심으로 과거 고구려 영역 가운데 당의 안동도독부가 관할하는 요동 지역과 나당전쟁 이후 군사적 완충지대가 된 평양 일대를 제외한 지역, 즉 압록강과 혼강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고왕의 뒤를 이어 718년 무왕 대무예가 즉위하였다. 그는 ‘무왕(武王)’이라는 시호에서 알 수 있듯이 활발하게 주변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신라가 712년에 즉위한 성덕왕대부터 이전과 달리 대당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북방의 발해의 동향과 무관치 않다. 또한 721년에는 하슬라도(치소는 지금의 강릉) 지역의 장정 2,000명을 동원하여 북쪽 국경에 장성을 쌓았다. 이 장성은 함경남도 영흥군에 비정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발해의 세력 확장에 대한 신라의 대비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는 동북방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주변의 말갈부족을 복속시켰다. 발해의 배후에는 불널말갈, 월희말갈, 철리말갈, 흑수말갈 등이 있었다. 발해를 비롯하여 말갈부족이 처한 자연환경은 삼림이 풍부하면서도 농경에는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반농·반렵 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물자는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었다. 발해와 말갈부족이 당과 활발하게 통교한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말갈부족이 당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발해를 경유해야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해 사신이 동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통해 발해는 말갈부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불널·월희·철리말갈은 714년부터 당과 교섭한 반면, 흑수말갈은 722년 처음으로 당과 교섭하였다. 송화강 하류에 위치한 흑수말갈은 고구려 멸망 이후 대부분의 말갈부족이 분산·해체되었을 때도 유일



〈그림 1〉 등주와 도산이 나와 있는 지도

하게 독자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흑수말갈은 다른 말갈부족과 달리 뒤늦게 발해의 세력권하에 포섭되었다. 725년 안동도호 설태가 흑수말갈을 기미주로 편제하고, 당의 관리를 파견하여 이를 관장하도록 권의하였다. 이 제안은 이듬해 실행되었다. 물론 당의 일방적인 조치만은 아니었다. 발해의 세력 확장에 반발한 흑수말갈의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때 당이 흑수말갈에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8세기 초반 당은 북아시아에서 돌궐과 대립하면서, 동북 방면에

서는 돌궐에 종속되었던 거란과 국지전을 벌이고 있었다. 당은 발해와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요동 지역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배후에서 거란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돌궐이 목척가한(691~716) 말기에 쇠약해지자 거란은 716년 당에 항복하였다. 이로써 당은 영주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가가한(716~733)이 내분을 수습하면서 세력을 회복하자, 거란은 다시 돌궐에 복속되었다.

720년 9월 당은 발해에 사신을 보내어 거란 토벌을 제안하였지만 발해는 불응하였다. 발해가 당과 국교를 맺었지만 돌궐과 관계를 단절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왕 대무에는 대조영에 대해 고왕(高王)이라는 시호를 올리고, 인안(仁安)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가 당의 책봉을 받았음에도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하였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당의 입장에서 볼 때 발해는 당의 외신(外臣)으로서 지켜야 할 역할을 저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당으로서는 발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흑수말갈에 기미주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 설태가 720년 거란 토벌에 나섰다가 오히려 생포된 장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흑수말갈 토벌을 둘러싼 발해 지배층의 의견 대립

흑수말갈은 당에 접근하기 이전에 돌궐에 토둔을 요청하였다. 토둔은 돌궐이 복속시킨 종족에게 설치한 관직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흑수말갈은 발해에 먼저 통보하고 함께 돌궐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즉, 말갈부족과 당의 교류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발해는 흑수말갈

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수말갈이 독자적으로 당과 결탁한 까닭은 발해의 세력 확장을 돌궐이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흑수말갈과 당의 결탁과정에서 발해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무왕은 양자가 앞뒤에서 발해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흑수말갈에 대한 당의 접근은 발해에 복속된 말갈부족들에 대한 당의 영향력의 침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주변 말갈부족을 복속함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가던 발해에게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점에서 무왕은 흑수말갈을 토벌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런데 발해의 지배층이 모두 무왕에 동조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흑수말갈 토벌은 필연적으로 당과의 전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려하였던 사람이 바로 무왕의 동생인 대문예였다. 그는 옛날 강성했던 고구려도 당에 대적하다가 하루 아침에 망해버렸는데, 고구려보다 몇 배나 국력이 약한 발해가 당과 대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대문예는 일찍이 당나라에 숙위로 파견되어 오랫동안 머무르다 귀국하였다. 그로서는 나름대로 당의 국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소국인 발해가 흑수말갈을 공격함으로써 야기되는 당과의 전쟁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무왕 대문예와 대문예의 의견 차이가 단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 시기 발해의 지배층은 대당외교노선을 둘러싸고 각각 무왕과 대문예로 대표되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당은 돌궐과 대립하고 있었다. 발해는 초기에는 당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궐과 친선을 도모하였고, 당과 국교를 맺은 이후에도 돌궐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왕이 대당강

정책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돌궐 및 거란과의 제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대문예의 망명과 이를 둘러싼 외교전

발해 지배층 내부의 외교노선상의 차이는 726년 무왕이 흑수말갈 토벌을 강행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흑수말갈 토벌의 사령관으로 대문예가 파견되었다. 그런데 그는 국경에 이르러 다시 토벌을 재고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다시 전쟁 불가론을 제기하자, 무왕은 진노하여 사촌형 대일하를 파견하고 대문예를 소환하였다. 대문예는 소환령이 자신의 처벌을 의미함을 알고 곧바로 당으로 달아났다.

대문예 대신 파견된 대일하가 흑수말갈을 토벌한 결과 당분간 흑수말갈은 물론이고 다른 말갈부족과 당의 교류는 중단되었다. 무왕은 흑수말갈의 토벌과 함께 당으로 망명한 대문예의 송환을 당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이 이에 응할 리는 없었다. 당으로서는 오히려 발해 지배층의 내분을 반겼기 때문이다. 무왕이 대문예의 송환 및 처벌을 요구하자, 당은 일단 발해의 집요한 요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를 유배보냈다고 거짓으로 통고하였다. 그러나 당의 거짓은 곧 발각되었고 무왕은 재차 당에 항의하였다. 당은 기밀 누설의 책임으로 담당 관리를 좌천시키고, 대문예를 유배보냈다. 이처럼 발해의 집요한 요구에 당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명분상 수세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732년 7월에 보낸 국서에서 당의 태도는 일변하였다. 당

은 형제지간의 우애라는 명분에서 대문예에 대한 처벌 요구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발해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 오면 무력 응징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당이 강경하게 나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서 728년에 발생한 두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당이 다시 흑수말갈과 결탁하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왕의 큰아들 대도리행이 당에 숙위로 있던 중에 사망한 것이다.

728년 1월 흑수말갈이 사신을 파견하자, 당은 흑수말갈의 추장에게 이헌성(李獻誠)이라는 중국식 성명을 내려줌과 동시에 운휘장군 겸 흑수경력사를 제수하고, 당의 관리인 유주도독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726년 발해의 흑수말갈 토벌에도 불구하고 2년만에 당이 다시 흑수말갈과 결탁함으로써 발해는 대외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728년 4월에 사망한 대도리행은 720년 계루군왕에 봉해진 발해의 왕위계승자였다. 왕위계승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필연적으로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점에서 무왕이 그토록 집요하게 대문예를 처벌하려는 의도를 외교노선상의 의견 대립에서 벗어나 발해의 내부 문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발해는 건국한 지 30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 국왕 자신도 건국 집단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아직 왕권 자체가 확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왕위의 부자계승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왕과 마찬가지로 건국과정에 참여하였던 대문예의 경우 왕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왕위계승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무왕과 대문예 간에는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외교노선상의 차이를 계기로 폭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문예가 당으로 망명한 것은 어쩌면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결과

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728년 무왕의 큰아들인 대도리행이 당에 숙위로 있던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의 사망으로 인해 무왕의 동생인 대문예에게 왕위계승의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게다가 대문예는 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당이 무력 응징의 뜻을 드러낸 것은 결국 대문예로 왕을 교체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왕은 지배층의 분열을 방지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차원에서 대문예의 처벌에 그토록 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발해의 등주 공격

이처럼 발해는 흑수말갈과 당의 밀착에 따라 대외적으로 위기에 처하였고, 내부적으로 왕위계승을 둘러싼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외교노선상의 차이를 매개로 증폭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무왕은 등주 공격으로 돌파하였다. 등주(지금의 중국 산둥성 봉래시)는 한이 고조선을, 그리고 수·당이 고구려를 해상으로 공격할 때의 전진기지였다. 이진충의 난이 한창인 697년에도 당은 이 곳에서 바다 건너 요동반도로 진격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발해와 당은 영토가 맞닿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발해가 선제 공격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대상은 등주밖에 없었다.

732년 9월 발해의 장문휴가 이끄는 수군은 바다 건너 등주를 습격하여, 등주자사를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불의의 습격을 받은 당은 이듬해 본격적으로 토벌군을 파견하였다. 곧 733년 1월 대문예로 하여금 유주(지금의 북경)의 병사를 징발하여 발해를 공격하는 한편, 신라도

발해를 공격케 하는 협공작전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겨울에 출병하여 추운 날씨와 험한 도로 사정으로 군사의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 대문예의 공격도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끝났을 것이다.

당의 토벌 사령관으로 대문예가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발해에서는 왕명을 어기고 당으로 망명한 사실보다 더 큰 반역행위에 해당한다. 때문에 무왕은 현지에서 자객을 동원하여 대문예 암살을 시도하였다. 암살이 실패한 후 발해는 다시 마도산(지금의 하북성 진황도시 청룡만족자치현과 승덕시 관성만족자치현 경계에 있는 도산)을 공격하였다.

발해의 대당강경책은 당시 돌궐과 거란이 당과 대립하는 형세하에서 이루어졌다. 이 무렵 거란도 내부적으로 정쟁이 발생한 결과 해와 함께 돌궐에 투항하여 730년부터 당을 공격하였다. 특히 거란이 733년 윤3월에는 유관 도산에서 당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 곳은 마도산과 동일한 지역으로 파악된다. 즉, 발해는 거란을 지원하여 마도산에서 당과 격돌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734년 4월 당군이 거란을 격파한 후 작성한 승전 보고서에서는 거란이 돌궐 및 발해와 제휴하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이 해 9월 당은 발해의 재침에 대비하여 등주의 군대를 하구로 이동시키기도 하였다.

전쟁 그 후

발해의 등주 공격으로 흑수말갈은 741년까지 당과 접촉을 중단하였다. 무왕은 내부적으로 대문예로 대표되는 온건파를 배제하고 권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망명한 대문예가 당의 군대를 이끌고 발해를 공격한 사실은 무왕이 대문예를 지지하는 세력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좋은 명분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발해의 지원 세력이었던 돌궐은 734년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여, 그 결과 거란과 해가 당에 복속되었다. 또한 신라는 이 무렵 단독으로 발해를 공격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처럼 국제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감에 따라 발해도 더 이상 대당강경책을 지속할 수 없었다. 736년 돌궐이 거란과 해를 토벌하기 위해 파견한 사신을 발해가 억류하고 당에 알린 사실이나, 발해가 당의 포로를 송환하고 당은 억류하던 발해의 사신을 방면한 사실들은 양국의 화해 분위기를 전해 준다.

한편, 신라가 발해를 공격한 대가로 735년 당으로부터 폐강 이남의 영유권을 인정받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건국 초기에 발해와 신라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지만, 발해의 세력 확장에 따라 신라는 장성을 쌓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발해가 727년에 일본과 국교를 수립한 까닭은 신라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었다. 이처럼 양국 간의 잠재적인 대립 의식은 신라가 발해를 공격함으로써 전면화되었고, 신라는 발해를 점차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면에는 신라의 일통삼한(一統三韓) 의식과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의 충돌이 깔려 있었다. 나당전쟁의 승리 이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였다고 자부하였지만 실제로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은 포함하지 못하고 그 유민의 일부를 포섭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얼마 후 고구려의 부활을 표방한 발해의 등장은 신라의 삼국통일의 허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결국 신라는 발해를 미개한 말갈로 치부해버림으로써 삼국통일이라는 허위 의식을 견지할 수 있었다.



* 김종복 제공

<그림 2> | 도산 전경



* 전쟁기념관 소장

<그림 3> | 등주 공격 상상도

이러한 인식은 물론 신라 지배층인 진골귀족들에 국한된다. 이후 양국 간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진골귀족들의 발해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은 발해 멸망 이후 한국사가 한반도에 국한되어 전개됨에 따라 한국 중세사회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유득공의 ‘남북국 시대론’으로 대표되는 발해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중세사회의 해체기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발해와 일본의 교류

구난희 | 교육인적자원부 |

渤海

❁ 동해를 넘나든 사절들

1997년 12월 31일 오후 2시, 물푸레나무로 만든 길이 15m, 너비 5m의 뗏목 하나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일본. 그러나 다음 해 1월 23일 일본 근해까지 도착하였으나 악천후를 만나 탐사에 나섰던 4명의 대원 전원은 끝내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

2005년 1월 19일, 연해주 포시에트 연안에서 일본을 향하는 뗏목 탐사가 다시 시도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 이 탐사대는 동해안을 표류하기 시작했고, 심한 파도에 뗏목의 대부분이 파손되자 대원들은 일본행을 접고 동해항으로 귀환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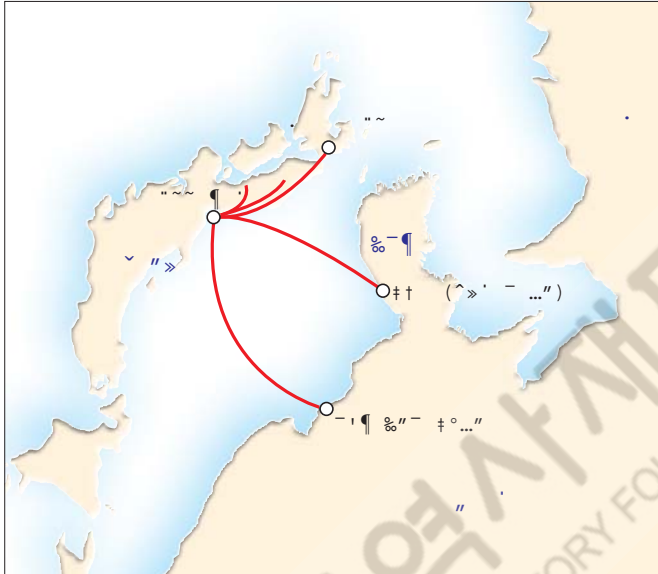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굳이 연해주로부터 일본으

로의 뗏목 탐사를 고집하였을까? 탐사 뗏목의 이름에 잠깐 눈을 돌려 본다면 그들이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가를 알 수 있다. 1997년 출항한 뗏목의 이름은 ‘발해1300’, 올해 출항했던 뗏목은 ‘발해2005’였다. 이제 이쯤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이들은 바로 1300년 전에 일본을 왕래하던 발해인들의 옹호한 기상을 되살려 내고자 했던 것이다.

발해는 공식 사절로 일본을 34차례나 방문했고 일본 또한 발해를 13차례 방문했다. 위의 뗏목 탐사 시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양국을 넘나드는 항해는 결코 쉽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양국의 교류 관련 기록에는 조난과 표류가 거듭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항해 여건 그리고 229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발해의 존속 기간을 감안해 본다면 47회에 달하는 양국의 교류는 매우 활발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양국 교류를 둘러싸고 정세 변화에 영향을 준 중대 사건들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일화도 많이 전해 오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한다면 발해와 일본의 교류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리 많지 않다. 발해가 자체적인 역사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고, 교류에 관한 기록이 모두 일본측 사료에만 남아 있는 탓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일찍부터 연구해 온 일본의 시각이 ‘국내외의 어려운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불리한 외교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과 교류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발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양국 교류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손과 손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교류란 양국의 필요성과 이득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는 발해와 일본의 관계에서도 예외적일 수는 없다. 게다가 양국의 필요란 수시로 달라지는 국내외의 다양한 정세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전개되기 때문에 어느



<그림 1> | 발해와 일본의 주요 항로

한 가지 사실이나 한쪽의 입장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한 억측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제 양국 교류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로 하자.

❁ 초기 교류를 둘러싼 몇 가지 오해

발해와 일본의 교류는 727년 발해 사신 고인의(高仁義)의 파견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다분히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비중이 두어졌다. 신라에 의한 삼국의 통일 그리고 발해의 건국, 그에 따른 당

과의 대립 등 굽적굽적한 정치적 사건이 연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해와 일본의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대립과 긴장을 강조하여 필요 이상의 과장된 해석이 동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양국 교류 나아가 발해사를 이해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특히 일본 학계에서는 발해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해석하면서 발해의 위상을 축소시켜 왔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자주 거론되었던 것이 이른바 ‘신라 침공계획’이었다. 따라서 신라 침공계획 그리고 이 시기 양국 교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양국 교류를 이해하는 중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신라 침공계획’이란 일찍이 일본 학계에서 『속일본기(續日本紀)』에 나오는 군사적 움직임을 두고 명명해 왔던 것이다. 즉, 일본과 발해가 군사동맹을 맺고 신라를 침공하고자 했으며, 이는 당과 신라에 대해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발해가 이러한 국제관계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도모한 사건이라고 보았다. 한때 우리 학계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발해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신라 침공을 면밀히 계획하여 주도하면서 일본을 협조 세력으로 포섭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라 침공계획을 발해가 계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 계획이 추진될 당시인 759~763년 사이 발해 사신의 방문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앞세운다. 즉, 발해가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 일본에 접근했고, 잦은 사신의 왕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림 2〉 포시에트만(발해 시대 동경 용원부 소속 영주 부근)의 항구. 일본으로 향하는 발해 사신은



* 구년의 제공

겨울에 북서쪽으로부터 부는 계절풍을 이용하여 이 곳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발해 사신의 방문은 모두 일본의 초빙에 의해 이루어졌다. 양승경(楊承慶)은 오노타모리(小野田守)와 함께, 고남신(高南申)은 우치쿠라쓰네젠(內藏全成)과 함께, 왕신복(王新福) 또한 고마노오야마(高麗大山)와 함께 일본으로 갔다. 또한 파견된 사신은 일본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은 뒤 발해로 돌아가는 길엔 반드시 송사(送使)가 동행하고 있었다. 즉, 이 시기의 발해와 일본의 잦은 내왕은 일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일본은 양국의 교류를 추진해야만 하는 절실한 필요를 안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 내부의 필요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집권자 후지와라나카마로(藤原仲麻呂)의 집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신의 권력을 대외 사절의 방문으로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관한 세부적 설명은 일본 고대의 황친 관료제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의 소개로 그치기로 한다.

한편, 발해는 이렇게 접근해 온 일본을 든든한 자신의 배후세력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 주었다. 당과의 교섭과 이를 위한 견당사의 안전 입당(入唐)을 알선하는 것도 포함되었지만 이 시기 일본 정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정보는 '안사(安史)의 난'이라는 대륙 정세였다. 당시 발해가 전한 정보는 두 가지로, 반란세력이 매우 강성하다는 것 그리고 반란세력이 자신들에게까지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대륙 정세에 대한 위기의식과 자신들의 우수한 상황대처 능력을 동시에 전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더욱 발해에 밀착하도록 유인하고 있었다.

이미 백촌강 전투의 패전을 경험한 일본으로서는 대륙의 불안한 정세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당시 안사의

난을 보고받은 후지와라나카마로는 안녹산을 교활하고 미친 자라고 표현하면서 사태가 불리할 경우 해동으로 침범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조장하였다. 그리고 안으로는 군사조직의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위한 명분으로 신라 침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와 동시에 밖으로는 당나라에 무기 제조에 필요한 소뼈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발해에 협조를 구했다. 정보를 제공해 준 발해의 의도대로 일본 조정은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발해와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다.

한편, 대륙의 정세 전달을 통해 위기의식과 자신의 우수한 대처능력을 인지시키는 데 성공한 발해는 더 나아가 자신의 국가적 위상을 일본에 분명히 심어 주었다. 양국의 교류 가운데 발해를 ‘고려’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발해는 자신이 고구려의 옛 강역을 회복한 후계자임을 분명히 하고 대외적 자주성과 국력의 자신감을 일본에 표방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양국 교류의 기반 위에 발해는 안정적인 외교전략을 펼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 침공 계획이란 발해로부터 입수한 대외 위기를 정권 안정화에 이용하기 위한 일본의 대내적 정치 시나리오에 불과했다. 발해는 이러한 일본의 국내 정세를 감지하고 걱정한 대륙 정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발해와의 교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여 초기 교류에서 유리한 상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초기 교류의 기록 중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다. 740년 이진몽(己珍蒙) 일행이 방문하자 일본 조정은 이듬해 정월 조회에 그들을 참석토록 하였는데, 이 때 발해 사신과 신라 학어가 나란히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 학어란 언어를 배우고자 신라로부터 파견된 학생이므로 정월 조회의 정식 참석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신라

학어는 발해 사신과의 통역을 담당하기 위해 배석한 인사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발해인들은 신라인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추론해 낼 수 있다. 발해가 말갈 종족이 세운 당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이 중국 학계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록은 발해가 신라와 언어적 동질성을 지닌 국가로서 한국사의 일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크고 작은 갈등, 모두 발해 뜻대로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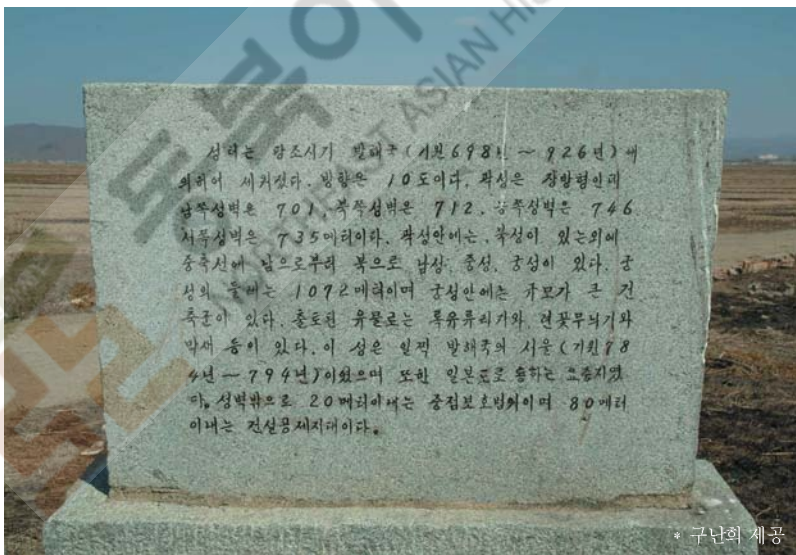
초기 교류의 유리한 상황을 바탕으로 양국의 관계를 다져 나간 발해는 더욱 확고한 국가적 위상을 표방하고 교류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때때로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때로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발해의 의도대로 해결되어 나갔다.

771년 일반복(壹萬福)이 이끈 사절단은 325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인데다 국서에는 발해가 천손(天孫)임을 강조하고, 발해와 일본의 관계를 구생(舅甥 : 장인과 사위)관계로 규정하여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일단 사태는 일반복이 자신은 국서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림으로써 무마되었다. 하지만 다음 번의 오수불(烏須弗) 파견시에는 양국의 관계를 형제관계로 표현하여 일본 조정과 또 한 차례 갈등을 야기했다. 비록 발해의 의도대로 일본이 순순히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당시 확고하게 구축되고 있던 발해의 위상을 일본에 전달한 셈이다. 이후 국서 표현을 둘러싼 마찰의 기록은 등장하지 않는데, 그



* 구난희 제공

〈그림 3〉 서벽에서 바라본 팔련성(현재 이 곳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대대적인 발굴이 추진되고 있어서 접근이 금지되고 있다)



* 구난희 제공

〈그림 4〉 팔련성 안내문(당나라 때 발해국의 수도로서 일본으로 통하는 요충지였다고 안내하고 있다)

렇다고 발해가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 외교의 자세를 낮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소한 갈등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언제나 그 해결은 발해가 뜻한 바대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양국 간에 빚어진 또 다른 갈등은 발해 사신의 도착 지역에 관한 문제였다. 일본 조정은 오수불의 파견 당시부터 북로가 아닌 쓰쿠시(筑紫)의 길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777년 사도몽(史都蒙) 일행의 파견 때뿐이다. 이후에도 발해 사신은 계속 북로를 이용하여 직접 헤이안쿄(平安京)로 들어갔다. 입경 불허 등 몇 차례 마찰이 있기도 했으나 이도 잠시, 일본 조정은 발해의 북로 이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802년에는 노토(能登) 지역에 발해객원(渤海客院) 설치를 추진했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따르면 노토의 유적지에서 외래인 출입에 따른 질병 퇴치의 풍습으로 행해진 소·말의 발치 흔적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발해객원을 통한 교류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발해 사신의 방문 제한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일본은 12년에 한 번씩만 방문해 줄 것을 제안하는 사신을 발해에 파견하고, 양국 사이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결국 발해 사신의 방문은 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렇듯 일본은 발해와의 교류에서 자신의 요구를 제안해 보았지만 결국은 모두 발해의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즉, 당시 일본은 발해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양국 교류의 단절을 감수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그만큼 발해와의 교류는 일본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일본이 발해로부터 제공받은 혜택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 발해 모피는 일본의 최대 인기 품목

일본이 발해와의 교류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발해 사신이 가져오는 진귀한 산물이었고, 이로 인해 발해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특히 발해로부터 가져온 모피는 일본 귀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최초로 일본을 방문한 발해 사신 고제덕(高齊德)이 전한 물품에는 담비 가죽 300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발해 사신이 일본을 방문하여 교류한 물품에는 반드시 모피가 포함되었고, 교류 물품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종류도 담비 가죽, 곰 가죽, 호랑이 가죽 등 다양했다.

교류 초기에는 모피가 판매품이 아니라 답례품으로 서로 주고받았겠지만 이렇게 전달된 모피가 점차 일본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귀족들의 모피 구매 욕구를 엄청나게 부추겼던 것 같다. 비록 어느 정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가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된 바는 없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기록은 곳곳에 남아 있다.

『엔기시키(延喜式)』(10세기에 편찬된 법령집)에 보면 “담비 가죽은 참의(參議) 이상만 착용하도록 한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헤이안(平安) 시대의 참의는 정4위하(正四位下)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타이조칸(太政官)의 고위 관직에 속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담비 가죽을 일본 사회의 최고위층에 한해 착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생각을 확대해 보면 이러한 제한 규정이 명시되었다는 것은 당시 많은 귀족들이 모피를 즐겨 착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 차원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모피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귀족들의 사치욕은 계속되었던 것 같다. 모피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일화가 전하고 있다.

920년 발해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가 풍락원에서 열렸다. 때는 장마철이라 후덥지근한 날씨였다. 당시 파견되었던 발해 사신은 배구(裴瓊)였는데, 그는 모피 수출국 사신이라는 체면에 걸맞게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연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배구는 시게아키라(重明) 친왕의 차림새를 보고는 그만 손을 들고 말았다. 당시 연회에 참가한 시게아키라 친왕은 가장 고가품에 해당하는 검은 담비 가죽옷을 8벌이나 겹쳐 입고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무더운 장마철에 가죽옷 8벌이라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모피 구매와 착용을 과시하는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당시 모피가 얼마나 유행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토록 구매 욕구가 높은 고가 상품을 제공한 만큼 발해 사신단이 반대급부로 가져간 물품은 상당했을 것이다. 과연 모피가 어느 정도의 부가 수익을 올렸을까 하는 것을 가늠해 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다만 발해 사신에게 전달된 물품을 통해 추산해 보면 모피가 상당한 부가 가치를 낳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표는 대사 1인에게 전달된 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추산해 볼 때, 사신단의 규모가 클 경우 전달되는 물품량은 어마어마한 양에 달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823년 고정태(高貞泰), 826년 고승조(高承祖)가 방문했을 당시 후지와라오쓰구(藤原緒嗣)는 발해 사신이란 장사치(商施)에 불과하므로 잦은 내왕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발해 사신의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교섭을 시도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 의견도 귀족들의 구매 욕구를 막을 수는 없었다. 방문 횟수를 줄여야 한다

는 논쟁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발해 사신과 직접적인 구매를 공식화하는 조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라즈카사(內藏寮 : 조정 현상품을 관리하는 관리)와 발해 손님들이 재화와 물건을 서로 주고받았다”, “여러 시전의 사람들과 사신들이 개별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서울 안에서 발해사와의 교역을 허가하였다’ 등이 그것이다. 이 기록들은 발해 사신 양성규(楊成規)가 방문한 872년 전후의 것으로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에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사신들이 가져온 물건을 황실에서도 직접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직접 사신들과 물품을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이러한 사실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상화되어 온 것을 조정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모피를 비롯하여 발해로부터 온 산물은 일본 귀족들에게 구입 열풍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물품 사신	명주 (絹)	거친비단 (異)	명주실 (絲)	무명 (綿)	비단 (錦)	기 타	특별추가품목
양승경	40 필		200구	300돈	4필	미농시(美濃絨) 30필	면 1만돈
고남신		30필	200구			미농시 30필 조면(調綿) 300돈	
일만복	30필		200구			미농시 30필 조면 300돈	
사도몽	70필	70필	200구	500돈			황금 小 100냥, 수은 大 100냥 금슬(金漆) 1악 해석류유(海石榴油) 1악 수정염주 4관
여정립	20필	20필	100구	200돈			빈곽수선(檳榔樹扇) 10매
대창태	30필	30필	200구	300돈			

수 있다.

발해 사신이 가져온 산물은 모피 이외에도 각종 해산물, 인삼, 꿀 등으로 다양한 산물이 교류되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 있다. 또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더 많은 종류의 산물이 교류되었을 가능성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연해주 지역의 발해 유적과 일본 동해안 유적에서 도자기 파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발해 삼채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이로 보건대 발해와 일본의 교역품 중에 도자기 또한 중요한 물품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교류 관련 기록 속에는 도자기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좀더 고고학적 성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발해와의 교류로 일본 문화 폭 확대

양국의 교류는 정치적·경제적 이익과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교감과 우호를 증진시키고 문화의 폭을 확대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발해 사신이 일본을 방문했을 경우 으레 연회가 베풀어졌다. 연회는 대개 음악 연주로 시작되었는데, 발해 사신단에 악사들이 포함되어 파견될 경우는 직접 발해 음악을 선보이기도 했다. 740년 이진몽(己珍蒙)의 경우 직접 발해악을 연주하여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의 우치오(内雄)가 발해로 와 발해 음악을 배우기도 했다. 본국에 돌아온 이후의 우치오의 활약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후에 발해 음악은 일본 궁정의 우방악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잡게 된다.

1171년 편집된 일본쟁(箏) 악보집인 『인지요록(仁智要錄)』 고려악편에는 3수의 발해악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도입된 발해 음악이 일본 내 궁정악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회에서선 여악이라고 하는 여성 무용단의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759년 양승경의 귀국에는 일본 무희 11인이 동행하였고(이 무희들은 후에 당으로 보내진다), 883년 배정(裴正)의 파견 때 이루어진 연회에서는 148명의 여악이 출연한 성대한 연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연회에 매우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았던 것 같다. 883년 기록에 보면 2월에 발해 사신에게 음악을 관람하도록 하기 위해 린유(林邑) 악인 107인을 다이안지(大安寺)에서 음악을 익히도록 하고 그 식량을 야마토국(大和國)의 세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함께 양국 문인들 간의 한시 교류는 문화 교류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발해측에서는 양태사(楊泰師), 왕효렴(王孝廉), 배정(裴正)과 같은 당대의 문호들이 사절단에 포함되었다. 일본측에서도 당대의 최대 문사라 할 수 있는 스가와라미치자네(菅原道真), 오에아사쓰네(大江朝綱), 시마다타다오미(嶋田忠臣) 등이 참여했다. 이들에 의해 교환된 시문은 현재 『관가문장(菅家文章)』, 『문화수려집(文華秀麗集)』, 『고야잡필집(高野雜筆集)』 등 일본의 고대 문집에 수록되어 있어 발해 문학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시마다타다오미는 배정의 시에 크게 감탄하며 칠보지재(七步之才), 즉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을 수 있는 천재라고 칭송하였다.

당대의 최고 문사들이 나눈 시에는 양국 간의 신뢰와 우정이 배어나는 작품도 있다. 예컨대 왕효렴은 “꽃나무 봄을 맞아 곱게도 피었

구나. 갓 피어 웃는 듯 소리만은 안 들리네. 주인이 날마다 꽃가지 꺾어 주니, 나에게 안겨 줄 꽃이 남아 있겠는지” 라고 시를 지어 일본의 환대에 보답했다. 895년 배정과의 이별을 앞두고 스가와라미치자네는 “당신은 진주 같은 시를 내게 주시니 나는 진주 같은 눈물을 그대에게 바치리”라는 주옥 같은 송별시를 남기기도 했다.

당대 문사들 간의 애뜻한 사연도 전하는데, 발해 문인 왕효렴과 일본 승려 구카이(空海)의 이야기를 보자. 두 사람은 장안에서 만나 친분을 나누는 적이 있다. 당시 구카이는 견당사로, 왕효렴은 유학생이었다. 이후 왕효렴이 일본에 사절로서 파견되자 도착 즉시 당시 고야(高野)산에서 수도하고 있던 구카이에게 서신과 시를 보냈다. 그것을 받은 구카이 역시 답서를 보냈지만 왕효렴이 출발하기 전에 도착하지 못해 전달되지는 못했다. 한편, 왕효렴은 이 때 귀국 항해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다음 항해를 준비하며 에치젠(越前)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때 천연두에 감염되어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구카이는 몹시 애석해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도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친 발해 교류의 산물은 바로 선명력(宣明曆)이다. 선명력이란 대음태양력(大陰太陽曆)으로서 1년을 365.2446일로 계산한 역법의 하나였는데, 859년 발해 대사 오효신(烏孝愼)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다. 발해가 이를 수입한 것은 822년 당으로부터였으며 이후 발해에서는 71년간 사용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발해를 통해 수입한 선명력을 1684년 정향력(貞享曆)이 채용되기 전까지 무려 8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용하였다.

❁ 양국 교류를 바라보는 시각

일본의 발해와의 교류는 당과의 간접적 접촉과 견당 인사들의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절실했다. 발해 사신의 귀환시 견당 유학생과의 연락이나 동행, 표류한 견당사의 무사 귀환 등 당과의 연결을 중개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부탁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본 사신을 동행하는 사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894년 공식적으로 견당사가 폐지되면서 대륙과의 연계는 거의 발해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발해로서는 토착 지배세력이라 할 수 있는 수령을 일본 교류에 포함시킴으로써 말갈 여러 부족을 통합하는 효과를 도모하기도 했다.

비록 때때로 마찰도 야기되었지만 양국의 교류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여기에는 발해의 뛰어난 외교 능력이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그것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 정세를 이끌어 나가는 용의주도한 판단과 대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외교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한 밑거름은 오고 가는 만남을 통해 맺어진 사람들 사이의 깊은 교감과 신뢰가 아니었을까?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 다양한 교류와 외교 능력이 요청되는 오늘날, 발해의 외교로부터 일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동아시아 해양강국 발해

윤재운 | 동북아역사재단 |

渤海

2 004년 TV 드라마 「해신」이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이 드라마는 현재의 전라남도 완도를 근거지로 하여 동아시아 삼국의 무역을 장악했던 해상왕 장보고의 활동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즉 남북국 시대의 북국, 발해의 해양활동이나 무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장보고는 주로 중국의 산둥반도 일대, 일본의 큐슈 지방, 한국의 서남 해안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즉, 황해·남해 등지에서 활약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발해의 경우 황해뿐만 아니라 발해(발해만 안쪽의 바다)·동해를 아우르는, 말 그대로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바다에서 활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발해는 왜, 어떻게 동아시아의 바다에서 활발한 해상활동을 했을까?

❁ 당나라의 경제체제와 조공무역

발해의 해양활동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당시 동아시아 전체의 무역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동아시아의 무역 상황은 당의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당은 당시 동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이었고, 최대 수입국이었기 때문이다. 역사 이래 동서 문물교류의 주요 통로였던 실크 로드(Silk Road, 絲綢之路)는 당나라 후기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는 무엇보다 당의 경제적 번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우선 전통 산업인 농업 부문에서 농업 생산력이 증진되었다. 개간을 통한 농경지 확대, 수리 관개의 확충, 신품종의 도입에 따른 품종의 다양화가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켰고, 이로 인한 농촌 경제의 활력은 특산물과 잉여 생산물에 기반을 둔 상업을 발전시켰다.

상업의 발달은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는 등 일련의 경제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까지 실크 로드를 통한 서역 물자의 수송에 의존했던 수급 기반의 한계를 초래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상 실크 로드를 통한 물자 수송이라는 혁명적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농업 생산력의 발달은 먼저 농기구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축력과 견인력, 소형의 농기구 등의 등장으로 심경(深耕)이 가능해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개 농기구도 발달하여 생산성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또한 윤작체제가 고도화되어 이년삼모작(二年三毛作)과 이모작(二毛作)이 보급되었고, 이를 향상된 시비 기술과 파종 기술이 뒷받침했다. 뿐만 아니라 경작 품종의 다양화와 신품종의 보급으로 특히 미곡의 생산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잉여 농산물의 상품 작물화이다. 또한 농가의 부업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는 상업의 발달로 이어졌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 간접자본의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었다. 우선 역전제도(驛傳制度)를 개선·정비하고 운하를 보수·정비했다. 개원통보(開元通寶)의 주조에서 보듯이 화폐를 통일하고, 도량형에서도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조용조(租庸調) 세법을 정비하여 일반 농민들까지도 유통경제에 편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업을 직접 담당하는 전업적 상인 세력 내지 중간층이 대두하여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이른바 부상층(富商層)의 관계(官界)로의 진출은 당시에 나타난 뚜렷한 사회 변화 중 하나였다.

상업 발달이 도시화 현상을 가져온 것은 물론이다. 관리·부호·지주의 거주지이자 행정적·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고대 도시는 점차 상업 내지 상공업에 기반을 둔 경제적 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변해 갔다. 이와 함께 유통경제의 보급·확산, 상인 활동의 장으로서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 유통 기구가 형성됨으로써 농산물의 집하(集荷)와 유통, 원격지 상품의 농촌으로의 반입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당나라 시대의 국제 간 무역은 조공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조공무역은 정부가 통제하고 운영하는 수출입 무역으로 일종의 공무역이다. 당나라 전기까지는 조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중국이 조공무역을 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중화(中華)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였다.

중국은 넓은 지역을 통치한 만큼 주변이 이민족들에게 에워싸여 있었다. 중국은 언제나 이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중국으로서는 이들과의 조공무역을 통해 서로 오가면서 적대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게 유리했다. 중국의 조공무역은 중화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었지만, 주변국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외교 수단이기도 했다.

조공제도는 진한(秦漢) 시대에 부분적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를 거치며 제도화되었고 수당(隋唐) 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전했다. 중국과 주변국 간의 대외교역은 공식적으로 조공을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을 통한 견사공헌(遣使貢獻)은 일종의 해상무역이고 사행선단(使行船團)은 무역선이라 할 수 있었다.

조공무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공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자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에 조공 사신을 더 많이 파견하려고 했다. 초기의 조공무역은 국경을 접하거나 인근에 있는 국가에 한정되었으나, 조공무역의 이익이 널리 알려지면서 조공국은 보다 확대되었다. 특히 당나라 중반에 이르러서는 인도와 중동 일대까지 확대되었다.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공무역이 시작된 것은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당에 조공사(朝貢使)를 파견하면서부터이다. 중국은 주변 국가와의 대외무역에서 공무역인 조공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인의 사무역은 엄격히 금지했다. 조공을 통해 주변 국가는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입하고 왕공(王公)·귀족의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경제적 이권을 독점할 수 있었고,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물화(物貨) 교환을 전제로 경제적 욕구도 만족되었으므로 조공무역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업 경제의 발달에 따른 상공업의 발전은 점차 조공무역 체제를 변화시켰다. 특히 당나라 중·후기를 거치면서 농업 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상업 발달은 농촌 경제력을 향상시켰고, 경제력의 향상은 소비재의 수요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진이 발호하자 당 왕조를 지탱해 왔던 조공무역은 쇠퇴하고 사무역이 발달하게 되었다.

❁ 무역의 형태 및 종류

남북국 시대의 무역 형태는 크게 무역을 행한 주체에 따라 공무역(公貿易)과 사무역(私貿易)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자교역과 호시(互市)를 통한 교역활동이 그것이다.

먼저 조공무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음으로 조공무역과 구별되는 것으로 호시(互市)를 통한 교역을 들 수 있다. 호시의 설치와 운영은 중국 황제의 허가에 의해 소재지 정부나 관인의 관리와 감독 아래 행해졌다. 일반적으로 호시에서 교환하는 것은 말이나 소·낙타 등이었다. 남북국 시대의 예로는 이정기(李正己) 일가가 지배하던 시기의 치청번진(淄靑藩鎭)과 발해 사이의 교역을 들 수 있다. 이 때 당이 주는 것은 발해 지배층이 필요한 견(絹)·백(帛) 등의 직물이어서, 소위 ‘견마무역(絹馬貿易)’이라고도 하였다.

교역의 형태면에서 조공무역이 공무역의 범주에 든다면, 상인들의 활동에 의한 교역은 사무역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조공사절단으로 간 사람 중에 개인적으로 한 무역이나 해상세력에 의한 것도

사무역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사무역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외교사절을 통한 부대적 무역을 들 수 있다. 조공에 의한 부대적 무역이 발달한 것은 조공 자체의 성질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공무역에서 무역 범위가 확대된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즉, 조공에 의한 부대적 무역은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파견된 외교사절단에 의해 공식적인 업무가 끝난 뒤에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조공무역의 활성화는 곧 조공에 부수하는 사무역의 발달로 직결된다.

사무역을 경영한 세력의 두 번째로는 지방세력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장보고(張保臯) 등을 들 수 있는데, 발해의 경우에는 재지세력가인 수령(首領)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사무역을 경영한 세력으로는 민간 무역업자, 즉 상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장춘(長春), 발해의 민간 무역업자 이광현(李光玄)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나 일본 육국사(六國史)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발해와 당의 교류

발해는 당과의 투쟁 속에 건국되었고, 당·일본과 각각 713년·727년에 국교(國交)를 개시하였으나 항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당관계의 경우는 무왕 때의 흑수말갈 문제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인해, 대일관계의 경우는 무왕 때의 군사전략적 차원에서의 외

교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변 나라와의 무역도 계속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발해의 3대왕 문왕은 문치(文治)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의 문물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그가 사신을 당나라에 자주 파견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57년 재위 기간 동안에 61회 이상 사신을 파견하였고, 많을 때는 한 해에 4회 내지 5회나 파견하였다.

한편, 고왕(高王)과 무왕(武王)을 거쳐 계속적으로 수행되었던 말갈부족에 대한 정복활동은 문왕(文王) 초기에 불열부(拂涅部), 철리부(鐵利部), 월희부(越喜部)에 대한 복속이 단행됨으로써 일단 마무리되었고, 이러한 정복활동은 이후 선왕(宣王) 시대에 재개되었다. 그런데 740년대에 수행된 정복은 이들을 완전히 해체시켜 발해에 편입시키는 형태가 아니고, 수령을 통한 간접지배 방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발해의 통제가 약화되던 802년, 841년에서와 같이 다시 독자적으로 당에 조공하는 일이 벌어졌다.

발해는 신라·당과의 대립 상황 가운데 대중국·일본 외교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주변의 말갈부족을 포섭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말갈부족의 자율적인 대외통교를 발해왕권이 독점하는 과정으로 되었던 것이다. 발해가 신라에 비해 지방세력(해상세력)과 민간 무역업자에 의한 사무역 관련 사료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발해의 재지세력이었던 말갈족 수령들이 740년대에 발해왕권에 의해 흡수되어, 당이나 일본 사절단에 관리들과 같이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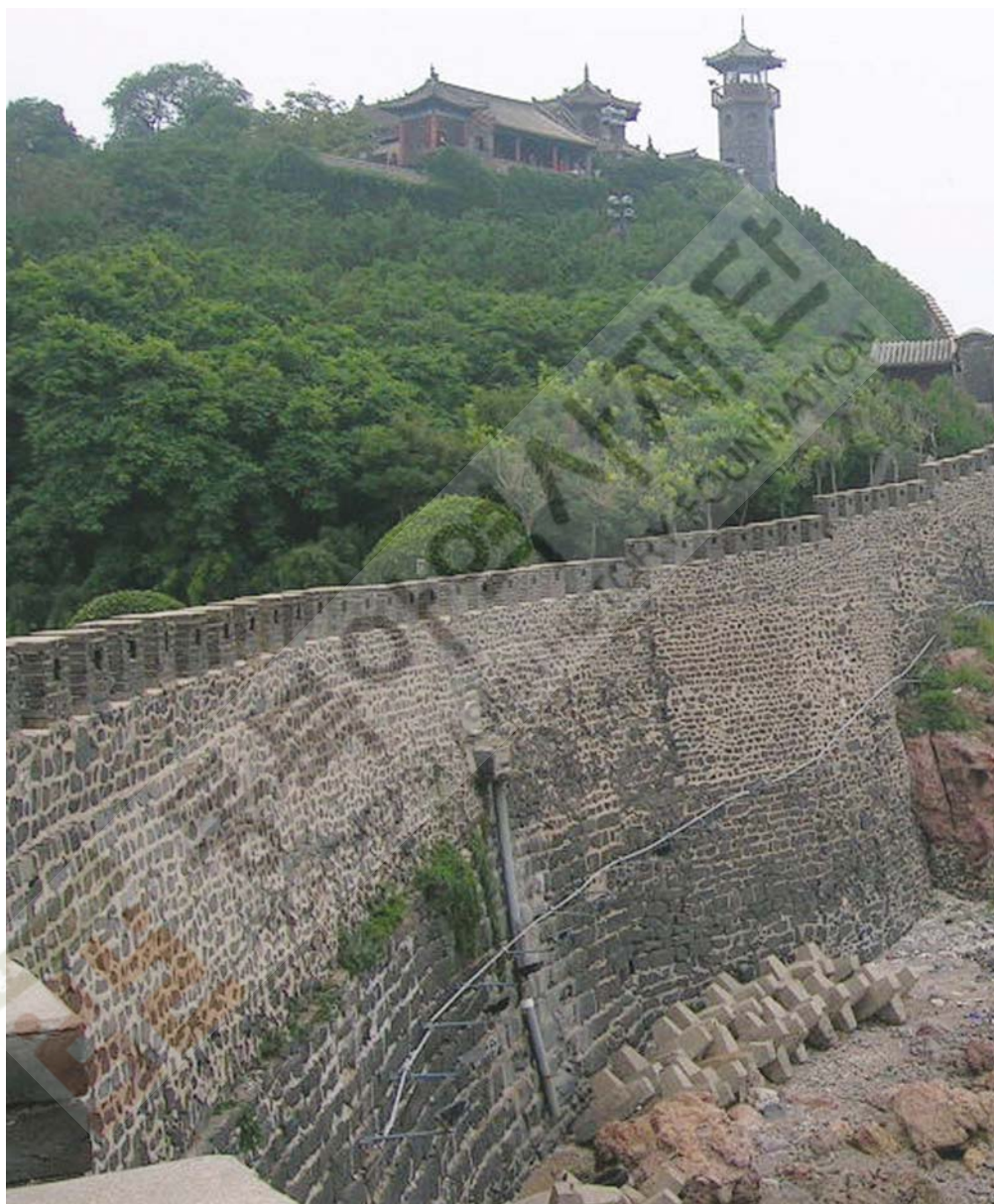
한편, 721~757년 사이에, 특히 문왕 전기에는 양국 사이에 신라도(新羅道)라는 교통로가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기

간에는 발해가 신라 국경선 가까이 진출하였고 신라가 이를 방비하였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양국 간의 교류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757년에 이르러 721년에 축조한 장성에 탄항관문(炭項關門)을 만든 것을 계기로 교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문왕 후기에 들어 양국 간에 상설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신라가 영흥만 일대를 영토의 북경(北境)으로 확정짓고, 675년에는 관성(關城)과 철관성(鐵關城)을 쌓아 교류의 관리·통제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발해가 8세기 초에 한반도 북동부에 진출하자, 신라는 이를 721년에 장성(長城)으로, 경덕왕대(景德王代, 742~765)에는 탄항관문으로 발전시켰고, 발해도 신라도(新羅道)에 남경 남해부(南京南海府)를 설치하여 교류의 관리·통제를 행하였다. 이를 통해 신라와 발해 두 나라에 의한 무역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왕 후기부터 선왕 즉위 전까지의 발해 무역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문왕 후기는 수도가 상경과 동경에 있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대당무역에서는 우선 안사의 난(755~763)이 주목된다. 당은 8세기 중엽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지방의 통제가 해이해졌고, 그 결과 각지에서 번진세력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고구려계 유민 출신인 이정기(李正己)·이납(李泐)·이사고(李師古)·이사도(李師道)로 이어지는 이씨 일가(李氏一家)의 세력이다. 그들은 신라와 해상교통이 편리한 산동반도 전역을 장악하고, 3대 55년간(765~819)이나 치외법권적인 번진세력으로 당내(唐內)의 소왕국(小王國)으로 군림하였다.

평로치청번진(平盧淄靑藩鎮)이 당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명(職名)은 ‘평로치청절도관찰사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平盧淄靑節度觀察使海



〈그림 1〉 | 산둥성 등주성 전경(발해 시절단은 압록강 하구에서 출발하여 요동반도를 거쳐 이 곳에 도착하였다



* 윤재운 제공

등주성 인에는 발해 사절단의 숙소인 발해관이 있었다)

運押新羅渤海兩蕃使’인데, 이 직명은 기미정책(羈靡政策)으로서 주변 제 민족을 통치하던 당이 변방의 국가 통치에 대한 업무를 부여할 때 제수(除授)하는 직명이다. 즉, 이 직책은 ‘신라와 발해의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그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할하는 장관’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구당서』 이정기 열전에 발해 명마(名馬)가 계속하여 이정기의 평로치청번진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 볼 때, 발해와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말이 당 조정과 대립관계에 있던 이정기 번진에 수입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는 안사의 난 때에 서귀도(徐歸道)가 발해에 기병을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정기의 치청번진에서의 무역활동을 소그드인이 주도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발해는 국력 신장을 위한 꾸준한 내적인 개혁과, 대당관계 특히 당 조정과 번진세력 사이에서의 적절한 외교를 통해 신라보다 국제적 위치에서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는 당시 안사의 난 이후 번진세력들의 할거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당이 이정기의 평로치청번진과도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는 발해를 회유하기 위하여 발해에 계속적으로 진봉(進奉)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정기 일가의 치청번진이 산동반도 지역에 있던 765~819년에 발해는 당 중앙정부와 이정기 번진과의 사이에서의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보다 국제정치·무역면에서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공무역의 가능자인 견당사(遣唐使)의 파견 횟수나 치청번진과의 견마무역(絹馬貿易)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대중국 무역에서 발해의 신라에 대한 우위는 이르면 치청번진의 소멸 시기인 819년, 늦어도 청해진 이 설치되는 828년까지는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 발해와 일본의 교류

발해와 일본은 빈번하게 접촉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발해가 일본에 34차례, 그리고 일본이 발해에 13차례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기존의 통설에서는 무왕~문왕 중반까지(762)의 왕권 강화기에는 무관 중심의 사절단이 파견된 것을 근거로 정치·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교섭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무관이 대사로 임명되는 것은 발해 초기에 행정·정치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기부터 무역·정치·문화 등 자국의 이해를 위해 파견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왕권 동요기는 여러 모순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문왕 중반부터 9대왕 간왕(簡王) 때까지(762~818)의 시기를 말한다. 문왕의 사후 발해의 대일관계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793년에 문왕이 사망하면서 내분이 발생하여 818년에 10대 선왕이 즉위할 때까지 25년 동안 정치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4대 폐왕(廢王)으로부터 9대 간왕(簡王)에 이르는 6명의 왕이 재위하였던 기간이 아주 짧았던 데에서 드러난다. 이 시기는 발해 내부의 정치 불안과 일본측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그다지 활발한 교섭은 없었다. 그러나 804년에 이루어진 일본의 발해객원(渤海客院) 설치의 발해와 일본의 외교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이후 발해의 객원(客院) 혹은 객관(客館)이 능등국(能登國)의 서쪽 방향인 월전국(越前國), 가하국(加賀國), 출운국(出雲國), 장문국(長門國)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발해의 외교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양국의 외교관계가 그만큼 긴밀해졌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외교교섭이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그림 2〉 후쿠라(福浦) 항구 전경(발해 사절단이 도착하던 항구. 발해 사절단은 염주(현재의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에서 출발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

뒷시기의 기반을 다졌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활발한 제도개혁과 대외 정복활동을 단행한 선왕부터는 발해의 중흥기 혹은 전성기에 해당한다. 이전 시기에 비해 사신단의 규모와 대사의 관직 등이 차츰 고정화되고 아울러 대외 정복활동으로 인한 수령의 고정적 참여 등을 통해 문물교류, 즉 경제적인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발해의 무역 형태는 공식적인 외교교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무역, 외교사절에 의한 객관에서 사무역, 그리고 지방세력에 의한 사무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라의 경우와는 달리 발해는 민간 상인의 활약이 보이지 않고, 공사(公使)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상인으로서 대일무역에 종사하였다. 신라인이 북구주(北九州)라는 일찍부터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교역의 무대로 한데에 비하여, 발해의 경우는 평안경(平安京)에서의 무역활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보다 공적인 신분으로 입경(入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발해 해상활동의 의의

발해는 건국기(고왕~무왕대)의 꺾끄러웠던 당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정치제도의 정비, 말갈부족 정복을 통한 국가 교역 시스템의 정비, 신라도 개통을 통한 남북교섭, 대외무역의 활성화 등을 이룬 문왕전기(737~756)가 무역망이 성립된 시기로 판단된다.

발해는 안사의 난 기간 중에 당 중앙정부와 반란군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고구려 유민 이정기의 치청번진과 당 중앙정부 사

이의 적절한 외교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무역면에서 신라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공무역의 기능자인 견당사의 파견 횡수나 치청번진과의 견마무역을 통해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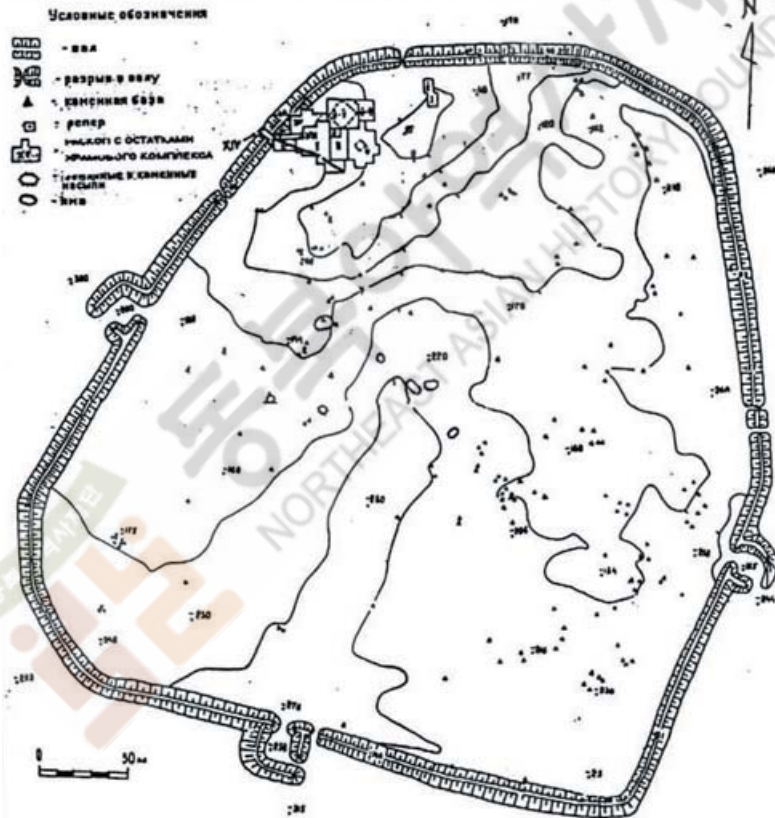
왕권 동요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즉위한 선왕은 활발한 대외 정책활동과, 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중흥의 기틀을 다졌다. 그 결과 사방의 경계와 5경(京)·15부(府)·62주(州)의 행정구역이 이 때에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수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발해는 외교를 통하여 수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해 나갔다. 그리고 수령을 회유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 일환으로 수령을 교역에 필요한 업무, 예컨대 물품의 수취와 운반에 참여시킴으로써 회유정책의 효과를 거두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배를 유지해 간 것은 특기할 만하다.

828년 청해진을 전진기지로 동아시아 해상무역 장악에 나선 신라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이진(大彝震)은 즉위 초 정국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정치·외교 담당층에 대한 개편을 시도한 듯하다. 이것은 왕제(王弟)와 왕자층(王子層)이 정치권에 참여하면서 대외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대이진은 장보고의 사망으로 미약해진 일본과의 관계를 역이용하여 선왕대에 유지했던 당-발해-일본의 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감으로써 해동성국으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유지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선왕의 중흥 노력에 힘입어 그 다음에 즉위한 11대왕 대이진(831~857)으로부터 12대왕 대건황(大虔晃, 857~871), 13대왕 대현석(大玄錫, 871~894)에 이르기까지 발해는 크게 융성하여 마침내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海東盛國)’이란 영예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를 바

탕으로 멸망 직전까지 활발한 대중국 무역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발해의 활발한 대중국 무역은 신라 정부와 신라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던 해상무역과 함께, 8~9세기 동아시아 무역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었고, 10세기 이후 거란·여진의 대외무역 발전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 크라스키노 성터 평면도



〈그림 4〉 크라스키노 성터(발해의 일본을 오고가던 사절단과 상인들이 머물던 장소로, 발해 때는 염주라고 불렀다)

渤海

새롭게 본 발해사



An aerial photograph of an archaeological site. The site features several rectangular stone foundations, some of which are partially submerged in a shallow stream or ditch. The surrounding area is a mix of brown earth, green grass, and some trees. The overall scene suggests a well-preserved ancient settlement or a specific type of structure.

제 4 부

발해의 문화

- 발해의 매장문화
- 발해의 복식문화
- 발해의 건축문화

발해의 매장문화

윤재운 | 동북아역사재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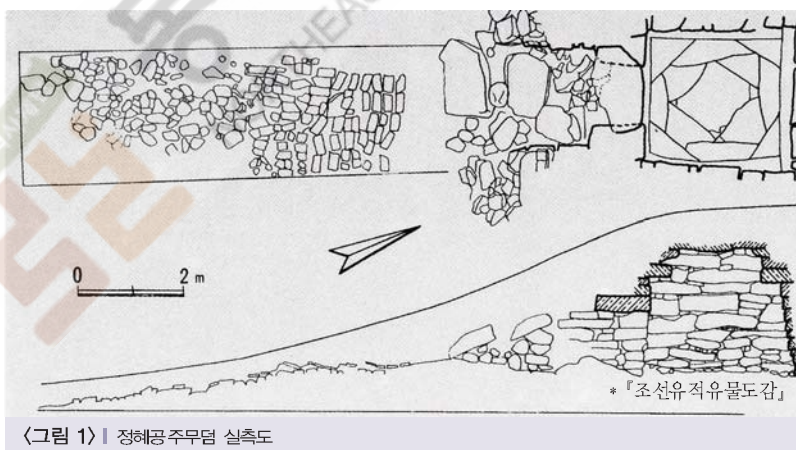
渤海

발 해 고분들은 구국(舊國)의 소재지였던 중국 길림성 돈화시(敦化市)를 비롯하여 상경성·서고성·팔련성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서경의 관내였던 길림성 통화(通化) 지구, 남경의 관내였던 함경도 지역을 비롯하여 변방에 해당하는 길림시(吉林市) 지역, 러시아 수분하(綏芬河) 유역, 연해주 일대에서도 고분들이 조사되었다.

중국에서는 50여 곳에서 2,000기 가까이 발견되었고, 이 중에서 150기 이상이 발굴되었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함경남북도 일대에서 발해 고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20여 곳에서 2,000기 가까이 확인하였고, 100여 기를 발굴하였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2~3곳에서 10기 미만의 극히 적은 숫자의 고분만이 발견되었는데, 성터나 주거지, 절터 유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사가 부진한 실정이다.

주요한 고분군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돈화시에 있는 육정산(六頂山)고분군에는 모두 80여 기의 무덤이 있으며, 이 중에서 32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특히 1949년에 정혜공주(貞惠公主)무덤이 발견됨으로써, 이 곳에 발해 초기의 왕족과 귀족들이 묻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 육정산고분군에서 가장 주목할 고분은 정혜공주무덤이다. 이 무덤은 제2고분군 내에 있는데, 약간 경사진 지면을 정지(整地)한 후, 지하에 묘실을 축조하였다. 고분은 묘실(墓室), 연도(羨道), 묘도(墓道)로 구성된 단실묘(單室墓)의 봉토석실분(封土石室墳)이다. 묘실의 형태를 보면 규모는 길이 280~294cm, 너비 260~284cm, 약간 길이가 긴 방형의 구조이고, 높이는 바닥에서 정중앙의 천장까지 260cm를 유지하고 있다. 축조는 현무암과 용암을 이용하여 벽면을 구축하였는데, 벽면은 위로 갈수록 약간 안으로 내경(內傾)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천장은 평행고임의 형식으로 가구하면서 정상부에 판석을 덮어 마무리한 형



〈그림 1〉 정혜공주무덤 실측도



〈그림 2〉 육정산고분 전경

식이다. 벽면에 백회를 발랐으나 이미 탈락되고 바닥은 장방형의 벽돌을, 그 위에 목탄과 모래를 깔았다. 연도는 남북 중앙에 설치하였는데, 길이 174cm, 너비 110cm, 그리고 높이 140cm이며, 연도의 천장은 평천정으로 판석을 덮었다. 연도 앞의 묘도는 길이 11m, 너비 245cm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서고성에 가까운 화룡현 용두산(龍頭山)고분군에서도 1980년에 정효공주(貞孝公主)무덤이 발견되어, 이 고분군에 있는 10여기의 무덤 역시 발해 왕실과 귀족들의 것임이 밝혀졌다. 위치는 길림성(吉林省) 연변(延邊) 조선족(朝鮮族) 자치주(自治州)의 화룡현(和龍縣) 용수공사(龍水公司) 용해대대(龍海大隊) 용두산 위에 있다. 용두산은 남쪽에서 북으로 뻗으면서 약간 만곡된 산의 중간부에 서향으로 전개된 구릉이 있고, 고분군은 이 산의 말단부에 남향한 형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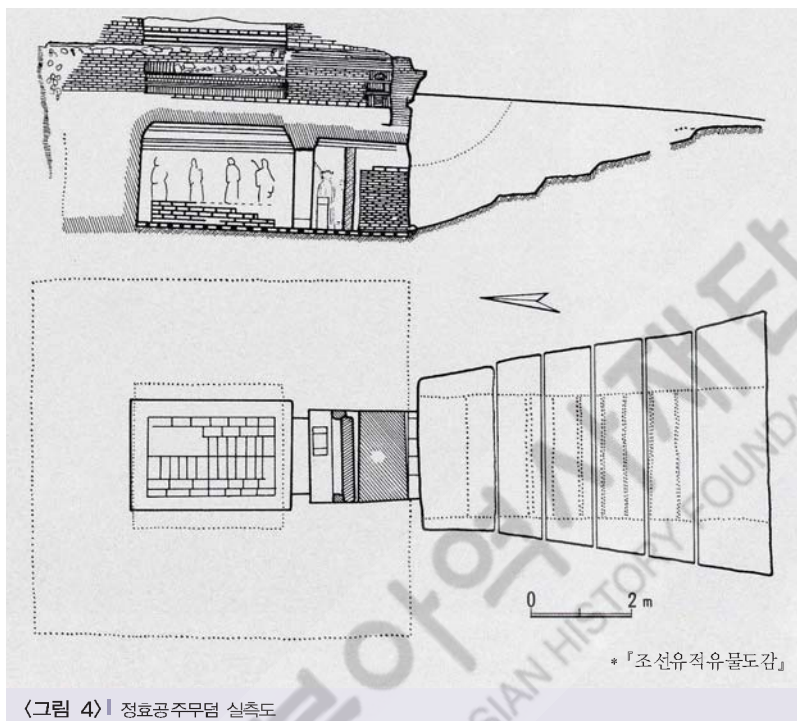


〈그림 3〉 정혜공주무덤 묘도

* 『조선유적유물도감』

정효공주무덤은 남북향 170도의 장축을 지니고 있으며, 벽돌과 판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연도와 묘도를 갖춘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묘도, 묘문(墓門), 연도, 묘실과 탑의 5개 부분으로 구분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 중 탑신은 이미 붕괴되었고, 다만 탑의 기단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체 규모는 남북의 길이 15m, 동서 너비 7m인데, 이미 오래 전에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인 묘비와 함께 벽화견본기도판(壁畵見本企圖版), 도자기 조각, 도금한 동식(銅飾), 동모식정(銅帽飾釘) 등이 수습되었고 아을



〈그림 4〉 정효공주무덤 실측도

러 인골이 수습되었는데, 모두 31점으로 남녀의 것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 여성의 것이 5점, 남성의 것이 26점으로, 골격에 의하면 여성은 156cm, 남성은 161cm의 키에 나이는 치아에 의해 대략 25~45세로 추정한다. 여성의 경우는 당연히 정효공주로서 36세에 사망하였다는 점과 일치하고, 남성의 골격은 발해고분이 부부합장이란 점을 근거하면 정효공주의 부군(夫君)으로 추정한다.

1971년에는 화룡현 팔가자(八家子)에 있는 하남둔고성(河南屯古城) 안에서 부부 무덤이 발굴되었다. 고분은 모두 장방형 형태의 묘실을 지니고 있다. 묘실은 길이 240cm, 너비 140cm이고, 현존하는 깊이는



〈그림 5〉 정효공주무덤 현실 동벽 인물도

47cm로서 대동소이(大同小異)하며, 바닥은 방형의 벽돌을 깔았고 벽은 장방형의 벽돌로 축조하였는데, 이들 벽돌은 청색이 나는 것이다. 방형의 벽돌은 한 변이 35cm, 두께는 5cm이고, 장방형 벽돌은 길이 34.5cm, 너비 15.5cm, 두께 4.5cm이며, 두 기의 고분 간 거리는 4.5m로 인접한 것이다. 천장은 대판석 8매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봉토가 조성되어 있는데, 장방형으로 길이 28m, 너비 20m이고, 위에는 초석 형태의 석재가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다. 묘 앞에는 아직도 초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무덤의 전면에 도굴갱이 있는데, 이 곳에서 벽화가 있는 회벽편(灰壁片)이 수습됨으로써 벽화무덤일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상경 부근의 삼릉향(三陵鄉) 삼성촌(三星村)에서 확인된 삼릉둔(三陵屯)고분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분군 주위에는 길이가 약

450m 되는 일(日)자형의 흙벽이 둘러싸고 있고, 3기의 무덤이 북쪽 구역에 삼각형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1호묘는 일제강점기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2호묘는 1991년과 이듬해에 발굴되었다. 이 무덤들은 대체로 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다.

1호묘는 반지하식으로 쌓았고, 남향하고 있으며, 현실·연도·묘도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는 약 7m로서 바닥을 경사지게 만들었고 길 좌우는 돌로 쌓았다. 현실 남벽 가운데에 낸 연도는 길이가 4m이다. 현무암을 정교하게 가공하여 서로 맞물리게 하면서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현실을 쌓았는데, 벽의 표면에는 희철한 흔적이 있다. 현실 크기는 길이 3.9m, 너비 2.1m, 높이 2.4m이다. 천장은 꺾음식 천장을 하고 있고, 봉토 위에는 주춧돌이 동서로 길게 줄지어 각각 4개씩 있고 주변에 기와 조각들이 널려 있어서 건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호묘는 지하식으로 남향하고 있고, 역시 현실·연도·묘도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는 13단의 흙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 9.8m, 너비 2m이다. 연도는 현실 남벽 가운데에 있고 바닥에는 현무암 판석을 깔았으며 길이는 2.7m이다. 현실은 현무암으로 7층 정도를 쌓았는데, 길이 3.90m, 너비 3.30m, 높이 2.45m이다. 현실 천장은 3층의 말각 천장으로 하였고 연도는 1층의 평행고임천장을 하였다. 이 무덤에는 모두 15인의 인골이 출토되었고, 현실과 연도의 벽 및 천장에는 인물과 꽃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상은 대형의 석실봉토묘나 전축묘로서 왕실이나 상층 귀족들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보다 낮은 계층의 무덤은 중형이나 소형의 석실묘·석곽묘·석관묘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 세력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이 안도현(安

圖縣) 동청(東淸) 고분군이다.

이 고분은 1990년에 발굴 조사한 것으로, 동청은 장백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상경에서 장안으로 가는 통로로 추정하는 곳이다. 조사된 고분은 10호를 제외한 9기는 두 줄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 중 10호분이 토광묘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석축의 단실묘들이다.

형태는 입구를 남북 중앙에 설치하였으나 연도는 없으며, 묘도의 경우는 하나의 통로 형태로 설치한 것이다. 규모는 차이가 있으며, 구조 형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2·3·7·8호는 발해 고분 중에서는 규모가 큰 것인데, 이들은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이들은 경사의 윗부분에 지면을 수평으로 하고 묘실을 축조하였는데, 묘실을 중심으로 기단식 무덤 구역을 이루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특색을 보인다.

조사결과 6호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인골이 수습되었는데 단인장, 합장, 다인장의 형태로 장식(葬式)은 일차장(1次葬), 이차장(2次葬)이 병용되나 특히 8호분은 화장이고, 9호분은 합장의 일차장 후 다시 화장한 상태이다. 특히 1호분의 경우 하나의 묘실에 상하로 이차장 두벌 묻기법이 실시되었는데, 일차장으로 널판 3개를 동서로 나란히 두었고 위층에는 8구에 달하는 인골이 무질서하게 남아 있었다.

출토유물은 모두 100여 점인데, 토(土)·석(石)·동(銅)·철(鐵)·은(銀)·마노(瑪瑙)·수정 등이다. 토기는 8점으로 단지 6점과 토기병 2점이 있고, 동기(銅器)는 머리비녀·띠고리·띠돈이, 철기로는 말안장·말자갈·활촉·칼끝·창끝·띠고리가 출토되었다. 특히 장식품 15점은 대부분 1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은귀걸이, 수정구슬, 마노구슬이 주목된다.

한편, 영길현(永吉縣) 양둔(楊屯) 대해맹(大海猛) 유적이나 우수현(榆樹縣) 노하심(老河深) 유적 등에서는 발해 시대의 수혈식 토광묘들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무덤들은 말갈적 전통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발해에 편입되었던 말갈족의 고분 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밖에도 함경도 지역과 연해주 지역에서도 발해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함경도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는 평리고분과 궁심고분을 들 수 있다. 먼저 평리고분은 청해토성 인근에 있는 고분군으로 고구려 고분과 함께 약 600여 기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고 이 중 50여 기가 조사된 것으로 전한다. 조사된 고분은 연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는 석실봉토분이고, 안길이 있는 것은 중앙식과 편재식이 혼재한다. 규모가 큰 경우는 천장이 평행삼각천장이고, 이외는 평천장의 유형이다. 대체로 강돌을 이용하여 벽을 축조하고, 천장은 평석을 올렸는데, 바닥에는 강자갈을 깔 경우가 많으며, 출토유물은 질그릇과 자기 등이 전한다.

궁심고분은 회령군에 위치한 고분군으로 300여 기가 하나의 군을 이루는 지역이다. 잔존된 고분은 모두 방대형의 외형인 석실봉토분으로 이 중 5기가 조사된 바 있다. 잔존된 외형은 정상부에 봉락된 흔적이 있고, 1기는 도굴된 것으로 확인된다. 축조는 경사면에 정지(整地)한 다음 묘실을 지상식으로 축조한 형식이며, 사용한 석재는 모두 할석이다. 묘실은 장방형으로 연도가 설치된 횡혈식 구조인데, 연도의 위치는 3기는 남벽의 중앙에 2기는 편재의 연도이다. 천장은 양벽을 윗부분에서 약간 오므린 상태지만 모두 평석을 사용한 평천장이며, 일부에서는 평행고임의 흔적을 보이는 것도 있다. 묘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지



* 『조선유적유물도감』

〈그림 6〉 | 함경북도 회령군 소재 공심고분군 12호 무덤

만 3기는 불에 탄 흔적을 남기고 있다. 바닥은 진흙다짐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출토된 유물은 자기제품, 청동고리와 청동장식품, 질그릇, 철제품이 약간 보일 뿐이며 3호 무덤에서는 3개체분의 인골이 안치되었는데, 하나는 유아의 것이며 모두 불에 탄 형태이다.

연해주 고분은 러시아의 연해주 강가에 있는 고분으로 주변의 절터 조사과정에서 함께 조사된 것이다. 고분은 분구형(墳丘型)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매장시설은 너비 약 12m에 높이가 140cm 정도 규모의 분구이며, 유구는 현무암을 축석(築石)한 형태로 전한다. 조사는 5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는 이미 분구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연부가 있는 토기편을 비롯하여 철부(鐵斧), 철촉(鐵鏃), 대금구(帶金具), 석기 등의 유물과 다량의 골편(骨片)이 수습되었고 고분 자체는 이미 도

굴, 파괴가 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더불어 묘광이 파괴되어 부식토로 매몰된 상태였으며, 장방형의 형태로서 너비 100cm, 길이 370cm의 규모로 추정하고, 장축은 남북의 방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골편과 토기편 그리고 관옥(管玉) 16개가 출토되었다.

나머지 고분 중의 1기는 출토유물에서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보이지만 나머지 3기는 부장유물이 영세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구조와 관련된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한편, 연해주 크라스키노 지역에도 약 200여 기의 발해 고분이 남아 있고 이 중에서 1기가 1993년 조사되어 이들 고분이 토광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크라스키노 발해 고분은 지상에 성토하여 봉분을 만들고 봉분의 중앙에 토광을 점토로 조성한 형식으로 확인되는 특수한 형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해 고분에는 흙무덤·돌무덤·벽돌무덤 등이 있다. 흙무덤은 발해 건국 이전부터 유행하던 양식으로 발해 초기까지 지속되었다. 돌무덤은 다시 석실묘·석곽묘·석관묘로 나눌 수 있는데, 석실봉토묘가 발해 고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돌을 이용하여 무덤을 쌓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고구려적인 것으로서, 특히 석실봉토묘는 고구려 후기의 양식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정효공주무덤이 대표적이다. 벽돌무덤은 당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발해 중기 이후에 왕실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다. 이러한 것으로는 정효공주무덤과 마적달무덤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효공주무덤의 벽은 벽돌로 쌓았으면서 천장은 돌로 평행고임을 하여 당나라 양식과 고구려 양식이 결합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

다. 이 밖에 상경 부근의 삼릉둔 1호묘는 돌을 벽돌처럼 깎아서 축조하였다.

매장 방식으로는 단인장(單人葬), 이인합장(二人合葬), 다인합장(多人合葬)이 모두 보인다. 2인합장은 부부합장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인합장은 발해 매장습속의 특색인데, 대성자(大城子)고분이나 대주둔(大朱屯)고분에서처럼 주인공과 배장자(陪葬者)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예도 있다. 배장자는 적게는 1인에서 많게는 16인에 이른다. 이러한 배장자에게는 주인공과 혈연관계에 있었던 가족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노비나 부곡(部曲)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순장의 한 유풍(遺風)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의 배치 상태로 보아 1차장과 2차장이 모두 존재하며, 하나의 무덤에서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2차장 인골은 대체로 추가장(追加葬)에 의한 것이다. 1차장의 경우에는 목관(木棺)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목관 없이 직접 묻은 예도 보인다.

발해 초기에는 육정산고분군에서처럼 화장(火葬)도 유행하였다. 이것은 시신을 관에 넣은 채 무덤 안에서 불에 태우는 방식이다. 이러한 풍습은 중기 이후에 점차 사라진다. 이 밖에 육정산고분군에서는 사람 뼈와 함께 동물 뼈들도 출토되었다. 동물 뼈로는 말·소·개의 뼈들이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고분들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으로서 발해 초기에 유행하였다.

한편, 발해에서는 무덤 위에 건물을 짓던 풍습도 있었다. 삼릉둔 1호묘와 하남둔고분에서는 봉토 위에서 주춧돌이 발견되었고, 육정산고분군과 용두산고분군에서는 봉토에서 기와들이 다수 노출되었다. 이

러한 방식은 불교가 성행하면서 탑으로 대체 되었는데, 정효공주무덤과 마적달무덤은 승려의 무덤이 아닌데도 그 위에 벽돌로 만든 탑이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중국 학자들이 말갈의 풍속을 계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고구려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나 백제 고분에서 기와가 다수 발견되었고, 장군총(將軍塚) 정상부에 있는 건물의 흔적 등이 이를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발해의 복식문화

전현실 | 가톨릭대학교 |

渤海

7세기 후반에 성립된 발해의 문화는 이전 삼국 시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국 시대는 우리나라 고유문화에 바탕을 둔 시기로, 복식문화도 이에 따라 형성되었으나, 발해와 통일신라의 체제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이질적인 당나라의 문화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삼국 시대와는 다른 복식문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발해 복식문화를 구성하는 요인은 당 문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고유영역, 즉 문화적 계승에 따른 고구려 복식문화는 물론, 발해 건국 이전부터 발해 영역의 토착세력이었던 말갈의 복식문화까지도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발해의 남자 복식문화는 독자적 측면과 외래적 측면으로 구분되는 이중적 복식구조(二重的 服飾構造)의 특징을 갖게 되었는데, 독자적 측면은 피지배층의 복식문화로, 외래적 측면은 지배층의 복식문화로 구별할 수 있다.

발해의 복식문화는 남쪽의 통일신라와 함께 고대의 복식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를 이어주는 우리나라 복식문화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복(冠服)

관복은 문무백관이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나 조정에서 사무를 볼 때 착용하는 것으로 나라에서 지급한 제복(制服)을 말한다.

발해는 건국 초부터 외부세력의 변화 판도를 주시하며 돌궐, 당, 일본, 신라 등의 주변 국가와 수교를 꾀하는 등 국위를 신장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했는데, 국가 간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은 공식적인 일이므로 사신들은 자연히 그에 걸맞는 관복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발해 복식제도 제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관복제도는 왕권이 확립되고 제도와 기구가 정비되는 시기에 확립되며, 이후 관료제도의 정착과 관리의 위계질서를 위해 공복제도가 발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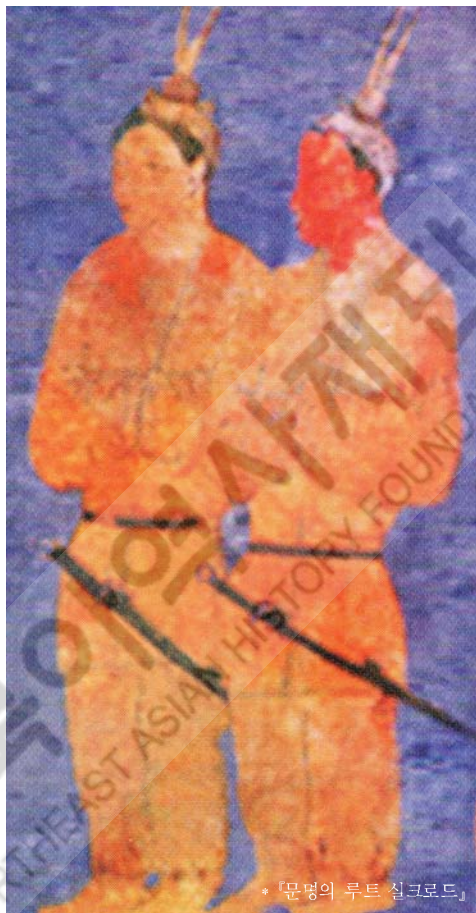
발해는 건국 후 1대 고왕(698~719)부터 2대 무왕(719~737)의 30~40년 동안은 국가 정비에 주력하였던 시기로서,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관복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새로운 국가가 건국되고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전 국가의 제도를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해도 건국 초기에는 그들의 문화 계승국인 고구려의 제도를 수용하였을 것이다. 발해의 건국 시점에서 멸망기까지 지

배계층에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은 고구려인이었고, 발해 유물의 상당수가 고구려 양식인 점으로 보아, 발해 초기에는 고구려의 문물제도를 그대로 계승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시기 발해의 관복은 머리에 변형관모(弁形冠帽: 고깔 형태의 모자)를 쓰고, 곤은 깃의 유(襦: 저고리 형태의 상의), 고(袴: 바지 형태의 하의)의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삼국 시대의 고유복식 형태를 8세기 전반까지 유지했을 것이다. 발해 초기의 관복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 7세기 말~8세기 초의 우리나라 사철의 모습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벽화 인물(그림 1)과 장희태자 이현(李賢)묘 벽화에 묘사된 인물(그림 2)의 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발해 건국 시기와 가장 근접한 시기의 벽화 인물들로, 당시에도 우리나라 고유복식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대 문왕이 즉위한 후 당나라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관복의 형태에서도 당나라 문화 요소의 이입이 시작되어 발해 후반기의 관복은 복두(幘頭)(그림 3), 단령(團領)의 구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발해의 복식제도에 대해 『신당서(新唐書)』 발해전에는 품계를 9품으로 나누고, 관복의 색은 각 품계에 따라 자(紫)·비(緋)·천비(淺緋)·녹(綠)의 4색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 1~5품까지의 계급은 홀(笏)과 어대(魚袋)를 착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발해는 지속적으로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파견된 사신들은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관직과 함께 의복류 및 의료들을 받았다. 이들이 722년부터 당나라 조정에서 받은 관직은 종5품에서 정3품에 해당되며, 이 관직에 따라 ‘자포(紫袍)·금대(金帶)·어대(魚袋)’나 ‘비포(緋袍)·은대(銀帶)·어대(魚袋)’와 같은 의복을 받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신당서』 발해전의 기록이나 당나라의 복식제도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즉, 발해 사신이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받은 의복은 당나라의 관복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발해의 관복제도가 정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발해 후기의 관복 형태는 정효공주묘 벽화에 묘사된 인물들(그림 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아프리카시암 벽화의 한인 사절

❁ 일상복

발해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여 이를 토대로 발해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말타기와 사냥을 기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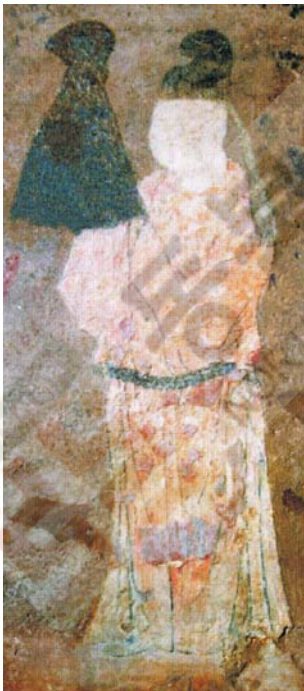


〈그림 2〉 | 이현묘 벽화의 한인



* 「조선유적유물도감」

〈그림 3〉 발해의 복두 형태 분류(왼쪽 : 약사, 가운데 : 복두를 쓴 인물, 오른쪽 : 내시)



「조선유적유물도감」

〈그림 4〉 왼쪽 : 약사, 오른쪽 : 내시

하는 생활 방식과 축국(蹴鞠)과 격구(擊毬)와 같은 놀이를 즐겨했던 풍습 등 고구려인들의 생활 및 복식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발해인들은 활동하기 편리한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형태의 복식을 일반적으로 착용했을 것이다.

1. 남자 복식

쓰개에서는 말액(抹額)과 변형 조우관(變形 鳥羽冠)에서 고구려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있고, 의복에서는 유(襦)와 고(袴)의 고유 복식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말액은 정효공주묘 벽화에 묘사된 인물 중에서 시위(侍衛)가 붉은색 말액을 머리에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 우리나라의 말액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려 있는데, “고구려 음악에 대해 『통전(通典)』(766년에 당나라에서 편찬을 개시하여 801년에 완성)에 이르기를, … 춤추는 자가 4명인데 붉은색 말액을 하고, 머리 뒤로 쇠몽둥이 모양의 상투를 틀고(椎髻), 금귀고리로 장식한다. 2명은 황색 유와 군을 입고 적황색 고를 입는다. 2명은 적황색 유, 군, 고를 입는데 아주 긴소매이다. 신발은 검은색 가죽으로 된 목화를 신고 쌍쌍이 나란히 서서 춤을 춘다. … 당나라 무태후(측천무후) 때까지도 25곡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한 곡만을 익힐 수 있을 뿐이고, 의복제도마저 점차 쇠미해지고 없어져서 그 본래의 풍모를 잃고 말았다”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사람의 모습이 고구려식 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보면, 고구려에서도 말액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쓰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위에 기록된 말액은 정효공주묘의 시위가 착용한 말액과는 착용자의 신분

이나 착용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나, 서로의 연관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는 고구려의 풍습이 발해로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형 조우관(變形鳥羽冠)은 아프라시아한인(韓人)과 장회태자묘의 한인이 쓰고 있는 관모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발해 초기에 귀족들을 중심으로 착용되었을 것이다. 조우관(鳥羽冠)은 우리나라 고유의 고깔 형태의 관모에 새의 깃(鳥羽)이나 새 꼬리(鳥尾)를 꽂아 장식한 것으로, 여러 기록을 볼 때 새 깃을 관모에 장식하는 것은 당시의 계급 구분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점차 관모에 장식하는 소재는 금속과 같은 딱딱한 느낌의 인공적인 소재로 변화되는데, 금이나 은으로 새 깃이나 사슴 귀 모양으로 만들어 관모에 장식하였고, 이는 여전히 귀족계급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발해의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과거 고구려의 풍습을 계승하면서 기마, 수렵, 축국, 격구 등을 즐겼는데, 이렇게 활동적이고 무풍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좁은 소매와 곧은 깃의 상의(유, 襦)와 좁은 폭의 바지(고, 袴)를 기본적으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지배층과 피



〈그림 5〉 | 시위의 말액 착용 모습(부분)

지배층의 의복 차별은 존재했을 것으로, 지배층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의복이 관복의 속옷이나 평상복으로 사용되었고, 관직의 유무나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의복의 폭이나 소재, 색상에 차이가 있었다.

발해의 주민으로는 고구려 유민 외에도 말갈인들이 있는데, 『구당서(舊唐書)』 말갈전, 『수서(隋書)』 말갈전, 『신당서(新唐書)』 흑수말갈전을 보면, 말갈 남자들은 칼이나 활을 익숙하게 다루었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고구려와 유사하게 쥘의 꼬리를 관모에 장식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갈인은 북방 기마민족의 생활풍습을 영위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해의 피지배층의 복식문화로 흡수되어, 고구려 유민의 복식문화와 함께 발해의 복식문화의 바탕을 형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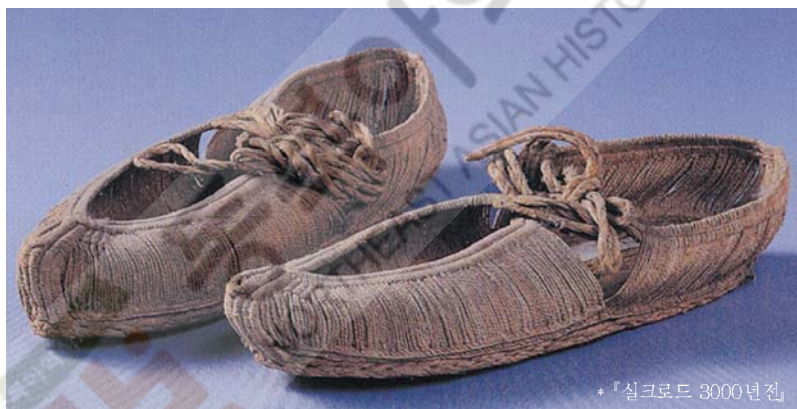
발해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정효공주묘 벽화의 인물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신목이 긴 화(靴)와 신목이 낮은 이(履)의 형태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바지를 화의 안에 넣어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였는데, 정효공주묘에서는 화를 바지 안에 넣어 착용한 것이 독특하다. 이 화는 발해의 대표적인 암모화(暗摸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에 “발해 사람들은 화를 만드는 데 능숙하였다. … 이 화는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암모화라는 명칭의 뜻을 알 수는 없으나 밤에 다닐 때 알맞아서 암모(暗摸)라는 명칭이 유래한 것이 아닐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암모화는 발해의 대표적인 생산물로서 가죽을 소재로 하는 목이 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해의 유물이 존재하지 않아 확실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신발을, 발해와 같은 시대의 일본 나라 시대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쇼소인(正倉院)의 오피육합화(烏皮六合靴)(그림 6)를 통해



* 『奈良朝服飾の研究 圖錄編』

〈그림 6〉 | 오피화(烏皮靴)



* 『실크로드 3000년전』

〈그림 7〉 | 투르판 아스타나 37호 고분 출토 마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육합화는 당나라의 모든 백관이 관복 착용시 신었던 신으로, 일본이나 발해에서도 이러한 육합화 만드는 법을 익히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암모화는 당 육합화의 형태에서 영향받은 정창

원의 오피화와 유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履)는 발등이 보이는 신목이 짧은 우리나라의 짚신과 유사한 형태로, 무사들이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었던 화의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 이 형태는 아스타나 출토 마선혜(麻線鞋)의 형태(그림 7)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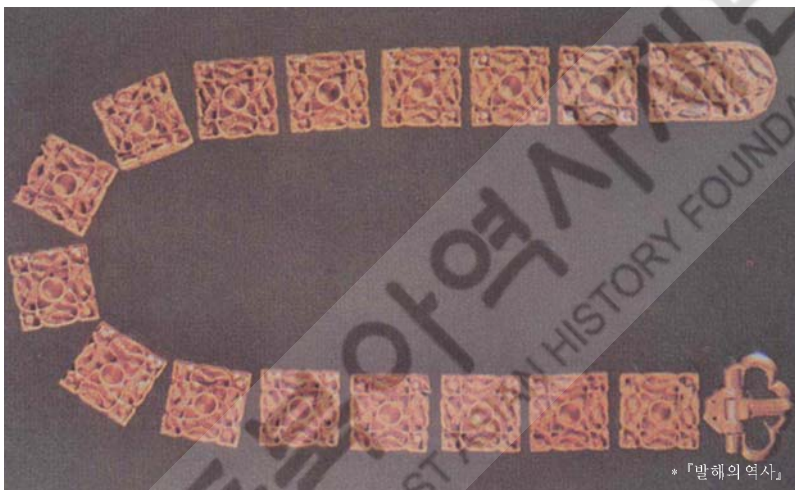
한편, 관복의 허리에는 대(帶 : 허리띠)를 둘렀는데, 발해의 남자들이 사용했던 대는 과대(鑄帶), 혁대(革帶) 두 종류가 있었다. 과대는 직물이나 가죽으로 된 대의 겉면에 과판(鑄板 : 장식판)을 붙여 만든 금속제 띠로, 대의 끝에는 버클 형태의 대구(帶鉤)를 걸어 띠를 고정시켜 착용하였다. 중국의 길림성·흑룡강성 등지, 러시아의 연해주, 북한의 함경도 등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당시 발해 지역에서 출토된 과대는 거의가 가죽에 금동·청동·철 등의 과판을 붙여 제작한 것이다. 길림성 화룡현 하남둔의 과대는 두 가지로, 하나는 가죽띠에 금 입자를 삽입하고 마디 홈에 수정과 터키석을 박아 넣은 장식 과판을 붙이고 중간에 3개의 가는 줄이 늘어져 있으며 양쪽 끝에 대구가 붙어 있는 것(그림 8)과 가죽띠가 부식되어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는 없으나 대구, 과판만 남아 있는 것(그림 9)이 있는데, 금속제의 과판으로 장식된 발해 과대의 형태를 짐작하게 한다.

혁대는 정효공주묘 벽화 인물들에서 볼 수 있는데, 단령의 허리 부분을 위로 끌어 올려 대를 두른 착장 형태가 모든 인물에서 나타난다(그림 10). 이러한 양식은 유목 기마민족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과대의 형식과 많이 유사하기는 하나 소재에 있어서 간소하며 폭이 좁고 길이가 길어 과대보다는 의례적인 기능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발해의 혁대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되는 것이 일본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혁대(그림 11)인데, 길이 125~170cm, 폭 2.6~3.2cm 정도이고, 흑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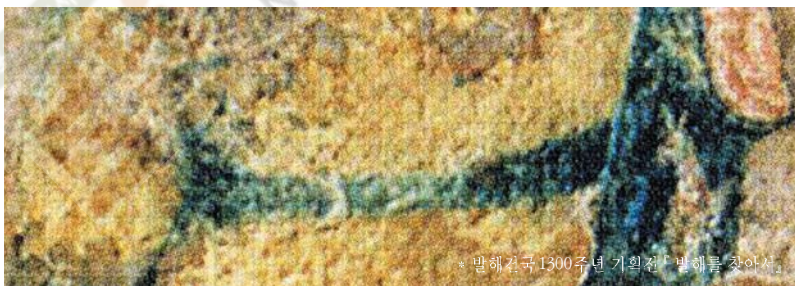
* 발해건국 1300주년 기획전
「발해를 찾아서」

〈그림 8〉 | 길림성 화룡현 하남둔 출토 괴대



* 「발해의 역사」

〈그림 9〉 | 화룡현 하남둔 출토 괴대



* 발해건국 1300주년 기획전 「발해를 찾아서」

〈그림 10〉 | 시충의 현대 착용 모습



<그림 11> | 현대

가죽을 봉재 하여 사용하였다.

2. 여자 복식

발해 여성의 복식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여인상(그림 12)과 길림성 용두산 부근에서 발견된 삼채여인상이 있다. 청동여인상은 쌍계(雙髻)의 머리 형태에 대수포(大袖袍: 소매가 매우 넓은 상의)를 입고 그 위에 운견(雲肩)을 착용했는데, 대수포 밑으로는 땅에 끌릴 정도로 긴 길이의 상(裳: 치마)을 입고 있다. 삼채여인상은 소매 길이가 긴 상의의 유(襦) 위로 긴 길이의 하의인 상(裳)을 덧입는 착장 방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당나라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방식(그림 13)으로, 상을 입고 그 위에 유를 덧입는 우리나라의 고유 양식과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두 유물의 여인상 모두 앞굽이 높이 솟은 고두리(高頭履) 형태의 신발을 신고 있는데, 긴 치마가 앞굽에 걸쳐지므로 치마가 길어 보행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 이는 발해 여성들이 당나라식의 의복과 착장 방식을 공통적으로 영위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일부 당나라식과는 다른 복식문화도 일부 살펴볼 수 있다. 즉, 당나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상의인 유 위에 반소매 옷인 반비(半臂)를 입고, 그 위로 어깨에 표(褙)라고 하는 술 형태의 의복을 들렀으나 발해 유물에서는 표 대신에 운견을 둘러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어,



* 『발해의 역사』

〈그림 12〉 | 청동여인상



* 『中國古代の服飾研究』

<그림 13> | 돈황 막고굴 103굴 약정괴부인 공양상

발해 여성들의 개성적인 착장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운건의 착장은 907년 당나라 멸망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발해 후기에 사용되었던 독특한 복식 품목이었다.

의복의 소재

『신당서』에는 각지의 대표적인 생산물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태백산의 菟(토끼), 남해의 昆布(다시마), 책성의 메주, 부여의 사슴, 막힐의 돼지, 솔빈의 말, 현주의 포(布), 옥저의 麟(슴), 용주의 주(紬), 위성의 철(鐵), 노성의 벼(稻), 미타호의 붕어(鯽)” 등이다. 이 중 일부는 발해에서 직조되거나 생산되었던 의료로서 발해의 복식이나 경제적 교류 품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발해의 의료는 크게 직물류, 가죽 및 모피류, 어피류의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발해는 지정학적 특징에 따라 가죽과 어피를 중심으로 한 의료가 대량 생산되었으며, 이는 대외적인 경제적 교류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요인이기도 했다. 발해의 활발한 경제적 교류는 국제적인 상호의존 체계에서 교역국가로서의 역동성을 이끌어 낸 것으로, 이를 통해 발해의 능동적인 문화 수용과 복식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1. 직물류

『신당서』의 직물에 관한 기록에, “현주의 포, 옥주의 면, 용주의 주(顯州之布, 沃州之麟, 龍州之紬)”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발해에

서도 방직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쪽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한랭한 기후로 다양한 품종이 생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마와 작잠사(柞蠶絲)가 주로 생산되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마직물은 역사가 오래되어 부여, 읍루 및 고구려에서 발달되었던 직물로서, 발해 건국 후 마직물의 제작 수준은 상당히 높아 그 중 좋은 품질의 포(細布, 白紵布)는 수출되기도 하였고, 마포의 생산량 또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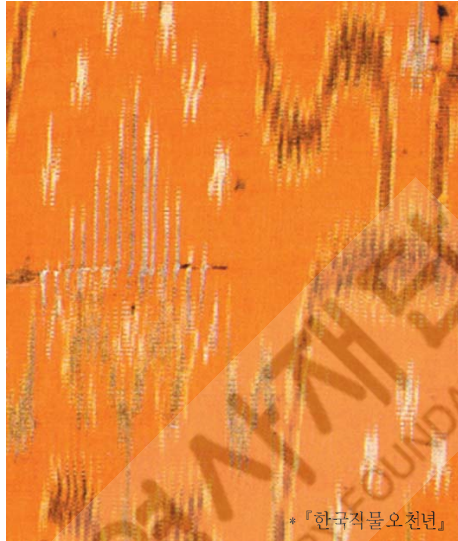
상경 용천부 관하의 용주는 주(紬)로 유명했는데, 주는 평직(平織: 날실과 씨실을 직각으로 교차하여 직물을 짜는 가장 기본적인 직조 방법)의 견직물을 뜻하는 것으로, 품질이 섬세한 것과 거친 것이 있었다. 748년에 “흑수말같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어아주(魚牙紬)와 조하주(朝霞紬)를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고급 견직물 제품으로, 발해의 영역인 흑룡강 중·하류 지역에도 견직물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하주는 자황색(紫黃色)을 띠는 붉은 계열의 주(紬)이다. 이는 천을 짜기 전에 경사나 위사를 부분적으로 염색하고 직조하여 마치 안개가 서린 듯한 염색직물을 짜는 기법으로, 이와 같은 염색법을 세계적으로 이캇(ikat)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7세기경의 이캇 유품이 호류지(法隆寺)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적황색을 바탕색으로 하는 경(經)이캇이다(그림 14). 또, 어아주의 ‘어아(魚牙)’는 물고기의 새끼가 부화되기 이전의 알 모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방울 무늬와 같은 작은 점 무늬가 교힐(絞纈: 홀치기염, 실로 직물의 일부분을 묶어 염색하는 방법. 실로 직물을 묶을 때 곡식알이나 작은 돌 등을 직물 안에 넣어 묶기도 하는데, 만들어지는 도안은 가운데가 비어 있는 작은 점무늬나 사각의 문양이 나타남)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교힐 직

물로는 중앙아시아의 신강 투루판 아스타나 85호 묘에서 발굴된 강지교힐(絳地絞纈) 직물이 있다(그림 15).

면은 남경 남해부 관할하의 옥주 및 함경도 일대에서 주로 생산되었는데, 이 곳은 면화 재배에 부적합한 지역이어서 여기서의 면은 면화가 아니라 누에에서 뽑은 풀솜을 말한다. 그런데 당시 일본에 파견된 사신단이 발해로 돌아올 때 일본으로부터 직접 다량의 솜을 가져왔는데, 이것으로 발해에서 생산되는 솜의 부족한 양을 충족시켰을 것이다.

한편, 일본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초기, 일본에 파견되었던 발해 사신 양태사(楊泰師)가 지은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들으며(夜聽搗衣)」라는 시에서 “이웃 여인이 두들기는 다듬이 소리,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져 바람을 따라오고 … 고국을 떠나면서 들어본 적 없는데 지금 타향에서 비슷한 소리를 듣네”라는 내용을 통해 발해에서 다듬이질의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듬이질은 모직물을 제외한 천연소재의 천을 방망이로 두들겨 부드럽게 하고 윤기를 내는 것으로, 이는 발해에서 이러한 천연소재가 생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14> 태자간도(太子間道)의 경(經) ikat



〈그림 15〉 | 교힐견(絞緞絹)

2. 가죽 및 모피류

발해 영토 중 북부와 동부 지역은 산이 높고 삼림이 우거지고, 매우 추운 기후인데, 발해에 병합된 말갈인을 중심으로 수렵과 어업이 주로 행해졌다. 이러한 기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물의 모피를 방한의로 착용하게 되는데, 피부에 닿는 면에 따뜻한 모피를 옷 안팎으로 붙여서 혹한기에도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헌에는 초피(貂皮 : 담비 가죽), 웅피(熊皮 : 곰 가죽), 호피(虎皮 : 호랑이 가죽) 등 각종 가죽에 관한 기록이 있다. 포획한 동물은 식용, 의료 등으로 사용되고, 그 가죽은 당나라와 일본 등에 수출되어 크게 환영받았다. 이러한 종류의 가죽들이 교역 품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발해인들이 갖고 오는 담비, 호랑이, 말곰 등의 모피

는 나라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일본 귀족을 중심으로 선호되었다.

당시 모피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화를 살펴보자. 919년 5월 12일, 발해 사신 배구(裴瑒)가 일본 조정의 연회에 초대받았다. 그는 모피 수출국의 사신답게 검은색 담비 옷(黑貂裘) 한 벌을 입고 참석했는데, 일본의 시게아키라(重明) 왕은 검은색 담비 옷을 8벌이나 겹쳐 입고 참석해 배구를 놀라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5월 12일은 음력 날짜로, 이를 양력으로 하면 초여름이다. 계절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비 모피옷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으므로, 과시적 수단으로 더위를 무릅쓰고 착용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일본 내에서는 모피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모피의 사치가 심했는데, 발해에서 생산된 가죽류는 일본의 상류층에서만 착용할 수 있던 귀한 상품이었고, 규제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일본에서 매우 유행했다.

3. 어피류

발해는 동해에 인접해 있고 송화강, 흑룡강, 우수리강 및 경박호 등의 하천과 호수가 있어 수산업이 발달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된 어피류는 의료 외에 수출품으로 이용되었다. 발해에서 생산된 수산물 중 의료로 사용했던 것은 치어(鱈魚), 해표피(海豹皮), 교어피(膠魚皮) 등이다.

치어는 바로 송어인데, 강 하류에 사는 어류이므로 발해의 동해·남해·서해 연안의 강 하류에서 생산되었다. 해표피는 바다표범(해표)의 가죽인데, 방습·방한용으로 인기가 있어 매우 귀하게 여겨졌고, 남해보다 동해(연해주 방면)에서 많이 잡혔다. 교어피는 그 실물을 잘 알 수 없으나 흑룡강 중·하류에서 잡히는 대발합어(大發哈魚)의 껍질



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변기략(柳邊紀略)』에 “대발합어의 껍질은 색상이 옅은 황색으로, 무늬가 있는 비단과 같고, 옷이나 버선, 신발을 만들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일에 종사하는 종족들을 어피달자(魚皮躡子: 고기껍질로 옷을 만들어 입는 동북 종족의 뜻)라고 하였다.

현재도 발해 영토였던 시베리아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는 나나이, 우루치, 기리아크족과 송화강 하류에 거주하는 오로치족들은 바다표범류나 바다사자 등의 수렵을 통해 식량뿐만 아니라 의복과 신발, 그 밖의 필수품의 재료를 얻고 있다. 어피는 이러한 용도 외에 천막의 덮개, 배의 돛, 배와 썰매의 짐을 포장하는 재료로 이용되었는데, 바다표범의 가죽과 모피는 비록 보온성이 높지는 않지만, 내수성(耐水性)이 강



〈그림 17〉 바다표범 가죽옷(海豹皮衣)

해 여름용 의복이나 신발의 소재에 적합하다.

어피의(魚皮衣)(그림 16)는 어피를 수십 장 바느질하고 봉합해서 만든 의복으로, 1902년 사할린에서 수집되어 베를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길이 50cm, 폭 95cm로, 개썰매를 이용하던 시기에 남성이 치마 형태로 허리에 둘러 착용하던 방한의이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박물관에 소장된 바다표범 가죽옷(그림 17)은 길이 84.5cm, 폭 113cm로, 왼쪽 깃부터 옷단까지 길게 모피와 색이 있는 직물을 두고 그 위에 자수했는데, 부드러운 담비털을 소매 끝에 덧붙였다.

4. 발해의 수입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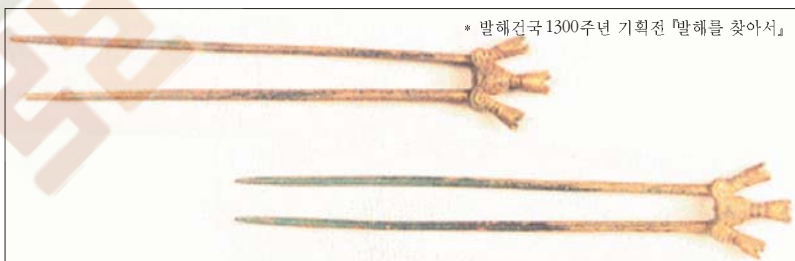
발해는 동물의 가죽이나 어피와 같은 의료를 주로 수출한 대신 당나라와 일본으로부터 각종 직물을 수입했다. 당나라로부터 수입한 직물류는 채련(綵練)·금(錦)·면(綿)·백(帛)·견(絹) 등이고, 일본에서 수입한 직물은 나(羅)·능(綾)·금(錦)·견(絹)·양면(兩面)·채백(彩帛)·면(綿)·포(布)·사(糸)로 그 종류나 수량에서 견직물류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당시 주(紬), 포(布)와 같은 일부 직물만 생산했던 발해에서는 각종의 견직물이 필요했을 것인데, 주변국가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그 부족함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장신구

발해에서는 비녀,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빗 등 각종 장신구를 사용했음을 출토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비녀와 빗은 피장자의 머리에 꽂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발해 여



〈그림 18〉 | 흑룡강성 훈춘어장 고분군 출토 U자형 비녀



『조선유적유물도감』
 <그림 19> | 함경북도 정문리 창덕 3호 무덤
 출토 귀걸이



* 발해건국 1300주년 기획전 『발해를 찾아서』
 <그림 20> | 흑룡강성 흥순어장 고분군 출
 토 목걸이

성들의 머리꽃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녀는 일자형(一자형), Y자형, U자형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채(釵)라고 하는 U자형 비녀(그림 18)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빗도 비녀와 함께 머리에 꽂아 여성의 머리를 장식한 것으로, 청해토성에서 발견된 뼈로 만들어진 빗이 전해지고 있다. 귀걸이는 삼국 시대부터 지배층의 남녀 모두가 착용했던 대표적인 장신구로서 금·은·동의 재료가 사용되었고, 귀에 닿는 환(環)의 굵기에 따라 세환식, 태환식으로 분류된다. <그림 19>는 작은 돌과 흙무덤 형식의 창덕 3호 고분에서 발견된 태환식 귀걸이로 수식(垂飾)은 없으나 고구려의 형식을 계승했을 것으로 본다. 목걸이(그림 20)는 구슬에 구멍을 뚫고 꿰어 만든 것이 대부분으로 재료는 수정, 마노, 호박, 벽옥 등이 사용되었다. 반지는 금·은·동으로 된 것이 출토되었는데,



* 「조선유적유물도감」

〈그림 21〉 육정산 고분군 출토 청동팔찌

장식이 없는 간단한 원형이다. 팔찌(그림 21)는 금·은·동·철이 이용되었는데, 표면에 무늬가 없는 원형 혹은 타원형이 나타나고 있다.

발해의 건축문화

이병건 | 동원대학 |

渤海

최근 중국에서는 2004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오녀산성, 환도산성, 국내성 그리고 집안 지역에 있는 고구려 유적에 이어 흑룡강성 영안시 상경성 유적을 비롯한 발해 문화유적을 2007년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유적정리 및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유적에 대한 정리사업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환영할 일이나 복원과정에서 한반도 지역을 비롯한 고구려의 건축문화적인 요소는 배제한 채 당의 장안성과 청의 자금성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발해는 건축을 비롯한 문화적인 면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보편성도 가지고 있지만 발해만의 특수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중국 중원 지역의 도성 제도를 채택한 부분도 있지만 고구려의 것도 동시에 채용하고 있어 올바른 복원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신중한 고

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발해 건축에 관한 유적 조사를 통해 발해국 자체의 독자적인 건축문화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해와 관련된 주변국들은 자국 건축물과의 일방적인 비교를 통해 그 상관성을 밝힐 뿐 발해국 자체의 건축문화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러한 결과로 발해를 비롯한 과거 만주 지역은 중국 중원 및 한반도 지역의 주변적 문화로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발해국 자체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당시 발해국과 그 주변지역 건축과는 어떠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하여 발해가 가지고 있었던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글의 전개 순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발해의 건축유적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발해가 가지고 있었던 건축적 독자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발해의 건축유적

발해국의 관할지역이었던 지금의 한반도 북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남아 있는 발해 건축유적으로는 도성유적, 궁전유적, 공공건물유적, 정원유적, 사찰유적, 살림집유적, 24개돌유적 등이 있다.

발해 도성유적 가운데 발굴을 통해 건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는 발해의 처음 도읍지였던 구국 오동성터를 비롯하여 중경 현덕부 서고성터, 동경 용원부 팔련성터, 서경 압록부 임강시가지성터, 남경 남해부 청해토성터, 상경 용천부 상경성터를 들 수 있다. 이들 도

성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특징은 첫째, 비옥한 농경지로 된 넓은 분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고, 한쪽에는 강이 흐르고 주변에는 산들이 에워싸고 있다. 둘째, 주로 내성과 외성의 이중성(二重城) 이상으로 조영되어 있다. 셋째, 도성 평면은 대부분 장방형 혹은 정방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 넷째, 성벽은 대체로 흙으로 쌓은 토성으로 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발해는 698년 대조영에 의해 건국된 후 제15대왕 대인선 20년(926) 멸망할 때까지 수도를 네 번 옮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국(현 길림성 돈화시 오동성)에서 중경 현덕부(현 길림성 화룡현 서고성)로 옮겼고, 두 번째는 755년에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현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상경성)로 옮겼으며, 세 번째는 785년에 상경 용천부에서 동경 용원부(현 길림성 훈춘시 팔련성)로 옮겼고, 네 번째는 794년 동경 용원부에서 다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상경 용천부는 발해 역사 229년 중 150여 년 동안 수도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발해 도성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경성터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도 다른 발해 도성에 비해 상경성이 규모도 가장 크고, 도읍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에 이어 당시 두 번째의 규모를 자랑할 만큼 규모도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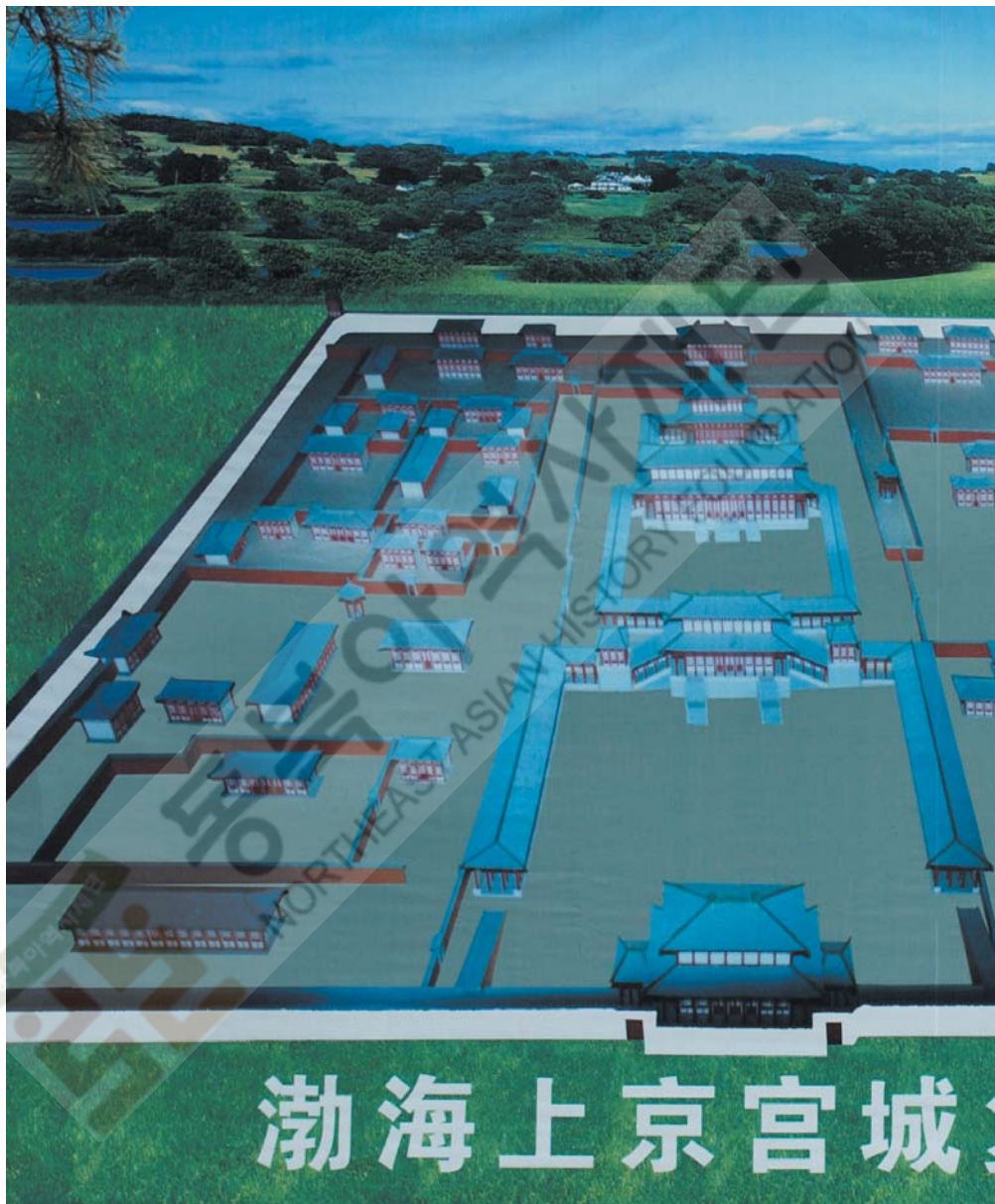
발해의 궁전유적으로도 대표적인 것은 상경성 궁전유적을 들 수 있다. 궁전은 상경성에서 가장 북쪽 영역에 속하며, 중심 공간인 궁성 안에는 37개에 달하는 많은 궁전터가 남아 있다. 상경성 궁성 공간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곳은 궁성의 중심부이다. 이 부분에는 궁성 남문(현 오봉루)과 북문을 잇는 일직선상에 5개의 궁전 건물이 배치되

어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남문을 시작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며 제1 궁전 → 제2궁전 → 제3궁전 → 제4궁전 → 제5궁전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건물들은 궁성 남쪽 벽에서 시작된 회랑들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만 제4궁전터와 제5궁전터 사이에만 회랑이 없다. 즉, 제5궁전은 일반 궁전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모나 전통적인 도성체계로 볼 때 제1궁전과 제2궁전은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정전 공간이고, 제3궁전과 제4궁전은 편전 및 침전 공간이었을 것이다. 또한 제5궁전은 다른 궁전 건물과 달리 바닥에서 떠 있는 누각식 건물로 추정되고 있다. 제1·2궁전터가 가장 크고 웅장하며, 제4궁전터에는 구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안으로 들어갈수록 회랑으로 이루어지는 안뜰의 폭과 길이가 점차 좁아지는데 제1, 제2, 제3궁전 앞뜰의 폭이 2.5 : 1.5 : 1 비례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앞뜰의 길이도 이와 비슷하다. 즉, 제3궁전터 앞뜰의 길이를 1로 보았을 때 제2궁전은 1.5, 제1궁전은 2.5로 늘어나는 비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 궁전 회랑 영역으로 볼 때 뒤로 가며 폭과 길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뒤로 가며 점차 작아지는 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심도를 더 깊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 규모는 뒤로 가며 커지는 것이 상례인 반면 상경성 경우는 동북아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물 배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경성 황성(내성·왕성)에는 궁성 전방, 즉 궁성 앞쪽에 있으면서 중앙행정기관인 삼성육부가 있었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금원



〈그림 1〉 | 상경성 궁성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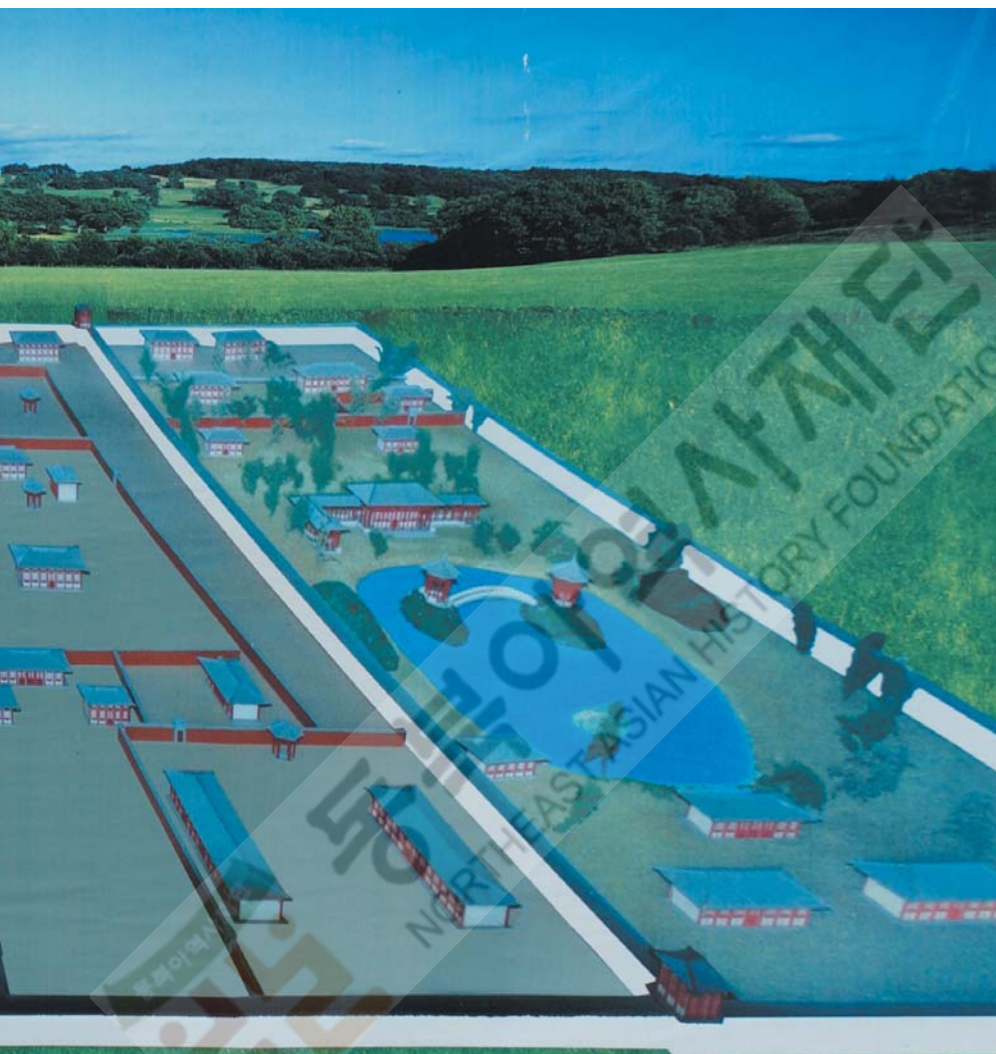
1. 발해의 성립과 발전

2. 발해의 변천

3. 발해의 대외교류

4. 발해의 문화

5. 각국의 발해사 인식



复原鸟瞰图

* 이병진 제공



* 이병진 제공

〈그림 2〉 | 상경성터 내 흥룡사(興隆寺) 발해 석등

(禁苑)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 곳에서는 10개의 관청터가 확인되었으며, 금원터에는 큰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2개의 인공산인 가산(假山) 위에 각각 정자터가 남아 있으며, 금원 주위에는 여러 채의 건물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한편, 발해 관할 아래 있었던 지역의 도성과 지방에서는 모두 사

찰터, 불탑, 불상 등의 유적과 유물이 다량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발해의 사찰유적으로는 상경 용천부 지역에서 12곳, 구국 지역에서 1곳, 중경 현덕부 지역에서 13곳, 동경 용원부 지역에서 10곳, 연해주 지역에서 4곳, 남경 남해부 지역 함경북도에서 2곳 등 총 42개 이상의 사찰터가 발견되었다. 사찰유적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찰이 동북아시아의 사찰 건축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특징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의 날씨가 추운 관계로 사찰의 중심건물인 금당 좌우로 종루와 경장을 한 공간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살림집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발해 시기 살림집 유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들은 상경성 궁성에 있는 서구살림집터, 궁성내 제4궁전터와 그 옆 서쪽별채터, 궁성 남벽 3호문터 부근 집터, 훈춘시 팔련성 제2궁전터, 훈춘시 양수진 정암산성내 병영터, 훈춘시 훈춘평원의 영의성 거주지유적, 훈춘시 영안진 솔만자촌 솔만자집터, 흑룡강성 영안시 단결촌 단결발해촌락터, 훈강시 송수향 영안촌 영안건축터, 소밀성, 통구령산성안, 함경북도 북청군 하오리 청해토성터내 집터,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 절골 발해절터의 북쪽1호건물터와 금산건물터, 연해주에서 발견된 집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살림집의 평면 및 구조 형식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은 상경성 궁성내 서구살림집터와 제4궁전터 서쪽에 있는 별채터이다. 이들 발해 살림집 유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첫째, 유적의 평면구성은 3개의 방이 일렬로 늘어선 ‘一’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양쪽 방에 가운데 방을 구성한 3칸 일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지금도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살림집들은 이러한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



〈그림 3〉 | 강동24개돌유적(중국 김림성 문화시 소재)



* 이병건 제공

1. 발해의 성립과 발전

2. 발해의 변천

3. 발해의 대외교류

4. 발해의 문화

5. 각국의 발해사 인식

다. 둘째, 살림집들이 모두 남향을 하고 있다. 셋째, 기단이 있고 그 주변에 물도랑을 돌렸다. 넷째, 살림집에는 퇴칸을 두르고 있다. 이 지역은 겨울 기온이 영하 25℃까지 떨어지는 추운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퇴칸 구성은 필수적인 평면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ㄱ’ 평면의 긴 고래구들을 놓고 큰 규모의 굴뚝을 설치했다. 온돌의 존재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모든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발해 건축의 특징이다. 한편, 집안 동대자(東臺子) 고구려 살림집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고구려 살림집과 발해 살림집이 동일한 유형임을 밝혀 주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온돌의 존재, 온돌의 구조 방법, 온돌의 형태이다. 발해의 살림집은 그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잘 결합된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고, 지금도 이러한 건축적 특징이 그대로 전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유형이 알려지지 않은 발해만의 고유한 건축 유형의 유적을 꼽는다면 ‘24개돌유적’이라는 것이다. 발해의 24개돌유적으로 그 소재가 확인된 것은 지금까지 총 12개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흑룡강성 영안시에 있는 상경 용천부로 가는 길목 가운데 돈화시 부근에 4개(강동24개돌·관지24개돌·해청방24개돌·요전자24개돌)가 있고, 이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경박호 부근에 2개(경풍24개돌·만구24개돌) 등 6개가 있다. 또한 동경 용원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가는 길목인 가야하 연안 왕청현 백초구진 흥룡촌에 1개(흥룡24개돌), 두만강 연안 교통 요충지에 2개(마패24개돌·석진평24개돌), 그리고 함경도 동해안 지역에 3개(송평구역24개돌·회문리24개돌·동흥리24개돌)가 발견되었다.

유적들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유

적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해 있다. 둘째, 유적은 발해 시기의 주요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24개돌유적이 있는 위치는 과거 발해의 주요 교통로와 일치한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셋째, 24개돌유적이 있는 곳 주변에는 발해 시기의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넷째, 유적은 지면으로부터 약 1m 정도 주춧돌이 솟아 있는 고상식(高床式) 건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춧돌 간격이 일반 건물보다 매우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토대로 이 유적의 형태 및 용도를 추정해 보면 24개돌유적은 바닥에서 떠 있는 건물이며, 주춧돌에 기둥을 세우는 일반적인 가구식 건물이 아니라 목재를 가로로 뉘어쌓는 귀틀집 형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발해 건축의 독자성

발해의 건축문화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 일본이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시작한 이래 발해의 영토를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해 계속되었고 최근 들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해 건축에 관심을 가져왔던 나라들은 각기 자국의 입장에서만 건축문화를 해석하고자 하여 발해국 자체의 건축문화는 소외시키는 오류를 범해 왔다. 건축문화를 형성하는 사항 가운데 기본이 되는 요인은 기후, 풍토를 포함하는 자연환경이 최우선이 되며,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문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발해의 건축 유형은 이러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음이 발해 유적을 통해 확인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입장은 자국과의 동질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자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할 뿐 발해의 독자적인 건축문화를 인정하지 않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발해만이 가지고 있었던 건축문화로 인정되는 예는 도성 건축에서 확인된다. 상경성은 평지에 세워진 발해의 도읍이다. 그런데 도성 전체 성곽 및 건물의 기단 부분은 현무암으로 쌓은 다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다시 석회를 발라 면을 마감하였으며, 주춧돌은 기둥 자리를 표시하는 주좌(柱座)를 새긴 것도 있지만 주좌가 없는 주춧돌의 경우는 주변국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었던 도기 제품의 기둥밑치레장식(주위, 柱圍)을 따로 제작하여 기둥 아래부분을 덮었으며, 기단 하부 기초부분에는 기단이 밀리지 않도록 기단 모서리에 'L'자 모양의 멈추개돌을 박아 놓았다. 이러한 건축구법 및 재료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성 주변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모두 현무암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무암은 화산암인 관계로 가공성은 좋지만 아무리 잘 다듬는다 해도 화강암이나 대리석처럼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미세한 구멍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극을 보완하기 위해 석회를 칠하거나 기둥밑치레를 따로 제작하는 기술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건축문화의 독자성에 대해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사항은 발해의 난방 방식인 구들의 존재이다. 북한에서는 발해의 고구려적 영향요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구들이다. 구들의 사용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발해국의 주민 구성은 고구려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갈계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금도 만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난방 방법으로 온돌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

한 구들의 존재는 고구려 및 발해만의 고유한 건축문화라고 하기보다 당시 그 지역의 보편적인 건축문화로 인정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모든 건축문화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병존하게 되며, 아무리 독자적인 것이라 해도 그렇지 않을 개연성도 항상 존재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발해 24개돌유적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발해만의 건축 유형이다. 전혀 새로운 별개의 건축 유형이 발해에 존재했다는 것은 발해가 당이나 고구려와는 별개의 새로운 건축 유형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발해 자체의 독자적인 건축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물론 발해도 점차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당시로서는 고급의 건축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당나라의 건축문화를 참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문화의 전파 패턴은 스스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인접 국가의 선진문화를 유입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동화시켜 독자적인 건축문화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차후 올바른 발해 건축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발해인의 입장에서 발해인의 건축문화를 이해하고 객관적인 성격 규명을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연구의 길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An aerial photograph of a river valley. The river is dark and winds through the center of the image. The surrounding land is divided into a grid of green agricultural fields. Several clusters of buildings, likely towns or villages, are visible along the riverbanks. The overall scene is a mix of natural and human-made elements.

渤海

새롭게 본 발해사

An aerial photograph of a rural landscape. A river flows through the center, surrounded by green fields and a small village. The text is overlaid on the bottom left of the image.

제 5 부 각국의 발해사 인식

- 중국의 발해사 인식
- 북한·일본·러시아의 발해사 인식

중국의 발해사 인식

윤재운 | 동북아역사재단 |

渤海

최 근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
工程의 줄임말)’과 관련하여 고구려사를 비롯하여 발해사·고
조선사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학계에 이 동북공정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발해사를 비롯하여, 고구려사·고조선사 등 현대 중국 지역에 있었던 고대의 왕조들을 모두 과거부터 중국사의 일부였다고 하는 주장을 중국의 정책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이다. 발해사에 대해서 중국은 개방 이후부터 ‘통일적 다민족국가(統一的 多民族國家)’ 이론에 입각하여 ‘당(唐)의 지방정권(地方政權)’이라 하여 중국사로 보고 있다. 물론 고구려사도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발해사만큼은 중국 학계에서 전 학자들이 중국사로 주장하여 왔으나, 고구려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달랐다. 적어도 한족(漢族) 사학자들도 고구려의 평양 천도 이후의 역사

에 대해서는 한국사로 인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북공정이 갖고 있는 중국 학계와 정책당국의 목표는 평양 천도 이후도 중국사라는 입장인 것이다. 때문에 고구려사·발해사 등에 대한 한국 학계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더 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발해사 연구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연구로는 당연(唐宴)의 『발해국지(渤海國志)』(1919), 황유한(黃維翰)의 『발해국기(渤海國記)』(1913)가 있다. 대륙에서의 발해사 연구는 김육불(金鑄鏞)의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1934)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그는 발해와 관련된 모든 문헌을 망라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기(世紀)·세계(世系)·연표(年表) 등을 작성하였으며, 또 총고(叢考)에서는 100여 종의 서적을 참고하여 135항목에 걸쳐 세밀한 고증 작업을 벌였다. 그의 연구는 지금도 발해 연구의 지침서이자 사료집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민족사 연구는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과 북평연구원(北平研究院)이 중심이 되어 성립된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의 민족연구소(民族研究所)와 문물고고연구소(文物考古研究所)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문화대혁명 이전까지는 주로 고고학 발굴과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로 간주하는 중국에서는 발해 연구가 문혁이 종결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상반기까지 발해사 연구 열풍이 일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주춤한 상태이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 학자들이 발해사의 귀속문제나 발해 민족의 족원(族源) 문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3년도 동북공정 연구과제에는 전체 15개 주제 가운데,

발해의 대외관계와 유적현황조사가 들어가 있고, 2004년도 공모과제 가운데는 발해족의 족원과 유민의 거취문제, 발해의 귀속문제가 들어 있다. 동북공정 가운데 발해관련 주제는 유네스코 선정 세계의 문화유산에 발해 관련 유적지를 중국의 것으로 등재하려는 의도의 산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한국·중국 양국 학계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검토하고자 한다.

발해의 주민 구성

발해의 주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냐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크게 말갈족설, 발해민족설이 있다.

먼저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말갈족설의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향(金香)은 장구령(張九齡)이 당 현종을 대신해서 쓴 「칙신라왕김흥광서(勅新羅王金興光書)」 가운데 ‘발해말갈(渤海靺鞨)’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는 점, 『신당서(新唐書)』·『구당서(舊唐書)』 속의 ‘발해말갈’이라는 구절이나 ‘발해본속말말갈(渤海本粟末靺鞨)’ 등의 기록이 있다는 점을 든다. 그는 또 다른 근거로 『구당서』의 “발해말갈대조영자(渤海靺鞨大祚榮者) 본고려별종야(本高麗別種也)”는 “발해국 말갈족인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에 귀속되어 있었다”라고, 『신당서』의 “발해(渤海) 본속말말갈부고려자(本粟末靺鞨附高麗者) 성대씨(姓大氏)”는 “발해의 건국자는 본래 속말말갈족으로 일찍이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었고 성은 대씨이다”라고, 『책부원귀(冊府元龜)』의 “봉말갈대조영위발해군왕(封靺鞨大祚榮爲渤海郡王)”에서 ‘말갈’은 민족명 또는

국명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당대에는 대조영 정권을 기미주(羈靡州)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 국명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말갈은 국명보다도 민족명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상술한 의미에서 ‘발해의 왕실은 속말 말갈족’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려별종(高麗別種)’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국침(朱國忱)·위국충(魏國忠)·유효동(劉曉東)에 따르면, “발해와 대씨는 말갈족이라는 전제하에 말갈 혈통의 대조영 일족임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려별종’은 대조영 및 그 일족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고구려에 의해 통치받은 모든 말갈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고구려에 의부(依附)한 말갈인은 고구려화(高句麗化)했거나 반(半)고구려인이 된 말갈인으로서 대씨 일족도 거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별종’의 ‘별종’이란 별파(別派), 지파(支派)라는 뜻으로서, 별종은 기준이 되는 본족(本族)과는 종족적인 면에서 친연관계를 나타내는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별종으로 표현될 당시에는 본족과 어느 정도 차이나는 점도 지닌 실체를 말한다. 이런 별종의 생성과정은 종족 분지(分岐)에 의한 경우와, 종족 간의 융합을 통한 경우가 있다. 고구려 후기 이후 발해 건국기에 이르는 시기는 종족 분기가 아니라 융합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런 면을 대조영의 경우에 대입하여 고려별종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먼저 대조영을 원래 속말말갈인이었다고 보아도, 발해 건국 당시 대조영 집안은 이미 오랜 기간, 적어도 부자 2대에 걸쳐, 고구려의 국가 체제에 속하여 복무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영주(營州) 지역에 장기간 유거(幽居) 생활을 한 뒤, 탈주의 장정(長征)을 거쳤다. 자연 그의 집단은 이미 고구려화가 상당히 된 상태로서, 주·객관적인 면에서 원주지의 속말말갈족과는 동질적일 수 없다. 그리고 그를 고구려계인으로

보아도, 668년 이후 영주 지역이나 당(唐)의 내지(內地)에 있던 이정기·고선지·왕모중 등의 고구려 유민을 '고려인'이라고 하였는데 비해, 그를 '고려별종'이라고 한 것이 유의된다. 이는 그가 중심부 지역 출신의 고구려인과는 어느 정도 차이나는 존재임을 말해 준다. 곧 대조영은 '속말수 유역에 거주하던 변경의 고구려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학계의 발해 민족설에 대해 살펴보겠다. 최소희(崔紹熹)는 속말말갈이 고구려에 복속된 5세기 말 이후 발해 건국기까지 200여 년의 기간 동안 양자 간에는 다방면에서 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속말말갈이 주축이 되어 고구려의 요소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인간 공동체가 곧 발해말갈이고 고려별종이며 발해족으로서, 대조영의 건국과정은 곧 발해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의 형성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손수인(孫秀仁)과 간지엄(干志耿)은 발해족은 발해 시대 200여 년을 거치면서, 속말말갈이 중심이 되어 말갈의 여타 제부(諸部)와 읍루, 부여, 예맥고지(故地)의 주민들 및 고구려 유민 등이 융합되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런 설들에 대해, 손진기(孫進己)는 속말말갈 등의 예맥계 말갈과 고구려인의 융합을 통한 발해족의 형성은 200여 년의 발해국 존립 기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단 발해국의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였던 흑수말갈, 철리말갈 등은 발해족으로 융합되지 않았고, 발해족은 예맥계 말갈인 부여, 옥저, 예 등과 고구려인 및 약간의 한족(漢族) 등이 융합으로 형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발해족의 문화와 물길계(勿吉系) 말갈(靺鞨)의 문화는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발해족의 다수는 그 뒤 한족(漢族)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발해 민족이 형성되어 있다는 설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926년 발해 멸망과 뒤이은 ‘발해인’에 대한 강제 이주와 ‘발해인’에 의한 부흥운동 등이 일어나는 등의 일련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발해인’과는 다른 말갈·여진 집단의 움직임이 장령부·압록부·남해부·부여부 등의 지역에서 확인된다. 이는 곧 발해 시대를 거친 뒤에도 이들 지역의 많은 주민이 ‘말갈’로 존속하였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중국 학자들의 견해대로 발해에 거주했던 모든 주민들이 융합되어 발해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종족적으로 발해국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은 고구려인들이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발해가 건국되었다는 상식적인 판단으로부터도 기인한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사실은 668년 고구려 왕실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고 할지라도, 고구려 땅에 세워진 발해국은 대부분 고구려인들이 주축이었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갑자기 말갈인들로 교체되었다거나 변식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발해의 국가 위상

중국 학계가 발해를 당나라 지방정권인 말갈국으로 보는 근거는 『신당서』에 발해 건국자를 속말말갈로 여기며, 건국세력이 말갈이 다수였다고 하는 것 등에 근거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언급을 생략한다. 또한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신당서』 등을 근거로 ① 발해라는 국호를 당으로부터 받았고,

② 당으로부터 훌한주도독부(忽汗州都督府)의 위치에 있으며 그 왕은 도독(都督) 등의 책봉(冊封)을 받으며, ③ 당나라에 끊임없이 조공(朝貢)을 하였던 기미주(靑靡州)의 관계였으며, ④ 흑수주(黑水州)에 파견되었던 것과 같이 발해에도 지역 관할관(管轄官)이었던 ‘장사(長史)’가 파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⑤ 문화적으로도 발해는 한자를 사용하며 당 중심의 문화를 향유하던 왕조였으며, ⑥ 이러한 사실은 온정균(溫庭筠)과 같은 유명한 시인이 발해와 당의 관계를 ‘거서본일가(車書本一家)’라고 하였던 데에서도 알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먼저 발해의 국호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 학계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은 『신당서』의 ‘말갈’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발해’라고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발해라는 국호를 당에서 사였다고 주장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한다. 발해는 개국으로부터 ‘진국(震國)’ 내지는 ‘발해(渤海)’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 말갈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말갈에서 발해로 국호를 바꾸어 부른 것은 당나라의 현실적 판단에 따른 일방적 외교행위라고 생각된다. 즉 “비로소 발해를 말갈이 아닌 발해로 정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책봉(冊封)에 대해 살펴보겠다. 발해 왕들은 대조영을 비롯해서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그러나 발해가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사실이 곧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아시아에서 발해를 비롯한 고구려, 백제, 신라, 왜 등에 대한 당나라의 책봉행위가 곧 속국이나 지방정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책봉은 양국 간의 외교적 승인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공(朝貢) 기록 역시 동아시아의 관영무역이나 공무역 차원에서 보는 것은 오래된 사실이다. 주변국들이 당으로부터 경제·문화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무역과 외교 행위 이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의 정치 행위로 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편, 발해에도 흑수말갈과 같이 지역 관할관이었던 장사(長史)가 파견되었을까 하는 점도 부정적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흑수말갈에 대한 장사 파견도 발해와의 대결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이것은 흑수말갈의 요구에 의해 파견된 외교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온정균의 ‘거서본일가(車書本一家)’의 의미도 한문(漢文) 문화를 공유하고 있던 것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고려 왕실이 발해를 ‘친척지국(親戚之國)’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역사적 귀속의식을 파악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 발해 문화의 연원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해 문화의 성격을 논한 글이 10여 편이 있는데, 대부분 문학이나 회화, 조각 등과 같이 각 부문별로 발해 문화를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들은 또한 당나라의 영향과 함께 말갈의 고유한 전통을 강조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복(李殿福)은 “발해는 당 문화를 이룬 한 부분이다. 발해 문화를 독립된 문화라고 하거나, 다른 민족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나, 모모(某某) 문화를 계승하였다고 하는 따위의 설명은 모두

착오이다. 발해는 당 왕조의 1개 주(州)로서 책봉을 받았고 당에 신속(臣屬)하였던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 속말말갈인은 발해의 주요 민족으로서 당 왕조 봉건제국 다민족대가정(多民族大家庭)의 한 성원으로서, 발해 문화는 중화민족 공동노동지혜의 결정이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위존성(魏存成)은 “발해 정권은 말갈족을 주체로 한 민족정권인 동시에 당나라 중앙정권의 책봉을 받아 당 왕조에 예속된 지방정권이다. 때문에 발해 문화는 의심할 바 없이 곧 당조 때 중국 역사문화의 한 부분이다. 우리들이 당조 문화를 이야기하거나 중국 고대 전통문화를 이야기할 때면 필연적으로 발해 문화를 말하게 되며 동시에 오직 발해 문화를 당조 문화 및 중국 고대 전통문화의 전체 속에 넣어아만이 더욱 깊고도 투철하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과적으로 고구려 요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손진기(孫進己)는 발해 문화가 대량의 당 문화에 속말말갈과 고구려 문화가 융합되어 성립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위존성(魏存成)도 산성과 평지성의 결합, 연화무늬 와당(瓦當),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 사이전연호(四耳展沿壺) 등에서 고구려의 영향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발해 초기에는 고구려 특징이 남아 있었지만 문왕대부터는 당 문화를 크게 받아들임으로써,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말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도 이들은 고구려 문화 요소를 일부라도 긍정하는 편이지만, 다른 글에서는 이 요소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형편이며, 심지어는 이전복(李殿福)의 글에서처럼 왜곡된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그는 산성을 설치하는 것은 중원과 다른 것으로서 발해에 고유한 것이라고만 설명하였고, 봉토묘도 고구려 무덤과 현저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와당도 고구려적이라 하면서 후기의 와당은 오히려 중국 서안(西安)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중국 학계의 시각은 ‘발해는 속말말갈인이 주체가 되어 건립하여 당조(唐朝)에 예속되었던 지방민족정권’이라는 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발해와 고구려와의 문화적 계승관계에 대해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묘제(墓制)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와 발해 지배층의 석실분(石室墳) 문화를 한(漢)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제하면서, 이것 역시 말갈의 토광묘(土塋墓) 전통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발해를 말갈계로 보려는 시각에서 나온 억측이 아닌가 한다. 수혈식(竪穴式) 토광묘 문화는 전근대 피지배층인들이 사용하던 인류 보편의 문화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한다. 또한 벽돌을 고분에 많이 이용한 것도 멀리는 한계(漢系)의 문화가 많이 전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벽돌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풍(漢風) 내지 당풍(唐風)이라고만 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자연 환경적으로 돌보다 흙이 많은 곳에서는 벽돌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효공주무덤같이 벽돌로 축조한 발해 고분이라 하더라도, 천장 마감 방법 등을 비롯한 고분 축조 방식은 여전히 고구려 양식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

한편, 발해의 종족 구성을 말갈로 보는 중국 학계에서는 말갈관(靺鞨罐), 즉 ‘배가 부른 항아리 모양의 단지’를 발해 주민들이 쓰던 그릇의 대표적인 것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관은 둔화(敦化) 육정산(六頂山) 무덤떼나 상경 용천부(上京龍泉府)터 및 다른 주거지에서도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고구려 유적인 자강도 자성군 범동리 하

구비와 대성산 기슭의 고구려 무덤에서도 나왔다. 그렇다고 고구려 무덤의 것들을 고구려인들이 아닌 말갈인들이 사용하던 ‘말갈관(靺鞨罐)’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고 본다. 고구려를 비롯해서, 발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저급한 토기는 많이 발견되지만, 모두가 고구려와 발해인들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족에 따라 고급의 도자기와 토기로 구별해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배와 피지배 내지, 중앙과 지방문화의 차이로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주거문화이다. 중국 학계에서 말갈 유지로 보는 흑룡강성(黑龍江省) 동녕현(東寧縣) 단결유지(團結遺址)에서 발견된 네 개의 발해 집터가 유명하다. 이 곳에서도 온돌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와의 관계는 전혀 언급하고 있



〈그림 1〉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발굴된 발해 시기 온돌유구

지 않다. 하지만 수많은 고구려 유적과 발해 상경 용천부터, 함경남도 오매리 발해 유적, 러시아 연해주의 크라스키노성터 유적들에서도 온돌이 확인된 바 있다. 고구려에서 계승된 온돌이 발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과 함께 발해의 주민 구성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성터이다. 고구려 산성의 특징으로는 치(雉), 웅성(甕城) 축성법 등을 들 수 있다. 치란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일찍 관측하고, 전투를 할 때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정면과 양쪽 측면, 즉 3면에서 공격하여 격퇴할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튀어나오게 한 시설이다. 웅성은 적군의 공격에 직접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문 바깥에 성벽을 하나 더 붙여 쌓아 면적이 크지 않게 만든 방어용 성벽을 말한다. 고구려 산성의 축성법은 성벽 건축에 돌을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점들은 발해의 성(城)에도 그대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발해사 인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현대 중국의 역사인식을 대변하는 ‘중화민족형성론’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소수민족 문제의 해결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현실적 절박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현대 중국의 역사인식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현실적 필요성에 속박되어 있어 민족이나 영토, 역사의 귀속성에 대한 판단이 특정한 목적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발해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 또는 중국 중원왕조에 예속된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그 주요 근거로 책봉·조공관계

와 발해의 고토(故土)가 중국 왕조의 관할구역이었다는 점들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고조선과 고구려, 부여와 고구려, 고구려와 발해,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관련성을 각각 부정함으로써,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와 통일신라-고려’라는 한국사의 기본구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중국의 역사인식 논리는 한마디로 ‘고위금용(古爲今用)’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대 중국 지역 모두는 지금이나 과거에도 모두가 중국사였다는 것이다. 지금의 역사 상황을 고대로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은 역사적 태도나 학문적 태도가 아닐 것이다. 역사의 본래 모습을 복원한다는 것은, 역사의 진행과정과 그 모습을 밝히는 것이다.

북한 · 일본 · 러시아의 발해사 인식

박진숙 | 충남대학교

渤海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까지 지금의 만주 및 한반도 북부지역,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한 해동성국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발해의 영토와 일정한 연고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 자국 중심적인 입장에서 발해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발해의 역사가 다원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발해 스스로가 남긴 문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해 관계를 앞세운 현재적 관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일찍부터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토대로 발해가 당대 지방정권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발해사를 자국사의 일부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최근 2002년 2월부터 2006년까지 5년을 기한으로 한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어 고구려뿐만 아니라 동북지역과

연관이 깊은 발해 역시 그들의 역사 속에 편입시키려는 목적이 관주도 하에 적극 추진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러시아 역시 연해주 일대에 남아 있는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발해사를 러시아의 소수민족사인 말갈사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반해 남북한은 중국, 러시아 학계의 입장과는 판이하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국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사의 체계 속에서 발해사를 복원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발해와 영토적 연고가 없는 일본은 중국이나 러시아, 남·북한에 비해 발해사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입장에서 발해와 관련한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에 여기에서는 북한, 일본, 러시아의 발해사 인식을 연구배경과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북한의 발해사 인식

발해 영토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발해사 연구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62년에 발표된 박사학위의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는 가장 대표적인 논문으로, 그는 중국·한국·일본측의 사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발해가 주민, 영역, 주권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밝혀 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씨의 출자문제, 발해의 국호인 진국(振國)과 진국(震國)의 문제, 중국측 사서인 『구당서』와 『신당서』의 사료적 평가문제, 발해와 신라의 교류관계, 발해 사회계층의 하나인 수령의 성격, 발해와 신라의 혼인관계, 대광현의 고려 망명 시기 등 상당히 폭넓게 여러 주제를 다루었다.

이와 같은 박시형의 연구활동은 발해사를 한국사의 범주 안에 설정하기 위한 논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사학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가 제시한 발해사 연구의 방향과 내용은 북한 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어 고구려-발해-고려로 계승되는 역사관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1962년에 간행된 『조선통사』 증보개정판에서는 발해사를 적극적으로 취급하여 고려를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로 규정함으로써 발해사를 신라사와 대등한 지위로 끌어올린 연구성과는 신라 중심의 역사관에 놓여 있는 남한 학계와는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발해사 연구는 유적과 유물을 바탕으로 한 고고학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발해와 관련된 기록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고고학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60년대에는 조·중공동고고학 발굴대가 조직되어 1962년 8월부터 1965년 7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만주 일대의 유적이 발굴되었고, 그 결과물이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라는 책으로 간행된 바 있었다. 1960년대의 대표적인 고고학자 주영현은 정약용의 고증과 현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돈화 오동성이 발해의 첫 도읍지였으며, 역시 중경 현덕부였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육정산고분군과 동경성 유적 발굴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무덤, 도시, 건축 및 각종 유물을 바탕으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고, 그 뒤에 고려에 넘겨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상렬은 발해상경돌등의 짜임새에서 돌등의 각부분을 측정하여 발해의 기본단위자를 추정하고, 그 구조 속에서 고구려의 계승성을 추적하였으며, 동경성 내에서 발견된 정자터를 복원하였다. 그 밖에 1967년에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동해안 일대의 고조선관계 유적을 조사하면서 청해토성을 발해 시기의 것으로 추정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에 이루어진 북한의 발해사 연구는 주로 중국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적·유물을 주된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자료를 접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뒤따랐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주체사관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학술 공동작업이 단절된 상태에서 점차 북한 지역의 발해유적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의 유적조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고 1960년대에 발표된 내용들을 확대 발전시킨 정도에 불과했다. 1971년에 간행된 주영현의 『발해문화』와 장상렬의 발해건축에 대한 논문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고고학개요』와 『조선전사』 역시 주영현, 장상렬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런데 1970년대에 침체되었던 북한의 발해사 연구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1980년대 후반에 발해사 연구를 위한 학술기구와 연구인력이 대폭 확충되면서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장상렬은 발해의 도시성 특히 동경성을 통하여, 채희국은 정혜공주무덤과 정효공주무덤을 통하여, 한인호는 발해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영광탑을 통하여 고구려와 발해와의 계승관계를 살피는 데 주력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역사학계가 민족사의 이해체계에서 발해가 정당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만은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남한 학계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해 가면서 고구려의 계승성, 그

리고 고려에의 계승성에만 집착하는 편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발해와 고구려와의 관련성이 발해의 위상을 확립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내용임이 분명하지만, 그 사실 자체에 지나치게 매달림으로써 그것을 논증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를 범하였고, 발해사의 또다른 측면에서는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비판을 거치지 않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의 연구활동은 발해사를 한국사의 이해체계 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점이다.

일본의 발해사 인식

일본은 발해의 영토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발해사에 대한 관심은 다른 나라 못지않게 상당히 높았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발해사를 연구할 만한 중요한 1차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속일본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사서 『구당서』나 『신당서』에서는 볼 수 없는 발해와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류 사실이 상당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양국 사신들이 서로 주고받은 외교문서는 발해의 고구려 계승 문제 여부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일찍이 이 사실에 주목한 임태보(林泰輔)는 1892년에 발간된 『조선사』에서 발해가 일본에 예를 갖추어 양국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면서 ‘방물을 바쳤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방물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후속 연구에서 발해를 조공국으로 인식하게 하는 틀을 만들어 놓

았다. 그 이듬해 길전동오(吉田東五)는 『일한고사단(日韓古史斷)』에서 발해를 고구려와 동일한 단원에서 다루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일본은 18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발해사를 고구려와 연계하여 이해하며 한국사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발해사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1906년에 발표된 나가통세(那珂通世)의 「옛날의 만주(古の滿洲)」에서는 발해가 한국사가 아닌 만주사로, 그리고 일본을 종주국, 발해를 속국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뚜렷한 변화는 1905년 러일전쟁 이후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만주 지역에 대한 이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만주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907년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조사부가 성립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 때 활동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백조고길(白鳥庫吉)·지내굉(池内宏)·송정등(松井等)·진전좌우길(津田左右吉) 등이 있다.

하지만 강점기 초기의 발해사 연구는 1914년에 만주철도주식회사의 조사부가 폐쇄되고 동경제국대학 문학부로 이양되면서 다소 침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던 중 1927년에 동아시아 지역의 고고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동아고고학회가 설립되면서 발해유적의 고고학적 발굴과 함께 연구논문이 급증하였다. 그 뒤 1930년대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을 성립시키면서 발해사 연구가 재개되었는데, 이 시기의 연구는 대륙 침략의 길을 걸으면서 자국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편협한 시각이 더욱 강화되어 일본의 패권적 아시아주의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만주를 상실한 뒤부터 1960

년대 말까지 일본의 발해사 연구는 다시 한번 침체되었다. 화전청(和田淸)·삼상차남(三上次男)·일야개삼랑(日野開三郎)·신치이구(新妻利久)·조산희일(鳥山喜一) 등에 의해 일제시대 이래의 활동이 연장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 가운데 화전청은 발해의 지리, 삼상차남은 발해와 고구려와의 연관성, 일야개삼랑은 소고구려와 말갈, 신치이구는 발해와 일본과의 교류를 연구하였고, 조산희일은 1915년의 『渤海史考』를 보완하여 『渤海史上の諸問題』를 발간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 발해사 연구는 주로 전후세대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영목정민(鈴木靖民)·석정정민(石井正敏)·주기아지(酒寄雅志)·빈전경책(浜田耕策) 등의 활동이 주목된다. 그 가운데 석정정민은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해서는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었다는 의미가 발해와 일본 양국에게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고, 발해는 과거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후신이라는 입장에서 자칭하였으며, 일본은 과거 조공국이었던 고구려를 계승하였던 의미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연구는 당과 발해를 둘러싼 사절, 상인, 승려의 동향과 국제의례, 외교문서 등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대륙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발해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만주와 일본의 교류, 일본에 조공을 바친 발해국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발해와의 교류가 일본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일본 내부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발해와의 관계를 당과의 매개체로서 인식하는 데 그치고 발해가 대륙문물을 연계하는 주요한 창구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의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

과를 토대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고전철(古畑徹)은 발해와 일본의 교섭 초기를 검토하였으며, 빈전정책(浜田耕策)은 9세기에 있었던 발해와 신라가 당에서 벌인 쟁쟁사건에 주목하여 국제관계 속에서의 발해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발해와의 교류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녔으며, 나아가 발해와 신라와의 대립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영목정민은 수령에 주목하여 외교사절에 가담하여 교역활동에 종사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 이후 하상양(河上洋)과 대우황홍(大隅晁弘)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수령이 일본 교역에 미친 역할을 규명하고, 동시에 불완전한 발해의 통치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왕성한 일본의 발해사 연구는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는데, 주요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발해와 신라의 대립, 발해와 일본이 우호라는 기본 구도하에서 당시 동아시아를 이해하려는 경향과 그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성시(李成市)에 의한 장인기사(長人記事) 검토 등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시각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연구도 있다. 예컨대 빈전정책은 그의 연구에서 신라 침공계획 당시 양국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추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고, 고전철의 연구에서는 발해와 신라와의 교섭 가능성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는, 발해사를 동아시아라는 광의의 영역에서 일본의 소중화의식이라는 전제하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연구에 따라 입장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일본이 소중화의식에 입각하여 발해를 번

국에 대한 의례로 취급하고 있었으며, 신라와 달리 발해가 이에 순응하였다는 것을 기본적인 인식으로 삼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빙기제한 문제라든가 도착지논쟁, 국서개봉권 등을 들고 있다. 즉, 신라침공계획 이후 발해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냉각되고, 경제교역을 목적으로 발해의 방문에 일정정도 제한을 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시기 발해와 일본의 교류는 일본의 주도에 의해 추진되었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감이 없지 않다.

한편, 이와 같은 일본 중심적인 시각에 비판을 가하는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신라침공계획이 무산된 원인을 안사의 난 진압에 따른 위기 해소와 연관지어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계융(戒融)·관원도진(菅原道眞)·한조채(韓朝彩) 등을 중심으로 발해가 당과 일본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었다.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연구경향으로 환일본해 지역 고대문화교류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 연구를 빼놓을 수 없다. 지역사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가 지나치게 국민국가 중심의 틀에서 대외관계를 연구해온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일본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교류가 이루어진 지역을 새로운 범주로 설정하여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록지역 등 일본 곳곳에서 발해와 관련된 유물과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대표적으로 소도방효(小嶋芳孝)·서천굉(西川宏)·서곡정(西谷正) 등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문헌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고고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접근방식의 연구는 향후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 발해사와 관련한 개설서가 다수 발간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상전웅(上田雄)은 1990년대 초반에 발표한 『일본발해교섭사(日本渤海交渉史)』에 이어 『발해사의 연구(渤海史の研究)』에서 양국 교류에 관한 사료상의 내용을 주제별로 체계 있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사절의 파견시기, 체류일정, 도착지와 출발지, 선단의 구성과 선박의 제공유무 등 교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실을 사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석정정민의 『일본발해관계사의 연구(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와 주기아지의 『발해와 고대의 일본(渤海と古代の日本)』이 연속 발간되어 발해사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발해사 연구는 일본 주도의 외교질서를 합리화하려는 기본적인 입장을 노정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러시아의 발해사 인식

러시아에서는 발해가 연해주 최초의 봉건국가이면서 다민족국가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과 일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권국가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연해주 역사를 러시아 역사의 일부분으로 편입시키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발해를 독립된 주권국가로 취급하여 중국사와 한국사에서 분리시킨 것은 자국의 역사 속으로 편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이 만주를 중국에서 분할하여 통치하려 하였고, 1960년대에 들어 양국 간에 영토분쟁이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도 무

관하지 않다. 결국 러시아는 말갈-발해-여진-현재의 연해주 소수민족으로 이어지는 계승관계 속에서 발해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종족구성에 있어서 러시아는 발해를 다수의 말갈부족과 함께 고구려인, 위구르인, 돌궐인, 실위인, 소그드인 등으로 구성된 나라로 보았다. 비록 고구려인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였지만, 발해는 말갈인이 주도권을 쥐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후예국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중국인들이 만주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다고 하여 고구려, 부여, 발해를 그들 역사의 일부분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와 결코 다르지 않다. 발해를 말갈사로 보고 있는 점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일하지만, 말갈을 자국의 역사와 관련시키려는 점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중국의 인식을 ‘중국 중심주의’, ‘아시아 중심주의’라고 비판하였고, 그 반면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이러한 인식을 ‘중앙아시아 중심주의’, ‘패권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발해사에 대한 관심은 1860년 북경조약으로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발해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3년에 이르러 극동고고조사단이 소련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조직되고, 그 이듬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소련 과학원 극동역사학, 고고학, 민족학 분과가 설치되면서 러시아의 발해사 연구는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되었다. 고고학자인 아 베 아클라드니코프와 그의 제자 에 베 샤브쿠노프는 당대를 대표하는 발해사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에 베 샤브쿠노프는 「1955~1956년 연해주 야외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수 차례에 걸쳐 발해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가 발굴작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연구성과는 1968년에 『발해국과 연해주의 발해문화유적』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이것은 1962년에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에서 받은 박사후보학위논문으로 발해사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왕성한 연구활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계속되어 노보고르제예브카 성터와 취락지, 마리아노브카 성터, 니콜라예브카 I 및 II 성터들이 조사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도 크라스키노 성터, 아브리코스 절터, 카브이트 절터에 대한 후속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유적으로서 콘스탄치노브카 취락지, 스타로레첸스코예 성터 등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발해사 연구는 1971년 7월에 아 이 크루샤노프가 조직한 연구소인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극동민족 역사학, 고고학, 민족학연구소가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에 베 샤브쿠노프를 주축으로 하여 베 이 보르딘, 오 베 디야코바, 아 엘 이블리에프 등의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발해 관련 서적들이 이 연구소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의 발해사 연구는 연해주 일대의 고고학 자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해석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유적에 대한 전면적 발굴이 아닌 몇 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소규모로 발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별 유적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요원한 상태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지의 연구는 유적보다는 출토된 개별적인 유물 연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만주나 북한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과의 비교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해석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발해를 말갈계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연해주 지역의 고고 자료에 대한 해석을 발해사 전체의 성격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연해주는 발해 중심지와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기 때문에 이 곳의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발해 문화의 전체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헌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연해주의 발해 역사를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로 연구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됨에 따라 연구자들 사이에 전문화가 되고 있어 발해사의 새로운 면을 이해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본 발해사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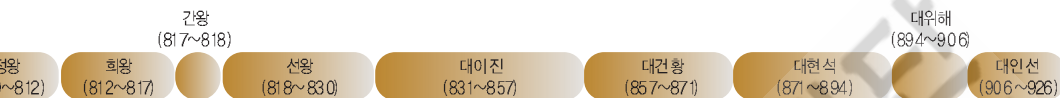


발해 역사 연표



성왕
(793~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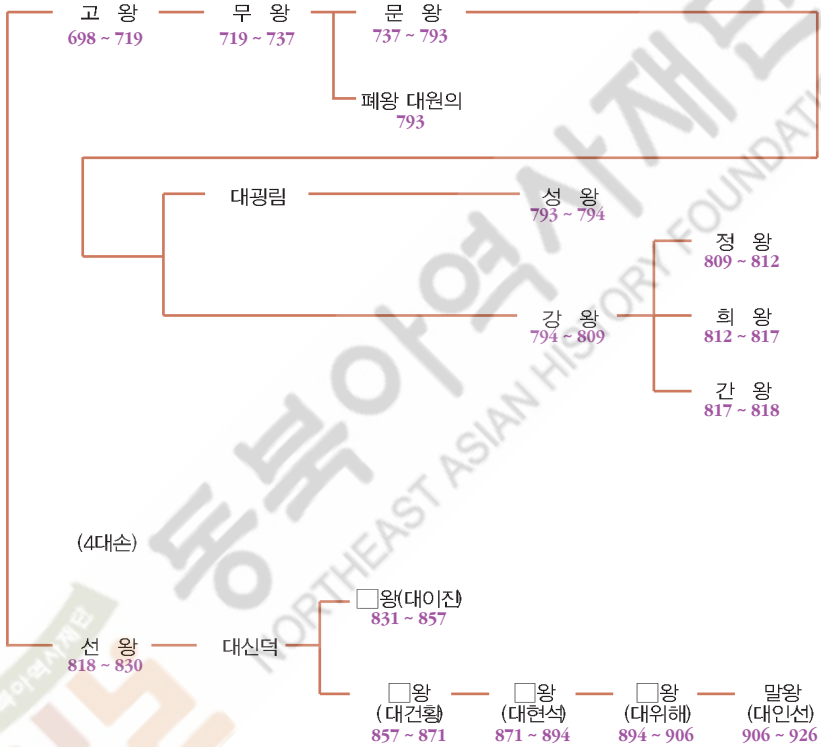
연대	고왕 (698~719)	무왕 (719~737)	문왕 (737~793)	성왕 (793~794)	경왕 (794~809)	
주요 사 항			756 진해 11월에 일어난 안록산의 난을 피해서 현주에서 상경으로 천도함	762 당나라에서 왕을 발해군왕에서 발해국왕으로 진봉함		
			758 행목지주 자사 양승경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냄(4차)	764 당의 사신 한조체가 발해에서 신라로 감		
			759 현토주 자사 고남신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냄(5차)	771 일만복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냄(7차). 이때 가지간 국서에서 친손을 자칭하고 양국을 구생(舅甥)관계로 규정하려 함		
		713당의 사신 최훈이 발해에 도착하여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아들 대무예를 계루군왕으로 책봉함. 이로부터 국호를 발해라고 함		774 유신의 일환으로 대흥에서 보력으로 개인함. 나중에 대흥으로 되돌아감		
		719 고왕이 사망하고 아들 대무예가 즉위함		776 사도몽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냄(9차)		
		726 대문예와 임이에게 흑수말갈을 치도록 함	728 장자 대도리행이 당에서 사망함	790 신라가 백어를 발해에 사신으로 보냄		
		대문예가 왕과의 불화로 당으로 망명함	732 발해가 장품휴를 보내 당 등주를 공격함. 따로 육로로 마도산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감	793 대원이가 1년만에 국인에게 피살되고 대평립의 아들인 대화여가 즉위함. 즉위 후에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함		
		727 고인의를 일본에 사신으로 보냄(1차). 이로부터 왕래가 시작되어 이후 발해에서 34회, 동단국에서 1회, 일본에서 13회 사신을 파견함	733 당의 요청으로 신라가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였으나 성과 없이 물러남	794 성왕이 사망하자 문왕의 소자인 대승린이 즉위함		
			737 무왕이 사망하고 아들 대흥무가 즉위함	795 여정림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냄(13차)		
			738 당에서 『당례』, 『삼국지』, 『진서』, 『삼십육국춘추』를 필사해옴	798 일본에서 6년에 한 번씩 사신을 파견하라		
			739 약홀주 도독 서요틱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냄(2차). 약홀주는 목지주·현토주와 함께 62주를 설치하기 이전의 고구려식 명칭임	고 통고함. 대창태를 일본에 사신으로 보냄		
		668(고왕 원년) 대조영이 동모산으로 옮겨 진국을 세움		799 일본에서 발해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한에 구애되지 말고 아무 때나 사신을 파견해도 좋다고 통고함		
	연대	A.D. 650	700	750		



809	강왕이 사망하자 아들 대원유가 즉위함		
812	정왕이 사망하자 동생 대연의가 즉위함		
815	전 해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왕효렴(17차)이 귀국함		
817	희왕이 사망하자 동생 대명충이 즉위함		
818	간왕이 1년만에 사망하자 종부이며 대야발의 4세 손인 대인수가 즉위함		
824	일본이 12년(일기)에 한 번씩 사신을 파견하라 고 함		
828	일본이 발해 사신과의 사사로운 교역을 금지시킴		
830	선왕이 사망하자 손자인 대승린이 즉위함		
831	즉위한 이듬해를 함화 원년으로 삼음		
832	당의 사신 왕종우가 귀국하여 발해에 좌우신궐군, 좌우삼군, 120사를 둔 사신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 고 함	857	대이진이 사망하고 동생 대건황이 즉위함
834	9월	859	발해 사신 오효신이 일본에 장경선명력을 전해 줌
834	9월에 당의 사신 장건장이 발해에 도착하여 이듬 해 돌아감	861	4월 발해 사신 이거정(27차)이 일본에 불경 존승타라니경을 전해 줌
841	하북연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냄(24차)	871	대건황이 사망하고 대현석이 즉위함
		907	이 해에 대인선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그 이전에 왕위에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음
		925	장군 신덕 등 500명이 고려로 들어옴. 이 때부터 발해인의 고려 망명이 시작됨
		926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함

800	850	900
-----	-----	-----

발해 국왕
세계표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발해사자료집』 상·하.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
- 구난희, 1999, 「8세기 중엽 발해·신라·일본의 관계—일본의 신라침공계획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0(한일관계사학회).
- 구난희, 2005, 「대일본외교를 통해서 본 발해의 외교전략」,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고구려연구재단).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6, 『한국사』 10-발해.
- 김동우, 1996, 「발해의 지방통치체제와 수령」, 『한국사학보』 창간호(고려사학회).
- 김은국, 1992, 「발해 멸망에 관한 재검토」, 『백산학보』 40(백산학회).
- 김은국, 1999, 「신라도를 통해 본 발해와 신라관계」, 『백산학보』 52(백산학회).
- 김정배·유재신 편, 1988, 『발해국사(1)』(정음사).
- 김정배·유재신 편, 1989, 『발해사연구』(정음사).
- 김중복, 2002, 「발해 정치세력의 추이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중복, 2004, 「발해의 건국과정에 대한 재고찰」, 『한국고대사연구』 34(한국고대사학회).
- 김진광, 2002, 「8세기 발해의 요동진출」, 『삼국시대연구』 2(학연문화사).
- 박진숙, 2001, 「발해의 대일본외교 연구」(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진숙, 2001, 「발해의 지방지배와 수령」, 『국사관논총』 97(국사편찬위원회).
- 송기호, 1993, 『발해를 찾아서』(솔).
-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연구』(일조각).
- 송기호, 1999, 『발해를 다시본다』(도서출판 주류성).
- 윤재운, 2002, 『남북국시대 무역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참고 문헌



- 윤재운, 2004, 「발해의 왕권과 대중국무역」, 『백산학보』 68(백산학회).
- 이병건, 2001, 『발해 24개돌유적에 관한 건축학적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병건 편저, 2003, 『발해 건축의 이해』(백산자료원).
-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신서원).
- 임상선, 1999,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신서원).
- 임상선, 2000, 「발해인 이광현과 그의 도교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0(한국고대사학회).
- 전현실, 2004,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본 발해 남자 복식연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규철, 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신서원).
- 한규철, 1996, 「발해국의 주민구성」, 『한국사학보』 창간호(고려사학회).
- 한규철 외, 2000, 『발해사의 종합적 고찰』(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새롭게 본 발해사

초판 1쇄 발행 2005년 10월 28일
재판 1쇄 인쇄 2007년 11월 26일

펴낸이 김용택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미군동 267) 임광빌딩 본관 11~12층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75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5

ISBN 978-89-6187-003-0-0391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